



작년 제 26차 평의원회의 모습

제 26 차 미주동창회 평의원회의 준비 완료

Keynote Speaker는 Jennifer Lind 교수

6월 23일부터 25일까지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의 최대행사인 연례 평의원회의가 차기회장인 윤상래(수의62) 회장의 뉴잉글랜드 보스톤에서 열린다.

6월 23일 평의원회의의 전야제, 24일 평의원회의의 및 만찬 등의 순서로 진행되는 평의원회의의 주연사(keynote speaker)는 Dartmouth 대학 국제정치학 교수인 Jennifer Lind 교수로 정해졌다.

Lind 교수는 미국내 한반도 정세에 관한 전문가로서 2012년 Rand Corporation (Think Tank)의 Bruce Bennett 박사와 함께 "Sudden Collapse of North Korea (북한의 갑작스러운 붕괴)"를 집필하였고 이후 계속해서 왕성한 연구활동을 해 오고 있다. Lind 교수는 다음과 같이 자신을 소개해 왔다.



for Japanese Studies at Harvard University. Professor Lind has previously worked as a consultant for RAND and for the Office of the Secretary, U.S. Department of Defense.

Jennifer Lind is Associate Professor in the Government department at Dartmouth College, and a Faculty Associate at the Reischauer Institute

Professor Lind's research focuses on the security relations of East Asia, and U.S. foreign policy toward the region. Her book, *Sorry States: Apologies in International Politics* (Cornell, 2008), explores how memory and apologies affect international reconciliation. She has also researched regime stability in North Korea, and the implications of North Korean collapse. Her current book manuscript examines how countries rise to become great economic and military powers, analyzing what it takes for a country to succeed at this difficult process. Professor Lind has published her research in numerous academic journals, and writes for wider audiences in *Foreign Affairs*, the *Wall Street Journal*, the *New York Times*, and the *National Interest*.

한편 6월 23일 금요일(4-6pm)에는 이준근 교수의 강연이 "미국의 아시아 정

책과 한국의 안보"란 주제로 있을 예정이다. 이준근 교수는 연세대학교 정외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한 후 The University of Texas 에서 정치학 박사를 받은 후 서울대, 연대, 고대 등의 강사를 역임하고 캐나다의 University of Victoria 에서 정치학 교수를 역임했다. 자타가 공인하는 중국통으로 알려져 있는 이 교수의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를 분석하고 한국의 안보를 위해 나아가 갈 방향에 대한 강연이 기대된다.



	6/23 금요일	6/24 토요일
오전		평의원회의 차차기 회장선거
오후	세미나 이준근교수	평의원회의 안건토의
저녁	전야제/음약회	Dr.Lind 기조연설

CHANGE SERVICE REQUESTED

NON-PROFIT
US POSTAGE PAID
LANSDALE, PA
PERMIT No. 95

Inside

본 회보에 게재된 기고문은 회보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회보에 게재된 취재기사 및 동문글은 본 회보가 Copyright을 갖습니다.

-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 26차 미주동창회 평의원회의 준비완료 2. 백순: 미국과 중국의 대결과 협력/김월화:나 vs 나c 3. 방문산:반쪽의 정치, 쪼개진 나라 최승홍:트럼프의 3개전략과 한반도 운영 5. 허문명:한반도 미래전쟁/김병연:한국이 북한을 앞섰던 이유 6. 오피니언 리더 1000여명, 봄날 손을 맞잡다/계시관 7. 모교 총동창회 제1학기 장학금 수여식/원고모집 8. 우상순 박사, 워싱턴주 시니어포럼/김영덕 동문,뉴욕주 아시아 태평양 문화유산에 선정/송호근교수, 소설가로 변신 9. 이내건,이홍자 동문 부부, 장학금 3억원 쾌척/백도명:나눔으로 얻는 지혜/남가주 법대 동창회 आयु회 10. 뉴잉글랜드 동창회, 제 1회 S포럼개회/이공계 여성 네트워크 만든 이진주 걸스로부터 대표/김유은,장성 베토벤 소나타 전주 연주 11. 차차기 후보 3대 공약: 김철수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2. 차차기 후보 3대 공약: 이서희 13. 차차기 후보 3대 공약: 신용남 14. 정유석:토마스 이킨스의 '애그뉴 클리닉' 15. 공지:시카고 동창회 주소록 발간 자료요청 16. 지부소개:뉴욕 18. 특집: 아.청춘! 장석정/김정현/특집: 한마디 말-이정근 19. 특집: 아.청춘! 박취서/미국에서 배운 교훈-허주홍 20. 인터뷰: 한정민 동문과의 만남/한정민: 상처의 주범은 좌절된 기대 21. 이영선:동창회보가 찾아준 인연/관상희 사: 시간/박평일:가정상담을 하는 한 후배의 글을 읽고 22. 송윤정:그 사람의 뒤통자/김수영:등급은 어머니/김옥영:풍요한 여백 23. 인간 vs 기계 빈익대결의 승자는?/영화: 다니엘 블레이크 24. 부고: 산악인 김석두 동문 25. 이달의 사진:월발/편집후기 |
|---|---|

미국과 중국의 대결과 협력



백순범(대 58)

“상승하는 세력이 지배하는 세력을 바꾸려고 위협할 경우 평화적인 위기가 ... 반작용의 폭포수(전쟁)를 유발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버드 대학 그라함 알리슨 교수가 근래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에 대한 한 연구에서 설명하고 있다. 고대 희랍에서 신웅 아테네가 지배세력인 스파르타에 도전하여 전쟁을 불사했던 ‘투키디데스 함정’ (Thucydides Trap) 이론이 바로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말해 준다.

하버드 대학연구는 지난 500년 동안 16건의 국가대결이 12건의 전쟁으로 치닫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듯 20세기 후반과 21세기를 거치면서 힘이 급격하게 부상하고 있는 중국이 아직까지는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미국에 도전하고 있는 대결현상, 그리고 중국과 미국이 투키디데스 함정에 빠져 들어가지 않고 협력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은 있는 것인지 관찰해 보기로 한다.

상승하는 세력(Rising Power)인 중국이 지배하고 있는 세력(Ruling Power)인 미국과 대결(Confrontation)하는 현상은 3가지이다.

첫째 대결은 경제대결이다. 국가자본주의를 시행하고 있는 중국은 은행을 비롯해서 대형국기업이 경제를 좌지우지하고 있어서 많은 경제 분야에 있어서 외국기업, 특히 미국기업의 참여를 금지규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최근 중국은 10대 전략산업을 정해 놓고 정부보조와 투자를 통하여 국가기업을 활성화한다고 하는 ‘중국제표 2025년’(Made in China 2025) 프로젝트를 시행하여 미국과의 경제대결에 주력하고 있다.

둘째 대결은 동북아시아 지역관할대결이다.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은 북한과 동맹관계에 있으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공격가능성을 포함한 강경

대책을 큰 소리치고 있지만 중국의 전술적 역할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인 것이다. 한국의 사드배치에 따른 중국의 한국상품 및 연에 보이코트는 중국이 얼마나 지역관할대결에 힘을 쏟고 있는지 보여준다. 그리고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비행항주로를 포함한 군사시설 확장에 애쓰고 있는 것도 미국의 동북아시아지역 관할에 대결하는 표현인 것이다.

셋째 대결은 지도력대결이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중국의 개방 이후 어느 지도자보다도 더욱 권위주의적인 지도력을 들어내고 있으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 제일주의를 표방하면서 독자적으로 정치를 하고 있어서 미국과 중국의 지도력대결이 어느 정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더욱이 미국인들은 어떠한 외부의 대결에 양보하거나 후퇴해서는 안된다고 제창하고 있는 현실이다. 미국과 중국이 이러한 경제대결, 동북아시아지역 관할대결, 지도력대결 등의 소용돌이가운데 있을 때 투키디데스 함정에 빠져 들어가지 않고 협력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은 있는 것인지 관찰해 보기로 한다.

라해법이 있는 것이지 알아 볼 필요가 있다.

3가지의 해법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하나의 해법은 수출, 외국직접투자, 외국인거주, 유학생, 방문 등 미국과 중국간의 연관관계를 지금의 수준이상으로 확장하는 것이다. 둘의 해법은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을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World Bank나 IMF와 함께 세계금융기구로 인정해 주는 것이다.

셋의 해법은 헨리 키신저가 제창하는 바와 같이 ‘역제와 힘과 합법의 민감한 균형’ (Subtle Balance of Restraint, Force and Legitimacy)를 미국과 중국이 아시아의 안보와 번영을 위하여 이루어서 동반자관계 (Partnership)로 발전시키는 길인 것이다.

(전 미국노동성 선임경제학자, 버지니아 워싱턴대학 경제학교수)



김명희(인문 86)

‘나’ vs ‘나c’

수학에는 여집합이란 개념이 있다. 특정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일컫는 말이다. 가령 U라는 전체집합이 있다고 치자.

A는 그 집합에 속하는 부분집합이다. 이때 A의 여집합(Ac)이라고 하면, 그건 집합 U에 속하면서 A가 아닌 나머지를 가리킨다.

여기서 U와 A가 사람을 원소로 한다고 쳐보자. 이를테면 우리 마을 사람 전체를 U로 하고 나를 A로 해보자는 것이다. 그럼 Ac은 나를 제외한 우리 마을 사람들이 된다. 수학적으로 하등의 오류가 없는 이해다. 그런데 이를 바탕으로 “우리 마을은 나와 그 나머지로 이뤄져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과연 “우리 마을은 나로 대변된다”, “내가 곧 우리 마을”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

‘나머지’와 ‘남’은 결코 같을 수 없다. 남은 나와 대등하다고 볼 수 있지만 나머지는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 남은 몹시 거슬려도 제거할 엄두를 쉬이 내지 못하지만 나머지는 조금만 성가셔도 서슴없이 치워내려 한다. 그러니 ‘나’ 대 ‘나머지’란 구도로 타자를 보는 시선은 ‘나’와 ‘남’의 구도로 보는 정신에 비해 혹독한 결과를 야기하게 된다. 자기나 남을 가리켜 ‘인어니’, ‘유령’이니 하는 풍조가 번지는 것이 예사롭게 보이지 않는 이유다.

인어 곧 나머지는 그것을 나와 다른 부류로 여겼다는 얘기다. 예컨대 중국인이 대대로 주변 이민족을 ‘오랑캐’로 간주했듯이, 내가 사람이면 나머지는 사람으로 치지 않았다는 뜻이다. <사기>에 보면, 요임금과 순임금은 흉악무도한 악한을 사방으로 내쫓아 그들로 이역의 오랑캐를 다스리게 하여 태평성대를 일궈냈다고 한다. 오랑캐를 다른 부류로 간주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중국에는 군주가 없어도 오랑캐에 성군이 있음보다 낫다”는 공자의 단언이 새삼스럽지 않은 까닭이다. 송대 동아시아 세계의 스타였던 대문호 소동파가 “아무리 성군일지라도 오랑캐를 교화할 수는 없다”고 확신한 연유기도 하다.

한마디로 타자를 없으면 병폐, 없애도 별 문제없을 나머지로 봤다는 것이다. 하여 그들은 교화나 소탕보다는 배척이나 소탕 대상으로 손쉽게 지부됐다. 대량학살도 곧잘 일어났다. <서경>에는 성군 주 무왕이 폭군 상의 주왕을 쳤을 때, 죽인 병사의 피가 시내를 이뤄 절구 공이가 떠다녔다는 기록이 나온다. 물론 과도하게 부풀려진 서술이지만, 대규모 학살이 있었음을 부인키는 어렵다. 없애야 할 나머지로 여겼기에 생겨났던 일이다.

저 옛날 동양에서나 그랬던 게 아니다. 신대륙에 진입한 서구는 원주민을 ‘사냥’하듯 제압했고,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럽에선 유대인 학살이 반발했다. 일제는 여염집 여성을 ‘성 노예’로 징발했으며, 나치가 유대인에게 했듯이 조선인을 실험실의 모르모트처럼 취급했다. 또한 중국 난징에선 수십만의 양민을 학살했다. 미국은 전쟁을 끝낸다는 명분으로 일본에 핵폭탄을 투여했다. 지난 세기 후반 유럽, 아프리카에선 적대세력에 대한 ‘인종청소’가 자행됐다. 모두가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기에 자행됐던 참혹한 만행들이다.

국가나 집단 차원에서 그랬던 것도 아니다. 남을 나의 나머지로 보는 이들은 삶과 사회를 주로 제로(sum-zero-sum)적 적대 관계로 본다. ‘남의 행복은 나의 불행, 나의 행복은 남의 불행’이라 믿고, 나이기 광고 문구처럼 “You don't Win Silver, You Lose Gold.(당신은 은 메달을 딴 것이 아니라 금메달을 놓쳤다)” 식으로 매사에 임한다. 그들은 승자독식을 당연시하며 내가 곧 전체라는 착각에서 헤어나질 못한다. 재벌이나 독재자가 내가 곧 기업요 국가라고 철석같이 믿는 딸이다.

그래서 그들은 위정자가 돼서도 전체 파이를 키울 줄 모른다. ‘집합적 부’엔 관심이 없고 기존 파이에서 자기 몫을 늘리는 데 집중한다. 실험 파이를 키우려 늘

어난 몫을 독점하는 데 급급해 한다. 맹자가 설파한, 백성의 부유함이 군주의 부유함이라는 이치는 ‘루저(looser)’의 불멘소리 정도로 치부한다. “군주는, 천하가 먼저 즐거워한 후에 즐거워하고, 천하가 걱정하기에 앞서 걱정한다”는 선우후락(先憂後樂) 같은 진리는 아예 씨알조차 먹히질 않는다. 그들이 지독히도 이기적이고 수구적이라고 평가되는 이유다.

그렇다고 무조건 타자를 남으로 대하자는 얘기는 아니다. 남이 나를 나머지로 본다면, 또 그런 태도를 바꾸려 하지 않는다면 좀 더 따져 봐야 한다. 그가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 강자라면 더욱 그러하다. 강자가 자기 잘못을 반성하지도 않고 바로잡으려 하지 않는다면 특히나 그렇다. 사람은 성찰할 줄 알고 나아지려 노력하며 기어코 나아지기도 하는 존재다. 반면 개, 돼지는 사죄도 또 회개도 할 줄 모른다. 힘이 있다는 이유 하나로 남을 나머지로 여기며 그저 물어뜯는다.

그러한 부류를 굳이 나와 동류인 남으로 대할 까닭이 있을까. 비정상을 바로잡기 위해선 나와 그 나머지만 구도도 때론 ‘제한적’으로나마 활용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대목이다.

327차 한국일보 김월희 칼럼에 실린 글
모교 중어중문과 교수



방문신(경영대 82)

반쪽의 정치, 쪼개진 나라

특히 반(反)이민 행정명령 이슈에 당시 같은 객원연구원이 반대의 힘을 실어주면 좋겠다는 취지였다. 대학 행정처가 외국인에게 반정부 집회 참석을 독려하다니? 처음엔 의아했지만 트럼프가 만들어낸 반쪽의 정치, 쪼개진 미국, 분열된 세계가 동시에 느껴졌다.

반쪽의 확장 편향...그 대가는?

캘리포니아는 트럼프 당선 후 캘릭시트(캘리포니아+엑시트, 캘리포니아 분리)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트럼프 혐오가 심한 곳이다. 대중적 주목도가 높고 언론의 반향이 큰 할리우드의 진보성향까지 가세해 더 그런 분위기가 느껴진다. 가수 마돈나는 “폭악의 시대를 거부한다”며 ‘Fuck you’라고 욕설까지 했다. 오버액션이지만 언론 입장에서는 그런 게 다 뉴스다.

트럼프는 이런 언론에 대해 ‘가짜 뉴스, 미국의 적’이라고 노골적 적대감을 드러내고 있고 언론은 언론대로 연일



LA의 동창회 선배들도 미국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말한다. “과거 미국인들은 눈만 마주쳐도 웃으며 인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는데 요즘은 미국인들끼리도 인사를 안 하고 짜증이 많아진 느낌”(권희재·경영80-84 남가주 동창회장, 93년 이주) “중산층 동네에 유색인종이 들어와 기존 백인들이 외곽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현하기 시작한 느낌”(강호석·경영81-94 전 민주상대동창회장, 86년 이주)이라고 한다.



최승훈(법대 62)

트럼프의 3개 전략과 한반도 운명

북한 핵 문제에 대한 미국의 정책이 급주부터 변화되고 있다고 수 있다. 미국은 북한 핵 문제에 대해 3개의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첫째는 정치적 측면에서 북한 핵무기와 미사일 발전을 미국내와 국제적으로 반대하는 전략이 수립되어 있었다. 북한의 일련의 실험에 대해 주로 UN 안보이사회의 여러차례 결친 대북한 결의로 반북 정치, 경제 교역 재제를 집행하고 있다. 허나 이러한 국제 조치가 북한의 비핵화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은 더욱 빠르게 진행된 셈이다.

둘째, 트럼프는 이제 미국 안전에 제일의 위협은 북한의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보고 이를 제거하도록 미해군 함대를 한반도에 보내 북한이 핵 또는 미사일 실험을 할 경우 즉시 북한을 공격하려는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북한이 이러한 실험을 준비 중이라는 것이 확실하다면 북한을 선제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이 펜타곤의 입장인 것 같다.

한편 미국이 북폭하려 한다는 정보가 있으면 북한은 우선 선제 남폭을 실시할 것이며, 이 경우 북한은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남반 및 일본을 공격하리라고 펜타곤 뿐만 아니라 미국 고위 북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북폭 또는 남폭에 핵폭탄이 사용될 것은 알 수 없으나 한반도와 일본 민간의 사망 규모는 천만명 이상으로 모든 나라들이 영구폐허가 되리라 생각할 수 있다. 북폭 또는 남폭에 핵무기를 이용하지 않고 다른 비핵전 무기를 이용해도 결과는 비슷할 것이라 보인다. 지난 주 인민군대 장림기념행사에 북한이 원산 해변에서 보여준 대형 대포 폭격 시험을 보면 북한에서 30 마일 거리에 1천만 이상이 살고 있는 서울이 어떻게 될지를 가늠할 수 있다.

셋째, 미국의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은 무력보다 미국과 북한이 평화로이 북한 핵문제를 협상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공식적 정책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트럼프의 국가안전 고문 맥마스터는 이런 평화적인 협상이 가능하다고 언론인들에

게 말하였다. 또한 급주 UN 안보이사회 북한 핵문제 모임에서 미국 국무장관 팀파슨은 미국과 북한이 직접 만나 협의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능성도 비공식으로 언급했다고 한다.

현재의 북한 핵무기 능력과 미국본토까지 큰 위협이 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도 앞으로 단기간내에 북한이 개발을 끝낼 수 있으리라는 전망으로 지난 주 트럼프는 미상원의원 전체를 백악관에 초청해 과거 수십년 적이었던 북한과의 대화와 평화적 협상의 가능성을 말했다고 한다. 이미 중국과 러시아는 대화와 협상만을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시간이다. 대화가 속히 진행되지 않으면 북한은 북한 인민들의 삶 보다 더 중요한 국가의 최우선으로 삼고 핵/미사일 실험을 계속해 Technology를 발전 완성시킬 것이다. 현재 대북한 재제를 하고 있는 중국이 더 심한 제재를 하더라도 북한은 자체 국가의 존립 여부가 문제이므로 현 상태가 더 극화되리라는 예측이다. 대화가 속히 안 되면 미군, 한국군, 또 북한군 측에 상대측의 통신 및 움직임에 대한 Misdata, Miscalculation 또는 Misjudgement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다시 시작되는 비극이 일어날 수 있다.

필자가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조사해 온 생각은: 1차로 북한과 미국은 1대1로 시작해 1953년의 ‘휴전협약’ 서를 ‘평화조약’으로 바꿀 것을 추진해야 한다. 과거 북한의 핵문제만 협상하던 6자 회담은 북한이 반대할 것이다. 오래전 미국의 요청으로 북한 영변 원자발전소를

미국 출장 때면 그렇게 많이 들었던 ‘Hello’, ‘Excuse me’ 소리가 이전 잘 들리지 않는다. 트럼프 시대는 미국인들의 그런 불만과 확장 편향의 산물이다. 트럼프의 대통령 취임사가 희망의 단어 대신 ‘살육(Carnage), 고갈(Depletion), 황폐(Devastated)’ 같은 선동의 단어로 채워졌던 것도 유언이 아니다.

트럼프는 그 ‘불만의 반쪽’에 베딩했고 당선이라는 전리품을 얻었다. 그러나 곳곳에서 노출되고 있듯 그 반쪽의 정치는 반쪽의 미국, 반쪽의 세계로 연쇄반응하면서 세상을 분열로 몰아가고 있다. 비관언론에 대한 폭주, 이민자의 나라에 채운 빗장, 미국이 구축한 기존 세계질서의 자기 부정, 벼랑 끝으로 몰린 국제적 공생과 가치 등이 그 반쪽 정치의 대가인 셈이다.

진영논리 해방이 반쪽 탈피의 출발
반쪽 탈피, 분열 탈피는 내 편, 네 편 의 진영논리에서 벗어난 자유로움에서 출발해야 한다. 나에게 또는 내 편에 불리할지라도 진실에 대해서는 진지해야 하고 시선은 미래를 향해야 한다. 그 의미를 무겁게 인식하면 반쪽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 의미를 가볍히는 순간 반쪽에 갇히거나 아예 흑기버릴 수 있다. 그계 정치다. 반쪽 정치는 잘 나감 때는 추진력처럼 보이지만 취약할 때는 작은 바람에도 휘청거린다. 뿌리가 절반밖에 깊이 없기 때문이다. 한국 대통령들의 임기 말 비극 역시 따지고 보면 그런 이유 아니었을까? 미국에서 트럼프의 반쪽 정치를 보면서 한국 정치가 오버랩 되는 이유이다.
(총동창회 논설위원, SBS 선임기자)

파괴된 북한정부는 서방국가로부터 아무런 Benefit을 받지 못한 현실에 다시는 ‘평화조약’ 없는 핵문제 해결안은 고려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의 국가 주권과 국가 독립권을 미국이 인정하고 세계의 모든 국가들도 북한이 이미 UN Member 임으로 북한을 재인정하고 외교 및 경제, 교역, 투자 등에 국제적 관계가 정상화되어야 한다. 또한 UN 안보리의 현 제재를 취소해야한다. 북한은 미국과 정상적인 외교 관계를 필요로 한다. 북한의 국제금융기관 참여에 미국은 반대를 지속할 수 없다. 미국은 현 한국과의 국방협력 합의와 미국의 ‘핵 우산’에 한국 포함을 중지해야 한다. 북한, 미국과 남한은 상호 협력을 통해 ‘평화조약’에 따라 남과 북측의 국방 능력(인원 및 무기)을 대규모로 축소해야 한다.

미국측은 북한의 핵, 미사일 실험 등 관련 행동이 다시 있으면 언제라도 북한과의 대화를 중지할 수 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완전 제거되어야 한다. 이 들 제거 및 실험 기록은 ‘평화조약’ 이전에 미국 및 IAEA(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등 국제기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평화조약’ 중 북한은 IAEA에 재가입해야 된다. 미국은 한국과 국방협력 합의서를 중단 취소할 수 없다. 한국의 ‘핵 우산’ 포함은 북한의 핵 무기가 완전히 제거될 때 취소할 수 있다. 한동안 미북 사이에는 경제, 재원 및 교역에 큰 변화가 어려울 것이나 북한의 자원 개발에 관심있는 미국 사업, 투자의 가능성은 있다.

마지막으로 상기와 같이 북한과 미국의 평화조약으로 가는 첫 단계인 북미 간 대화의 이슈가 너무 깊어서 또한 긴 역사적 현황이므로 북미 대화가 있게 되어도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된다. 트럼프는 한반도 문제에 아무런 해결도 못하는 미국의 대통령으로 간주될 것이다. ‘평화조약’이 필요하나 시간이 별로 없으므로 한반도에 전쟁이 다시 일어날지 모르는 지금이 적당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15년 전에 한국정부가 북한과 직접 대화하고 남북한 평화 관계를 추진하려 했지만 미국 부시 대통령의 차가운 반응으로 이룰 수 없었다. 단 한 주일을 남긴 남한의 대통령 선거의 결과에 따라 남한의 새 정부가 이를 추구할 것인지는 미국, 중국, 일본의 커다란 관심사고 한민족 전체 최대의 관심사일 것이다. 트럼프는 부시보다 한반도의 평화에 도움이 될까?
(Potomac Washington D.C.)

공고

제 26차 미주 평의원회의

- 일시: 6월 23일 - 25일
- 문의: 윤상래(978-835-0100) 이상운(508-251-9691) 장수인(978-264-2988)
- Hotel: Hilton Boston/Woburn 2 FORBES ROAD, WOBURN, MA, 01801, USA
- Tel: +1-781-932-0999 / Fax: +1-781-932-0903 www.bostonwoburn.hilton.com
- 예약마감: 5월 23일, 화 (\$119 King Bed / \$129 Double bed/night)
(2017년 5월 23일까지 예약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특별할인 가격이 적용됨)
- Group Nam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EVENT
- Group Code: SE622

만만한 기부

기부? 만만합니다.

매월 만원(\$10)이면 선한 인재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선한 인재 장학금 후원에 동참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7. 4. 30. 약정기준]

선한 인재 장학금(USD)		총 142,110
홍진	(간호대)	100,000
박종수	(수의대)	10,000
신동욱	(수의대)	10,000
고광선	(공대)	5,000
염동해	(농대)	3,600
조무상	(법대)	2,560
손재욱	(가정대)	2,000
임창희	(공대)	1,500
최정웅	(공대)	1,200
김기태	(의대)	1,000
손재욱	(서울대 미주총동창회)	1,000
김명숙	(간호대)	500
로렌스한	(대학원)	500
문순덕	(간호대)	500
오상희	(간호대)	500
윤영자	(간호대)	500
박원준	(공대)	300
박태호	(치대)	300
박혜옥	(간호대)	300
Chang Lee	(공대)	250
권영달(문리대) & 이시한		200
익명		200
이창성	(농대)	100
장순열	(사대)	100



Seoul National University Foundation, Inc.

N.Y. 1430 Broadway, Suite 306, New York, NY 10018 Tel:+1-212-768-9144 Fax:+1-212-768-4494 E-mail:kenneth@klepagroup.com
L.A. 2410 W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Tel:+1-213-435-1974 Fax:+1-213-739-0190 E-mail:america@snu.ac.kr



이렇게 모인 후원금 전액은 선한 인재 장학금으로 쓰입니다.

선한 인재 장학금은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월 생활비를 지급하는 장학금입니다.

매월 생활비 30만원(\$300) X 저소득층 학생* 약 850명에게 지급

*기초 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가계소득 1부위 이하 학생



이렇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www.snu.or.kr에 방문하시어 미주재단 참여신청서를 다운로드하시거나 LA사무소 전화 +1-213-435-1974, 이메일 america@snu.ac.kr 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만만한 기부 Facebook 오픈!

행복한 나눔을 곁에 두는 세상에서 가장 만만한 습관, 만만한 기부와 친구가 되어주세요!
www.facebook.com/giving2snu

한반도 미래전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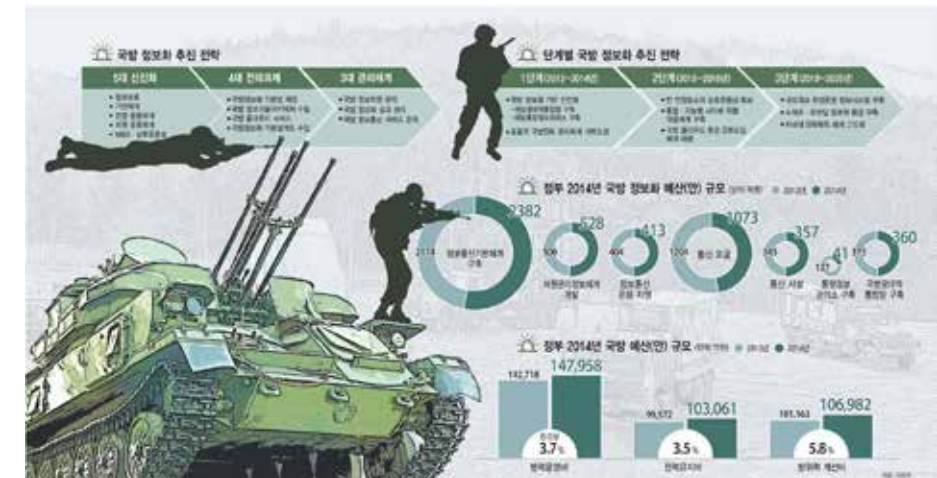
허은명(가정대 86)

20일 발표된 미국중앙정보국(CIA) 월드팩트북(The World Factbook)에 따르면 남북한 국내총생산(GDP)은 48배 차이가 난다. 인구도 남한이 2배 많다.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한국 국방예산은 338억 달러로 북한(75억 달러)보다 4.5배 많다. 전·현직 국방장관 참모총장을 비롯한 군 장성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미국과 함께 싸우면 반드시 이기지만 북한과 1대1로 붙으면 불리하다”는 얘길 솔하게 들었다. 국회에서 이런 말을 해서 물의를 일으킨 지휘관들도 있다. 경제력이나 군사력에서 훨씬 앞선 우리가 북에 휘둘리는 이유는 뭘까.

의지와 전략이 문제다

우선은 의지 문제다. 한국군의 정신 상태에 문제가 많다는 것이다. 전직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 말이다. “우린 4성 장군이 많지만 이스라엘은 중장 1명이 전군을 지휘한다. 우리는 60만 군대지만 이스라엘은 20만으로 석유부국 이슬람 세계와 당당히 맞서 왔다. 우리 군은 너무 오랜 기간 미국에 대한 의존심리가 깊어졌다. 오죽하면 전시작전권 전환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정신을 차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전략 문제도 있다. 군 지휘관들은 북한이 가진 핵을 포함해 생화학무기 탄도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나 기습공격이 가능한 특수부대, 잠수함 등 비대칭 전력 때문에 불리하다고 입을 모은다. 사이버전쟁 능력 강화와 남남분열을 획책하는 심리전도 중요한 비대칭 전술로 위협적이다. 1970년대 이후 남한 경제력이 북을 능가하기 시작하



고 90년대 이후 격차가 계속 벌어지면서 북한은 목숨을 걸고 비대칭 전력을 키워 왔다.

압도적 경제·군사력을 갖고도 김정은에게 끌려다니는 말도 안 되는 현실에 대한 대응책으로 ‘핵에는 핵으로’ 맞불 전략과 ‘역(逆)비대칭 전략’이 논의되는 건, 늦었지만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인젠가 북한 로켓 발사 뉴스를 함께 지켜보다가 한 대기업 회장에 “언제까지 북의 도발을 격정만 하고 있어야 하느냐” 물은 적이 있다. 그의 대답은 의외로 간단했다.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고 정보통신 강국이다. 4대 기업을 중심으로 과학기술기업들이 협력하면 로켓, 인공위성 등 기술면에서 압도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

핵무장이나 원자력협정 개정 등은 미국 동의 없이 불

가능하지만 역비대칭 전략은 우리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바로 한국의 과학기술을 군사력에 적용하는 사물인터넷과 첨단 정보기술(IT) 등으로 핵과 대량살상무기를 무력화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스텔스 기능이 있는 드론으로 공중에서 장사정포를 제압하고 레이저빔이나 북의 전자장비를 무력화하는 고출력 폭탄으로 미사일 통제를 마비시키는 것이다. 무인(無人)스텔스 함정, 로봇군인과 같은 무인 전력, 장기적으로 인공지능(AI)이 지휘하는 ‘스마트 전쟁 사령부’도 만들어야 한다.

스마트국방, 국책사업으로

국방부는 2015년부터 스마트 국방 연구 전담조직을 설치했지만 로드맵만 있을 뿐 성과는 없다. 한국 정보기술을 군사력에 적용해 경제력을 군사력으로, 과학기술력을 스마트전력으로 활용하는 사업을 국책사업화해야 한다.

부서 차원이 아닌 장관 직속 또는 대통령 직속으로 충분한 예산과 최고 수준의 학계 기업 군 국가정보원 인력을 집결시켜 장기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한반도 미래전쟁의 승패는 여기에 달려있다. 압도적 안보 우위만이 전쟁을 막을 수 있다. 전쟁은 피할 수 없다면 반드시 이겨야 한다.

(〈동아일보 논설위원 3.31〉)



김병연(사회 85)

한국이 북한을 앞섰던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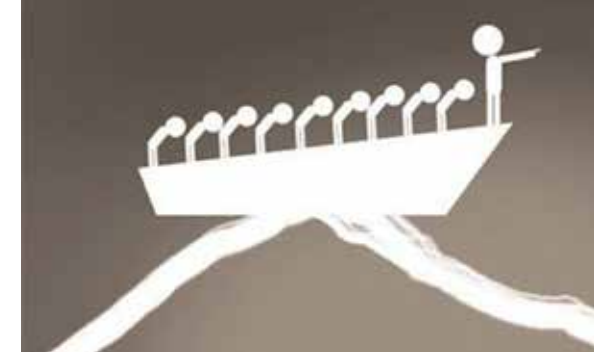
북한 경제와 관련해선 바로잡아야 할 상식 하나는 1인당 국민소득에서 한국이 북한을 앞지른 때가 1974년이라는 것이다. 이는 오류다. 사회주의 통계는 과장된 것이 많다. 김병연·김석진·이근이 거품 통계를 수정해 북한의 성장률을 다시 추정한 결과 한국은 이미 68년에 북한보다 잘살기 시작했다. 이 추정치는 김일성 스스로가 65년에 행한 연설에서 ‘최근 수년 동안 북한의 1인당 소득이 증가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던 사실과도 일맥상통한다.

68년부터 한국과 북한의 운명이 엮이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리더십 차이였다. 한국은 시장경제체제를 채택했다. 그러나 저개발국에서는 시장제도가 잘 작동하기 어렵다. 재산권이 제대로 보호되지 않고, 신뢰 부족으로 거래가 성립되기 어려우며, 정보가 부족해 사업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기 일쑤다. 또 부패가 심한 터라 기업의 불확실성

남북 경제 격차는 리더십의 차이 남한이 수출진흥확대회의 하면 북한은 현지지도에 치중했다 능력주의와 개방적이던 남한이 왜 요즘 북한처럼 퇴보해 충성심만 따지는지 의문이다

에로 상황을 해결하는 일종의 ‘월스트리트’ 정책회의였다. 기업의 고충을 듣고 정부는 정책을 입안했으며 필요한 경우 회의석상에서 대통령이 직접 지시해 문제를 해결했다.

수출진흥확대회의는 한국이 개방성과 효율성을 기초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 수출을 통해 성장을 도모하는 동시에 당시로는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장애 요인을 해결한 것이다. 자본이 부족했던 한국은 수출을 통해 외화를 벌여 재투자하고 양질의 더 많은 제품을 수



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다. 그 가운데 경제는 가파르게 성장했다. 수출 목표를 달성한 기업들에게는 상과 혜택이 주어졌고 이에 기여한 관료는 승진할 수 있었다. 즉 능력주의(meritocracy)가 잘 작동한 것이다.

북한의 김일성은 현지지도를 택했다. 50년대 후반부터 일상화됐던 현지지도는 말 그대로 김일성이 기업이나 기관에 직접 가서 지시하는 방식이었다. 기업 운영 원칙만 아니라 생산 방식 등 시시콜콜한 것까지 모두 포함했다. 현지지도가 관료주의를 타파하고 문제를 실제적으로 풀기 위한 것이라고 했지만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상화였다. 현지지도를 받는 기업에 원자재나 현금을 주고 그 때문에 생산량이 증가한 것을 수령님의 위

대한 지도 덕분이라고 선전하는 식이었다.

북한의 김씨 일가는 현지지도로 매우 바빴다. 김일성은 아틀에 한 번꼴로 했으며 연평균 420개의 기업이나 기관을 방문했다. 김정일도 그랬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일이 김일성을 보좌해 동행한 것을 포함해 2002년까지 현지지도로 다닌 거리가 지구 둘 11바퀴 돈 것과 맞먹는다고 그 노력을 칭송했다. 북한의 공식 성명에 따르면 김정일이 죽은 이유도 현지지도로 인한 과로사다. 김정일은 자기 아버지보다 현지지도를 더 많이 하고 있다. 그러나 한 나라의 최고지도자가 수산물 기업을 방문해 물고기를 더 잡아야 한다고 요구하거나 북한산 눈썹 화장품은 하품만 해도 변해서 눈이 ‘너구리’ 같이 된다며 질책하는 장면은 한 편의 코미디다.

현지지도는 북한이 최고 권력자 한 사람을 위해 움직이는 폐쇄적인 시스템임을 잘 보여준다. 그 시스템은 능력주의가 아니라 충성주의에 기초한 것이다. 또한 이상화를 위한 보여주기 식으로 막대한 자원을 낭비하는 비효율적인 제도다. 현지지도는 경제 성장과 무관하다. 통계 분석 결과에서도 현지지도를 많이 간 산업과 그 산업의 성장 사이에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었다. 이런 나라가 발전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한국의 거버넌스가 북한처럼 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능력보다 자신의 뜻만 따르는, 배신하지 않을 사람을 임용해 폐쇄적으로 국정을 운영했다. 그 결과 자신의 아버지보다 세운 능력주의를 스스로 파괴했다. 이전 정부에서도 코드 인사, 충성도 위주의 인선에 대한 비판이 많았다. 언제 부턴가 대통령은 최고의 전문가보다 최고로 충성하는 심복을 찾는 데 열중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은 능력주의와 개방성, 효율성 면에서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

새 정부는 얼마나 나아질 수 있을까. 대통령 후보의 캠프 내에서 충성 경쟁이 불고 새 정부가 시작한 이후에도 충성도 위주로 인선을 한다면 한국은 마지막 결정타를 맞을 셈이다. 그 충성주의의 피해를 고스란히 볼 국민들이 대통령 후보 진영의 캠프가 어떻게 움직이든지, 다음 대통령은 어떻게 인선하는지 눈을 크게 뜨고 지켜봐야 한다.
모교 경제학부 교수 [출처: 중앙일보]

오피니언 리더 1000여 명, 봄날 손을 맞잡다

모교총동창회 정기총회 겸 제19회 관악대상 시상식



“손에 손 잡고, 벽을 넘어서...”
 지난 3월 17일 본회 정기총회가 열린 소공동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 축하공연 시간에 화합의 메시지를 담은 ‘손에 손 잡고’ 노랫말이 울려 퍼지자 서울대 동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손을 맞잡았다.

이날 총회는 ‘화합’을 테마로 각계 각종의 동문 1,000여 명이 한데 어우러진 자리였다. 혼란스러운 시국이었지만 서울대인은 서로를 격려하면서 다가온 봄처럼 희망찬 미래에 대한 의지를 잃지 않았다.

이날 행사는 참석자 동문들의 마음 속 추억과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시작했다. 행사장 입구 포토존에서 진행된 가상 체험 행사 ‘Back to the 20, 스무살로 돌아가보자’는 크로마키 기법을 통해 관악캠퍼스 교정과 서울의 옛 거리를 배경으로 즉석 기념사진을 만들어주며 학창시절의 추억을 떠올리게 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성세정(정치86-91) KBS 아나운서와 안현모(언어02-07) 전 SBS 기자 또한 학창 시절 추억담을 곁들인 오프닝 멘트로 행사를 열었다.

서정화 회장은 개회 인사말을 통해 동문들을 환영하면서 “총동창회장으로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지도 벌써 1년이 지나, 모두 합쳐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많은 바

여러 과업들을 큰 실수 없이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동문 여러분들의 성원과 임원단 여러분의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공을 돌렸다.

또 “서울대인들은 오늘날까지 사회의 중추에서 국가를 선도하며 함께 발전해왔고 국가적 위기를 맞은 이 때에도 서울대가 감당해야 할 사명 또한 다르지 않다”며 “국민을 통합해 낼 수 있는 사상과 강령을 창출하고, 경제 성장을 도모할 기술과 전략을 개발해 국가가 직면한 난국을 돌파할 수 있는 지도적 지성인을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낙인 모교 총장 또한 박찬욱 교육부총장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서울대가 세계사적 변화의 어려움을 풀고 대학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모든 구성원들은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모든 구성원들이 지식공동체의 의무감과 책임의식을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진행된 정기총회에는 총 2개의 안건이 상정돼 모두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1호 안건인 2016년도 결산 승인안은 배포된 회의 자료와 영상을 통해 내부 감사와 외부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및 결산요약표를 재무상대표 등과 함께 제시했다. 발안권을 얻은 동문의 동의와 재정을 통해



참석자들의 박수로 안건을 의결했다. 2호 안건으로 상정된 회칙 개정안은 △총동창회 회장 선임을 위한 회장추대위원회 근거 마련 △임원 임기와 관련해 회장에 한해 2년 단임제 채택 △서울대 재학생과 졸업생 부모를 명예회원에 준해 예우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안이었다.

회장 임기의 건은 임광수 명예회장이 장학발당을 건립했고 서정화 회장이 동창회 시스템을 확립했기 때문에 이제는 더 많은 훌륭한 동문들에게 동창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야 한다는 여러 동문들의 건의를 수용해 발의된 것이다.

또한 재학생과 졸업생 부모의 명예회원 예우는 외국의 명문대 동창회의 사례를 도입한 것으로서, 서울대 학생 자녀들 둔 부모의 자긍심을 존중하고 자녀의 모교 사랑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러한 개정안의 의의에 공감한 동문들이 동의와 재정에 이어 찬성의 뜻을 전원 박수로 표시하면서 2호 안건 또한 통과됐다.

1부 총회에 이어 2부에서는 제19회 관악대상 시상식이 진행됐다. 올해 관악대상은 안병훈(행정57-61) 재단법인 통일과 나눔 이사장, 성기학(무역66-70) 영원무

역 대표, 노명호(국사71-75) 국사학과 명예교수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모교와 동창회에 헌신하고 명예를 드높임은 물론 사회와 국가 발전을 위해 공헌하는 삶을 살았던 이들 수상자들에게 축하와 존경을 담은 뜨거운 박수가 쏟아졌다. 본회는 관악대상 수상자에게 상패와 부상으로 순금 30만 상당의 ‘VERITAS LUX MEA’ 황금 메달을 수여했다.

본행사 후 동문들은 만찬을 함께하며 친목을 나눴다. 임광수 명예회장은 건배사를 통해 “서울대학교 120년사 편찬사업이 마무리돼 출판된 것을 보니 감회가 무량하다”며 “120년사는 그동안 방치돼 왔던 통할 개교 이전의 역사를 서울대학교의 역사로 확립시키기 위한 첫 시도였다”고 의의를 설명했다. 이태진 편찬위원장을 비롯한 집필진들을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 감사의 뜻을 전하자 동문들은 큰 박수로 그동안의 노고에 화답했다.

시종일관 화기에 애했던 분위기는 축하 공연에서 뜨겁게 달아올랐다. 소리꾼 윤기순 씨의 국악 공연에 이어 ‘야단법석’ 팀은 대북 퍼포먼스의 웅장하고 역동적인 울림으로 장내를 달구며 동문들의 건강과 성취를 기원했다.

총동창회 웹사이트: <http://www.snuu.or.kr>

모교 총동창회 제1학기 장학금 수여식

613명 장학생에게 전한 ‘온기’ 17억6,000만원

새터민 장학생 남매 “자랑스러운 인재 되어 사회에 보답”

“인천공항에 처음 도착한 것은 2012년 3월 23일이었습니다. 것처럼 동경하던 자유의 땅, 대한민국에 첫 발을 딛던 감격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이수연(가명·의학14임) 양은 늘 마음속에 그날을 되새긴다. 어머니, 남동생과 함께 탈북에 성공해 남한에 처음 왔던 날이다. 그로부터 5년이 흐른 지금 이 양은 서울대 의대에서, 남동생 이준영(가명) 군은 서울대 공대 기계항공공학부에서 나란히 공부하고 있다. 이 양 남매는 서울대에 합격해 다니는 최초의 새터민 남매이자, 입학 첫 학기부터 지금까지 본회 장학생으로 선정되어 온 인재들이기도 하다.

서울대 입학 후 이 양 남매의 든든한 후원자는 총동창회다. 모교에서 등록금을 지원받는 이 양 남매에게 본회는 별도의 학업 장려금을 지원한다. 어려운 환경을 딛고 대학 문턱을 넘은 학생들이 학업과 생활을 병행하는 난관을 겪지 않고 오로지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것이다.

이 양은 “후배들을 위해 소중한 장학금을 지원해 주신 선배님들의 송고한 뜻에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총동창회 장학금을 받으면서 서울대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낀다. 자랑스러운 동문 선배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사회에 꼭 필요한 인재가 되어야겠다는 책임감을 갖게 된다”고 감사를 전했다. 또 “앞으로 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항상 서울대 동문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후배들을 위한 장학금 지원사업에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북한 신의주에서 태어난 이 양 남매는 공학 교수였던 아버지와 의사인 어머니 아래 유복하게 자랐다. 어머니의 의학 서적과 옷자락에서 은은하게 풍기는 소독약 냄새가 익숙했던 누나 이 양은 생명을 구하는 외과의사가 되고 싶었고, 동생 이 군은 공학자인 아버지의 지인들과 전공 서적을 접하며 공학도의 꿈을 키웠다. 가족이 탈북을 결심하게 된 것은 북한 사회가 엘리트 계층마저 생계 유지에 곤란을 겪는 수준으로 접어들면서였다. “사람답게 살아보자”며 탈북을 감행한 지 두 번째 만에 성공해 대한민국 땅을 밟았다.

이 양 남매는 이 양 남매를 비롯해 613명의 장학생에게 총 17억 6,000만원을 지원했다. 일반장학생과 특기자장학생, 결연장학생(151명) 등에게 한 학기 등록금과 학업 장려금을 지급했다.

본회에 특히 및 결연 장학금을 출연한 동문들이 장학금 후배들에게 직접 장학증서를 수여하고 격려하기 위해 지난 2월 21일 열린 1학기 장학금 수여식에 참석했다. 이날 서정화 회장은 “선배들의 성원과 지원이 세상을 향한 후배들의 발걸음을 아래 긴요한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2월 21일 모교 관악캠퍼스 문화관



모교총동창회는 지난 2월 21일 모교 관악캠퍼스 문화관 중강당에서 1학기 장학금 수여식을 열고 장학생 613명에게 17억6,000만원을 지원했다. 수여식 후 장학금을 지원한 동문들과 장학생들이 기념 촬영을 했다.

지 공부만” 했다. 이 군은 매일 학교가 끝나면 곧장 동네 독서실로 향해 독서실 사장이 수능 전까지 무료로 내준 자리에서 새벽까지 공부했다. 학교에서도 수줍음을 타기보다 항상 손을 들어 발표하고 끈질기게 질문해 궁금증을 풀고야 마는 학생이었다.

결국 2014년과 2015년 남매는 연이어 서울대에 합격하는 쾌거를 이뤘다. 기쁨과 함께 두 사람은 첫 탈북 시도 중에 유명을 달리한 아버지를 떠올리며 눈물을 쏟았다. 이 양 남매는 이제 모교에서 부모님의 뒤를 잇는 의학과도 공학도로 성장해가고 있다.

결연장학생 151명 포함, 외국인, 시각장애인 등 지원

이번 1학기 본회는 이 양 남매를 비롯해 시각장애인,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포함한 613명의 장학생에게 총 17억 6,000만원을 지원했다. 일반장학생과 특기자장학생, 결연장학생(151명) 등에게 한 학기 등록금과 학업 장려금을 지급했다.

본회에 특히 및 결연 장학금을 출연한 동문들이 장학금 후배들에게 직접 장학증서를 수여하고 격려하기 위해 지난 2월 21일 열린 1학기 장학금 수여식에 참석했다. 이날 서정화 회장은 “선배들의 성원과 지원이 세상을 향한 후배들의 발걸음을 아래 긴요한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2월 21일 모교 관악캠퍼스 문화관

중강당에서 열린 수여식에는 서정화 회장과 성낙인 총장을 비롯해 특기자장학생과 결연장학생을 출연한 동문들, 장학금과 학부모 등이 참석했다. 수여식장에서 만난 학생들은 새 학기를 앞두고 큰 걱정을 덜어 기쁘고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해 왔다.

성낙인 총장이 장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성 총장은 “오늘 선배님들이 배워주시는 온기를 통해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받았던 고마운 사랑과 은혜를 20년, 30년 후 후배들에게 베풀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름을 요청한 한 장학생은 “차상위 계층으로 등록금이 지원받고 있어 매월 30만원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동창회 장학금의 문을 두드렸다”고 말했다. “2개씩 했던 아르바이트를 하나로 줄이고 더 많이 공부할 수 있게 됐다”며 기쁨을 감추지 않은 그는 “졸업 후 자리 잡으면 꼭 후배들에게 되돌려 주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학기에 처음으로 장학금을 받는다는 김유경(수의학13입) 양은 “생각보다 수여식 규모가 커서 놀랐다”고도 했다.

이날 서정화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세계 유수의 명문 대학들은 선배들이 자신의 성취를 나눠 모교와 후배들을 지원하고, 사회에 진출한 후배들이 동문의 일원으로 합류해 다시 그 후배들을 지원하는 ‘지성의 선순환’을 만들어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러 선배들의 성원과 지원이 세상을 향한 후배들의 발걸음을 아래 놓인 긴요한 디딤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여러분의 성취가 다시 후배들을 향한 따뜻한 응원으로 비춰지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에 화답하듯 장학생들은 “총동창회 장학금이 후배들의 꿈을 이루는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졸업 이후 장학사업 대열에 동참하겠다”는 내용의 ‘장학금 선순환 서약’을 했다. (박수진 기자)

하는 짧은 시간에도 학생들에게 애정 어린 격려를 건넸다.

이날 임광수 명예회장, 조필재 고문, 박영필·김찬숙·홍성대·강인구·정팔도 부회장, 재단법인 관악회 김병순 이사를 비롯해 명태현 전 송원기업 대표, 김종기 양지학원 이사장, 성백전 한국해외기술공사 대표, 이상범 변호사, 권영대 덕홍상사 회장, 정윤환 일성화학 대표, 박호진 삼덕 회장, 임국환 보건대학원동창회장, 정종시 세진에이엠 대표, 박국양 가천대 의학전문대학원장, 박희명 남성정밀 회장, 정팔도·이자형 특기자장학회 이사행 여사, 고문단 양현정학회 상임이사, 유재학 대덕전문자 감사, 지중팀 엠코테크놀로지 상무, 박남식 유촌문화사상연구회 회장, 김종현 특기자장학회 출연자 가족 등이 참석한 장학금 수여였다.

이날 서정화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세계 유수의 명문 대학들은 선배들이 자신의 성취를 나눠 모교와 후배들을 지원하고, 사회에 진출한 후배들이 동문의 일원으로 합류해 다시 그 후배들을 지원하는 ‘지성의 선순환’을 만들어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러 선배들의 성원과 지원이 세상을 향한 후배들의 발걸음을 아래 놓인 긴요한 디딤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여러분의 성취가 다시 후배들을 향한 따뜻한 응원으로 비춰지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에 화답하듯 장학생들은 “총동창회 장학금이 후배들의 꿈을 이루는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졸업 이후 장학사업 대열에 동참하겠다”는 내용의 ‘장학금 선순환 서약’을 했다. (박수진 기자)

게시판

동창회/동문들의 행사/소식을 알립니다. 소식을 알리고 싶으신 분이거나 지부는 news@snuu.org로 이메일 주십시오.

1. 필라델피아 동문들이 만들어 내는 ‘새봄 자선 음악회’
 일시: 5월 6일 오후 7:30 Open to Public
 장소: Montgomery County Community College Auditorium

2. 필라델피아 김금자 (간호대61) PAC(Philadelphia Arts Connection) 제 10회 그룹전시회
 5/24 - 8/25 Henry Gallery (Penn State Great Valley Conference Center Bldg)
 Opening Reception: 5/24 수요일 5:30- 7:00 pm
 문의: 215-370-6651

3. 조(신)경희 (가정대 72) 제 4회 개인전
 5/20-23, Gruen Gallery in Chicago Opening Reception 5/20 6 PM
 문의: 312-841-2983

4. 워싱턴 DC 동창회 야유회
 회비: 없음
 일시: 5/14/2017 Sunday 12:00 pm - 5:00 pm
 장소: Carderock Recreation Area Pavilion, MD
 문의: 회장 안선미 (347-776-0304), 부회장 정세근 (703-785-8467)

5. 뉴욕 2017 장학기금 모금 춘계 골프대회
 5/20 1pm EmersonGolf Club 201-261-1100
 참가비: 1인 \$120, 부부: \$220
 문의: 김도명 회장: 917-207-5949, 김기택 사무총장: 201-543-1077

생활 속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원고 모집합니다**

소중한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특집 주제: **아, 청춘!**

6월호가 필라델피아에서 발행하는 마지막 호입니다. 지난 2년간 회보를 읽고 보면 서 기억에 남는 글이나, 사진, 특집 주제, 등 여러분의 소감 한마디를 보내주시고요. 더 볼여 개선해야 할 점도 보내주시고요. 6월호에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 동안의 주제

였던 ‘아, 청춘’, ‘오늘의 나를 있게 한 한마디의 말, 한줄의 글, 한권의 책’과 2월의 주제인 ‘미국에 와서 배운 교훈’도 계속 모집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과 대한 후 새로 시작하는 한국의 바람직한 미래를 제시하는 500 단어 정도의 논설글도 보내주시고요.

모든 원고와 사진은 news@snuu.org 로 보내주시고 동창회에 대한 질문이나, 주 소정정, 회비/후원금 등의 사무적인 일은 general@snuu.org 로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편집위원회)



김영덕 동문, 뉴욕주 아시아태평양 문화유산에 선정

뉴욕주 정부가 5월 '아시아태평양 문화유산의 달'을 맞아 각 분야에서 명성을 쌓아온 5명을 선정해 그들의 업적을 알리는 전시회를 시작했다.

명인 인물로 선정됐다. 장소는 열바니 주 정부 청사 2층 '워룸(War Room)'이며 기간은 이달 말까지다. 전시회는 '뉴욕의 아시아인 아메리칸 : 함께 말하는 연합된 우리의 목소리'를 주제로, 아시아계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을 해소하고, 이민 선구자 역할을 담당한 인물들을 통해 아시아계 사회를 재조명한다는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김영덕 동문은 1970년 캐나다 Western Ontario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 1974년 미국으로 이민과 MRWJ Consulting Co.에서 사우디 아랍코 국유회사 기술자문으로 파견 근무 중 현대 그룹 정주영 회장에게 발탁되어, 1997년까지 10년동안 현대종합상사 미주현지법인 사장을 역임했다.

이후, 코리아인 아메리칸 시민활동연대 KALKA, KOCHAM, 퀴즈칼리지 재외한인연구소, 아시아인 아메리칸연맹, 미주 한국어재단 등 한인사회와 아시아인 사회 권익신장에 앞장서 온 김 동문은 "앞으로 한국어보급활동, 재외한인 연구지원, 한인 사회 정치력신장 등에 힘을 보태겠다"고 선정 소감과 앞으로 계획을 밝혔다.



워싱턴주 시애틀 시니어포럼 4월 세미나 이상순 박사 "PTSD환자 상당수 유전자 변이"



수학자이나 통계학자인 이상순 박사가 지난 15일 시애틀 서울대 시니어클럽(회장 김재훈(공대 72)) SNU포럼에서 강연한 생물정보학(BioInformatics)은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기 쉽지 않았다.

이 아니라 특정 부분에서 잠전 전과 이후에 유전자 발현이 크게 차이가 난다고 우 박사는 설명했다.

우 박사는 "PTSD 환자에게 유전자 변화가 일어나더라도 자녀 등 다음 세대에 유전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워싱턴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뒤 세계적 암연구기관인 프레드 허친슨 연구소에서 박사후 과정을 마치고 현재 'Axio 리서치'의 연구원인 우 박사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자료(DATA)를 어떤 방식으로 분석할지를 결정해주는 일"이라고 소개했다.

흥미로운 사실은 전쟁이나 대형 사고 등을 경험한 이후 발생하는 PTSD 환자의 20% 정도가 유전학적 변화가 나타난다는 점이다. 유전자가 완전 변이하는 것

미국 식품의약품(FDA) 등이 신약 등과 관련해 데이터분석을 Axio 리서치 같은 연구소 등에 의뢰해 올 경우 우 박사가 분석 방법에 대한 판단을 한다.

송호근 교수 역사소설 '강화도' 내며 소설가로 변신



최근 우리 현실이 구한말의 상황과 다르지 않다는 자각에서다. 송 교수는 "지난 가을부터 지금까지 겪은 일을 논문으로 써서 사람들 가슴에 파고 들기는 힘들다"며 "(소설은)타인의 가슴에 파고 들기에 좋은 창구"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지난해 12월 9일부터 소설 집필을 시작, 하루에 10시간 이상 써서 2월 20일쯤 탈고했다.

소설 속 신현은 봉건과 근대 사이에 선 경계인으로 그려진다. 유학을 배우며 자랐지만 개화파와도 폭넓게 교류했고 조선에서 고난을 겪는 서양인 신부들을 보면서 유교적 가치관에 혼란을 느낀다.

송 교수는 신현을 "날아오는 창을 붙잡고서 자신이 쓰러지며 창이 조신인 깊은 심장에 박히지 않도록 만든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그의 고뇌를 "오늘날 한국이 처한 국제적 현실의 출발점"이라고 지적한 송 교수는 "(열강에 둘러싸인 지형은) 지금도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반도 사드 배치 갈등을 예로 들며 "중국과의 역사동맹, 미국과의 군사 동맹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위치를 유지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선 후보 중 사드에 애매모호한 입장을 가진 이는 지도자로서 결격사유다"며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을 결정하고 일어난 후폭풍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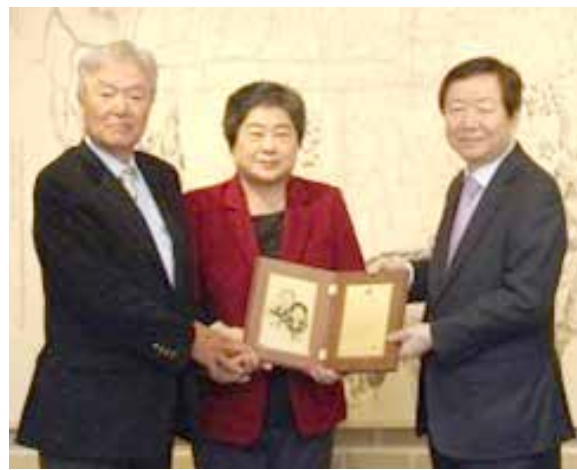
5일 서울 인사동에서 열린 출간 기자간담회에서 송 교수는 "대학시절 문학평론가 김윤식 선생께서 '자네 문학을 하겠는가?'라고 물으셨다. 이 소설은 그 물음에 대한 화답"이라고 말했다. "대학에 들어가서 작가가 되고 싶었는데, (시인)이성복, 황지우 같은 동문들이 이미 진을 치고 있었죠. 사회비평으로 돌아서서 대학문학상에 투고한 게 '문학적 상상력과 사회학적 구조'(1978)였습니다."



성공한 사회학자로 자리매김했지만, 6년 전 한 일간지 칼럼에 "위대한 작가가 아니더라도 훌륭한 삶의 갈피를 잡아주는 작가들, 사회적 문화작용에 닿는 실존의 허망한 소멸과 싸우는 관참은 작가들과 이 시대를 동행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다"고 썼을 만큼 문학에 미련이 남아있었다. 가수 조용필 19집에 실린 '어느 날 귀로에서' 가사를 짓기도 했다. 마음에 품었던 꿈을 풀어진 계기는



이내건·이홍자 동문 부부, 장학금 3억원 쾌척



이에 서울대는 3월 17일(금), 50년 만에 모교에 방문한 동문 부부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1970년 홍콩으로 이민 후 반세기를 지나 모교에 방문한 이내건 동문은 "오랜만에 학교에 방문하니 감회가 새롭다"며 "후배들이 밝은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갖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 도전하길 바란다"고 소회를 전했다. 또한 "쉽지 않은 타국에서의 생활이었지만 그간에 이룩한 것으로 모교인 서울대를 지원하는 것은 매우 보람된 일이라는 확신이 들었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대한민국의 발전과 모교의 성장을 지원하고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성낙인 총장은 "대학의 발전과 후학 양성을 위한 동문부부의 고귀한 뜻이 담긴 이 기금은 학생들이 정의와 헌신, 배려의 미덕을 실천하는 선(善)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소중하게 활용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밝혔다.

이내건 동문은 서울대 졸업 후 근무했던 천우사를 사지

하고 1970년 홍콩으로 건너가 한국과 홍콩, 남중국 지역을 대상으로 흥아해운 총대리점인 공형에이전시와 동우해운 등 다수의 해운업 관련 기업을 설립하고 운영해왔다. 홍콩에서 거주하며 홍콩한인상공회 회장, KIS(홍콩한국국제학교)발전기금회 명예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 2009년 KIS발전기금으로 약 8,000만원, 홍콩한인상공회 건립기금 3,000만원을 기부하는 등 꾸준한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며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이내건·이홍자 동문 부부는 슬하에 1남 1녀를 두었으며, 아들인 이준우씨는 이사로서 공형에이전시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으며, 딸인 재니스 리(한국명 이윤경)씨는 하버드 대학 졸업 후 소설 '피아노 티처'로 단숨에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은 베스트셀러 작가로 유명하다.

한편 서울대는 기부자의 뜻에 따라 서울대 재학생 중 부산고등학교 출신 학생 또는 부산 지역 고등학교 출신 학생과 서울사대부고 출신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서울대학교 홍보팀)



나눔으로 얻는 지혜

나눔의 사전적 의미는 '하나를 둘 이상으로 가르다'이다. 나아가면 내 것을 갈

출발한다. 위험이나 건강과 같은 내용이 자료나 정보의 차원에서 제시되기도 하지만, 지식이나 지혜의 차원에서 언급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다른가? 인간이 세상을 인식 하는 과정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라내어 다른 사람과 함께 한다는 뜻이다. '나눔'의 의미를 자료, 정보, 지식, 지혜를 통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어떠한 내용을 자료, 정보, 지식, 지혜의 관점으로 볼 때 이들은 서로 다른 차원을 가리키는 것 같지만 실은 같은 지점에서

사람의 인식이란 관찰을 통해 세상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는 과정이 아니다. 주어진 환경에서 직접적인 행동을 통해 특정 시점과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경험의 내용을, 개체별로 재구성하는 것이다. 여기서 인식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자료'는

시점과 공간이다.

즉 자신의 시공간으로 외부 환경을 끌어들이므로써 경험하는 주관적 느낌을 바탕으로 세상을 인식한다. 새롭게 외부 환경을 끌어들이지 않으면, 주관적 느낌은 사라지고 인식은 정체한다. 결국 자료는 있지만 새로운 '정보'는 없다.

인식한 내용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서는 단순히 말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을 함께 경험하고 소통해야 한다. 인간은 다른 사람과의 교감을 통해 자신의 세상(인식)을 항상 확인받고 싶어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다. 함께 경험하고 나누어야 '지식'이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내가 경험한 것이 자료가 되고, 느낀 것이 정보가 되며, 나는 것이 지식이 된다면, 이 모든 것을 타인의 관점에서 할 때 '지혜'가 생긴다.

세포가 자기복제와 에너지대사를 통해 '나눔'으로 생명을 유지하듯, 남성과 여성이 만나 서로의 몸을 나누고, 부모의 시간이 자신의 생존을 위해 나누어질 때 사회가 이어질 수 있다. 생명과 사람. 모두는 서로 나누지 않고서 존재할 수 없다. 세포막 혹은 피부라는 주머니에 담겨 있는 생명은 서로 부딪히고, 경험하고, 교감하며 세상을 파악한다. 그중 같이 경험한 것, 그리고 나 아닌 너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정리한 것이 결국 지혜로 남을 것이다.

백도명(의대 75) 보건대학원 교수



남가주 법대 동창회 야유회

지난 4월 8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남가주동창회(회장 정인환)에서는 LA에서 서북쪽 80마일 지점인 Lancaster에 위치한 Antelope Valley California Poppy Reserve에서 야유회가 있었다.

지색 꽃은 일대 장관을 이룬다.

오전엔 바람이 불고 구름이 끼어서 다소 추운 듯 했지만, 오후에는 햇빛이 반짝 들고 꽃이 만개하여, 동문들은 흐드러진 꽃밭에서 봄을 만끽하였다.

남가주의 사막에는 봄철마다 야생화가 만발하는 주립공원들 중에 오렌지색 앙귀미꽃이 가장 유명하다. 이 꽃은 캘리포니아주의 주화로 1천 630에이커에 달하는 지역이 엔틸롭 밸리 캘리포니아 파피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주정부의 보호를 받고 있는데, 이 넓은 지역의 언덕과 들판을 뒤덮은 오렌

이어 근처 Joseph Choi 농장에서 식사를 하며 답사하였다. 정인환(법대 54) 회장은 인사말에서, "바쁘신 가운데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처럼 야외에서 모였습니다. 모두들 활기찬 모습에 무척 흐뭇했습니다. 법대 Poppy 꽃 구경은 이번이 3번



째로 기억됩니다. 화창한 날씨에 넓은 벌판에 활짝 핀 꽃들을 보며 자연의 아름다움이 마음으로 전해집니다. 항상 기쁜 마음을 간직하시기 바라면서, "우리의 조국의 내일은?" 하고 생각해 봅니다.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법대 동창회는 2달에 한 번씩 모임을 가지며, 친목을 도모하고 있다.

이러 민경훈(법대 78, 본보 논설위원) 동문의 "기독교 이전의 종교"에 대한 강연이 있었고, 농장 주인인 한의사 Joseph Choi 씨의 "건강"에 관한 강연이 있었다.

이번 참석한 동문과 가족들은 다음과 같다.

정인환 법대 회장, 권혁창(법대 57) 전 총동창회장 부부, 최진석(법대 64) 법대 총무 부부, 조무상(법대 석의부장, 법대 70), 최수일(법대 55) 부부, 오문성(법대 56) 부부, 이창신(법대 57) 부부, 강경수(법대 58) 부부, 배학철(법대 59) 부부, 안재엽(법대 84) 부부, 이태로(법대 56), 민경훈, 김영자(김장규 부인, 법대54), 윤인자(윤경민 부인, 법대 55) 등의 법대 동문과 가족들이 참석하였고, 그의 한효동(공대58) 공대 회장 부부, 홍선례(음대 70) 문화위원장, Joseph Choi씨 등이다. 30여명의 동문과 가족들은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우애를 다졌다.

글: 홍선례(음대70) 편집위원

뉴잉글랜드 동창회

제 1회 'S 포럼' 개최

김대식 박사의 'A Plan to Modernize House Painting'

서울대 뉴잉글랜드 동창회(회장 정태영, 문리 71)가 지난 4월 15일(토) 보스턴 인근 엑슬리 도서관에서 제 1회 'S 포럼'을 개최하였다.

봄의 문턱에서 모처럼 화창한 날씨에 개최된 이날 포럼에는 많은 동문들이 참석하여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이날 포럼은 앞서 동창회 임시총회가 개

최되어 다소 시간이 제한되어 한 명의 동문만이 발표를 하였다. 김대식(공대 52, 기계공학 박사) 동문이 'A Plan to Modernize House Painting' 이란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김대식 박사는 자신이 발명한 도구를 보여주며 유용성 및 자세한 사용법 등을 소개했다. 발표 중간 중간에 관심있는 동문들의 질의가 이어지기도 했다.

김대식 박사는 현재 발명 관련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김박사의 발명품에 관심이 있는 동문은 이메일 thekimatlab@outlook.com로 연락하면 된다.

발표가 끝난 후 동문들은 피자를 들며 환담과 친목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모임에는 MIT에 교수로 재직중인 한중윤(자연대 88) 동문 유숙희(사대 90) 동문 부부가 처음으로 동창회에 참

석해 참석자들의 따뜻한 환영을 받았다.

이번 포럼 개최의 목적은 1년에 두 차례 개최되는 정기 모임 중간 소규모 모임 성격으로 동문들간의 소통과 친목, 친밀함을 증대하기 위한 것이다. 편안하고 부담없는 이러한 모임을 통해 동문들의 경험, 경륜, 전문적 지식, 뉴 트렌드 등에 대한 견해를 듣고 공유하며 담론하는 것이다.



이공계 여성 네트워크 만든 이진주 걸스 로봇 대표

“과학 · 공학하는 여성들의 생태계 만듭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두고 '로봇 하는 여자'들의 네트워크를 표방하는 사회적 기업이 눈길을 끈다. 2015년 설립한 '걸스로봇'이다. '로봇'은 사실 이공계 전반을 뜻한다. 걸스로봇은 남성 위주의 이공계에서 소수자로 머물러 있는 여성들의 진출과 생존을 돕는 캠페인을 벌여왔다.

이진주(국어교육 97) 걸스로봇 대표는 로봇 마니아다. '문과' 출신이지만 과학고에 가려다 주위의 편견에 좌절하고, 공대에 진학해 배운 경험도 있다. 고등학교 과학반에서 결고 틀던 남자 동기가 만든 로봇 '휴보'는 갖추부가 된 그에게 일종의 각성을 안겨줬다. 로봇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자신 같은 '여성'들의 문제가 보였다. 지난 2월 24일 강남의 한 스타트업 카페에서 만난 그는

자신을 '비저너리(Visionary 선견자)'로 소개했다.

“제가 당장 기계공학과 코딩을 배워 로봇을 만들 수는 없는 일이에요. 대신 여성 공학자들의 삶을 지지하고 훌륭한 멘토를 발굴해 세상에 알리는 일, 교육자, 기업가, 행정가, 부모들을 설득해서 더 많은 여성들이 이공계 분야에 진출해 잘 살 수 있도록 생태계를 만드는 일에는 강한 소명의식을 느낍니다.”

생태계를 만드는 걸스로봇의 활동은 이공계 여성들을 종과 횡으로 엮는다. 로봇 외에 다양한 과학과 공학 분야 연구자들을 한데 모으고 고등학생 소녀부터 박사급 공대 등 지역거점 이공계 대학의 여학생들과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꾸리기도 했다. (총동창신문)



다. 걸스로봇을 통해 처음 한 자리에 모인 이들은 그동안 어디서도 못했던 '버터왔고, 버티고 있는 이야기'를 나눴다. 국내외 대표 로봇 연구자들의 강연을 추천하고 로봇학회에서 여성 세션을 열었다. 카이스트와 포항공대 등 지역거점 이공계 대학의 여학생들과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꾸리기도 했다. (총동창신문)



남가주 김유은, 장성 베토벤 소나타 전곡 연주

1A의 젊은 실력과 클래식 연주자들이 베토벤의 소나타 전곡을 연주하는, 쉽게 접할 수 없는 리사이틀을 가졌다.

주인공은 바이올리니스트 김유은(음대 07)동문과 피아니스트 장성(30)씨로, 두 사람은 3월22일과 4월9일 및 15일 3차례에 걸쳐 USC에서 연쇄 리사이틀을 열어 베토벤 소나타 전곡을 들려주었다.

장성, 김유은 두 사람은 이번 리사이틀에 대해 “베토벤의 초기에서부터 후기까지 한 자리에서 모두 접할 수 있는 연주”라며 “고난과 역경을 딛고 일어나 희망과 승

리를 꿈꾸는 인간 베토벤에 대한 두 젊은 음악가들의 탐구 과정”이라고 소개했다.

바이올리니스트 김유은 동문은 모교 음대를 졸업한 뒤 USC에서 세계적 바이올리니스트 미도리의 제자로 아티스트 디플로마 과정을 밟고 있다. 2012년 부에노스아이레스 바이올린 콩쿠르, 2014년 중국 인터내셔널 바이올린 콩쿠르, 2015년 마이클 힐 인터내셔널 콩쿠르 등에서 세미파이널리스트로 훌륭한 성적을 냈으며, 옐로 반 뮤직 페스티벌에 초청됐고, 자프레 퀴렛을 창단해 뉴욕과 보스턴 등지에서 활발한 연주 활동을 펼치고 있다.

피아니스트 장성씨는 16세 때 한국예술중

합학교에 영재로 입학한 뒤 독일 하노버 국립음대 연주자과정 및 최고 연주자 과정을 졸업했으며 일본 나고야 국제 콩쿠르, 이탈리아 발레시아 국제 콩쿠르, 하노버 쇼팽 국제 콩쿠르, 뉘른베르크 국제 콩쿠르, 체코 슈베르트 국제 피아노 듀오 콩쿠르 등 세계 유수의 국제 콩쿠르에서 10여 차례 우승한 화려한 경력을 갖고 있다. 글: 홍선례(음대 70) 편집위원



미주동창회 차차기 회장 후보

동창회에 따뜻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김창수 후보 3대 공약

1. 동창회 발전기획위원회와 여러 분과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2. 지부마다 관악연대를 결정해서 젊은 세대의 참여를 권장하겠습니다.
3. 본부와 상설사무국을 대도시 한 곳에 설치, 운영토록 준비하겠습니다.



동창회 임원 경력	학력 ·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주총동창회 감사 · 평의원(2007 ~ 2009) 미주총동창회 평의원(2012 ~ 현재) 미주총동창회 회보 편집위원(2007 ~ 2009) 미주총동창회 회보 논설위원(2009 ~ 현재) 뉴욕지부 동창회 34대 회장(2012 ~ 2013) 뉴욕지부 동창회 재무간사(1983 ~ 1992) 뉴욕지부 동창회 감사(1992 ~ 현재) 뉴욕지부 약대 동창회 이사장(2014 ~ 현재) 뉴욕지부 동창회 장학위원장(2016 ~ 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약학대학 졸업(1968년, 73년 도미) 모교 경영대학원 졸업(경영학 석사; 1971) 공군 중위로 군복무 뉴욕대(NYU) 경영대학원 졸업(MBA; 1977) Deloitte, Haskins & Sells, CPAs 근무(1974 ~ 1976) 뉴욕주 재무성 세무감사관 및 감사반장 10년간 역임(1978 ~ 1987) 뉴욕한인경제인협회 경제고문(현) 뉴욕한인식품협회(KAGRO) 담당 회계고문 역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뉴욕한국일보에 경제 및 텍스 칼럼 15년간 연재 뉴욕중앙일보에 <수요 경제칼럼> 및 <전문가 기고> 4년간 연재 뉴욕중앙일보에 <경제 에세이> 7년째 연재 중 「일기 쉬운 미국의 생활 경제」 출판(1992) 「미국의 소득세 가이드」 출판(1997) 「미국생활과 재정계획」 출판(2004) KEB하나은행 USA 이사(현) 뉴욕 맨해튼에서 30년간 Changsoo Kim, CPA P.C. 운영 중

추천의 글

서울대학교 미주동문회 차차기 회장직을 뉴욕지부에서 맡을 차려가 된 것에 대하여 환영합니다. 오랫동안 뉴욕에서 미주동창회장을 배출하게 될 것에 대하여 설레이는 마음으로 적임자 한 분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먼저 회장의 자격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 우선 자기 자신의 삶에서 성실함으로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될만한 사람이어야겠습니다.

- 종사한 직업과 활동에 있어서 출중한 성취를 이룩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 앞으로 맡아서 감당할 일에 대하여 열정이 있어야 하고, 비전을 가지고 목표가 뚜렷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 끝으로, 더 한 가지는 지역 동문회 회장직을 충실하게 수행한 사람이어야겠습니다.

이와 같은 전제들이 충족된다면 서울대학교 동문들의 자존심을 세워줄 것이며, 미주동문회 회장에 적합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뉴욕지역동문회에는 다행스럽게 위의 자격조건에 합당한 분들이 많습니. 그 중에서도 신중하게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본 결과, 이번에 선출되는 차차기 회장에 가장 적임자로 생각되는 한 분을 추천하자면, 김창수 동문입니다. 그 분의 출마의 변에 공감하며, 전적으로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추천인 이대영 (문리대 64, 뉴욕동창회 차기회장)

인생사와 리스크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데는 항상 예기치 않은 어떤 위험에 봉착하게 된다. 예상치 못하는 위험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성패가 달라지기도 한다.

위험 혹은 위험도를 영어로 Risk(리스크)라고 한다. 리스크는 개인생활, 가정생활, 직장생활, 기업체의 비즈니스 활동, 국가의 정치 활동 등 그 어느 영역에나 신경을 써서 대처해야 한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Risk Management)가 하나의 학문을 이룰 정도로 현대 사회에선 누구나 습득해야 할 커다란 영역이 되었다.

우리의 인생사에서 리스크(Risk)는 다음의 네가지 분야에서 우리 주위에 도사리고 있다.

- ◆ 금전적 리스크: 주식 투자와 같은 투자 활동, 도박, 투기, 직장 이동 등에 따르는 위험
- ◆ 신체적 리스크: 등산, 수영, 스카이 다이빙, 산악 자전거 등으로 인한 신체적 상해
- ◆ 사회적 리스크: 본인의 자존심 손상이나 타인의 명예 훼손
- ◆ 도덕적 리스크: 사회의 도덕적 규범이나 종교적 표준에 어긋나는 행동(예, 내부 정보를 가지고 투자활동을 하는 소위 "Insider Trading"은 도덕적으로 해이된 경제활동이다.)

리스크는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부정적, 긍정적, 중립적인 의미로 간주된다. 리스크는 언제나 있어온 것이므로 불확실성만 인정하면 이를 감수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은 중립적이다. 리스크는 위험하고 손해를 볼수 있다는 견해는 네가티브 브라운 것이다. 리스크는 기회이며 도전해야 한다는 것은 긍정적 견해이다. 단지 긍정적 견해를 가진 사람은 극소수일 뿐이다.

리스크를 지기 싫어하는 사람들, 즉 리스크 토러런스가 낮은 그룹은, 노인, 은퇴자, 여성, 형제 중에는 맏이, 공무원 등이다. 리스크 토러런스가 높은 그룹은 젊은층, 고소득층, 유동자산이 많은 부유층, 자녀가 없는 가정, 자기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 등이다. 베이비부머 세대는 그 부모 세대보다 리스크를 더 지는 편이다.

리스크는 사람에 따라 위험도를 감내하

는 수준이 다르다. 투자를 예로 들면, 남보다 공격적(Aggressive)인 주식 투자자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위험도가 높은 분야는 절대 손대지 않는 부류가 있다.

일반적으로 신체적 리스크를 감내하는 운동 선수들은 일반인에 비해 투자도 공격적으로 한다는 통계가 있다. 그래서 스쿠버 다이빙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공격적인 뮤추얼펀드에 대한 투자 반응이 일반인보다 좋다고 한다.

리스크를 감내하는 정도를 Risk Tolerance라고 한다. 리스크 토러런스는 리스크의 결과가 자기 자신에게 돌아갈 경우, 타인에게 돌아갈 때보다 더 커진다. 그래서 투자 회사의 투자 매니저는 본인 자신의 투자보다 손님의 투자에 보다 더 공격적일 수 있다. 또 리스크에 노출된 경제적 가치가 높을 수록 리스크를 꺼려한다. 그래서 투자액이 높을수록 리스크가 낮은 쪽으로 기울어진다.

의사결정의 결과가 금방 나타나는 경우에는 리스크를 싫어하고, 결과가 나타나려면 긴 시간이 흘러야 하는 경우(예, 은퇴용 투자)에는 리스크가 높은 편인 주식 쪽으로 기울어진다.

리스크를 지기 싫어하는 사람들, 즉 리스크 토러런스가 낮은 그룹은, 노인, 은퇴자, 여성, 형제 중에는 맏이, 공무원 등이다. 리스크 토러런스가 높은 그룹은 젊은층, 고소득층, 유동자산이 많은 부유층, 자녀가 없는 가정, 자기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 등이다. 베이비부머 세대는 그 부모 세대보다 리스크를 더 지는 편이다.

리스크를 더 감내하는 층은 성격적으로 고집이 있고, 자신감이 있고, 독립적

이고, 창조적이고, 지배적이고, 공격적이고, 남성적이고, 영리하고, 외향적이고, 기회주의적인 면이 강하다. 그리고 자신의 직업에 대해 만족해하고, 잘못하는 것에 대한 죄의식이 약하고, 리더십이 강하고, 사회성이 강하고, 다른 사람들의 결정 사항에 쉽게 순종하지 않고, 스트레스를 잘 해결하는 편이다.

리스크를 피하거나 줄이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취할 수 있다.

첫째, 리스크가 있는 분야는 처음부터 포기하는 것이다. 압력 등반이나 스쿠버 다이빙, 주식 투자같은 것을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으면 리스크가 전혀 없게 된다.

둘째,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다. 건강을 위해 다이어트를 하는것, 정기 검진을 받는것, 음주 후 가급적 운전을 하지 않는 것 등이 있기에 속한다. 주식 투자는 장기적으로 우량 주식에만 집중하는 것도 리스크를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된다.

셋째, 확률로 보아서 리스크가 낮은 분야는 보험에 가입해서 리스크를 더욱 분산시키는 것이다. 주택이나 사업체의 화재 보험, 자동차 보험, 장애자 보험, 생명 보험등에 가입해서, 평소에도 보험료를 지불하면서 리스크 발생 시 손해나는 부분을 보험금으로 커버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리스크를 적극 관리하는 것이다. 특히 비즈니스 운영에는 리스크 관리가 필수적이다. 리스크를 (1) 식별해서 인지하고, (2)측정하고, (3)리스크 수준을 감시 경고하고, (4) 비즈니스 정책, 표준, 절차 등에 리스크 관리 결과를 반영해서 리스크를 통제하는 것이다.

김창수(차차기 회장 후보)



자랑스런 동창회, 따뜻한 동창회!

이서희 후보 3대 공약

1. 미주 동문간의 인적 Network 활성화 및 활동영역 다변화
2. 지역사회 봉사 활동
3. 본교와 진일보된 관계 형성

- Prince Co. Inc. 대표 (현)
- 서울대 미주동창회 평의원 (현)
- 서울대 남가주 총동창회 상임이사 (현)
- 서울대 남가주 총동창회 회장 (2014)
- 서울대 법과대학 남가주 동창회 회장 (2008, 2009, 2013)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로스앤젤레스협의회 회장 (2009-2011)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로스앤젤레스협의회 자문위원, 상임고문 (2009-2015)
- 서울대 법과대학 졸업 (1974)
- 경남고등학교 졸업
- Claremont Graduate University, 정치학 Ph D 과정 수학
- 대한민국 대통령 공로장
- Certificate of Recognition, Los Angeles City Mayor, Eric Garcetti

추천의 글

미주동창회 15대 회장으로 이서희 동문을 추천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법대 남가주동창회 회장으로 올해 동창회일을 맡고 있는 정인환(법54)입니다. 이 동문과의 인연으로는 법대동창회를 통하여 대략 15년정도 서로 얼굴을 맞대고 지내왔습니다. 이 동문이 미주 동창회에 뜻을 두고 보람된 일을 하고자 하여 짧은 글로 다 표현할 수는 없었지만 나름대로 소개 및 칭찬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보통 외모가 단정하고 온화한 인격을 가진 자를 위유하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 중에 속이 건실하고 잘 흔들리지 않는 자를 내강하다고 표현합니다. 이동문은 이런 인격적인 면이 단단히 자리 잡고 있는 분입니다. 이런 양면이 있어야 다른 분들과 접촉이 쉬울 뿐만 아니라 옳은 일에는 굳건히 밀고 나갈 수 있습니다.

이서희 동문에게 남가주 총동창회뿐만 아니라 법대동창회내에서도 동문들이 신뢰를 보내고 있습니다. 2008, 2009, 그리고 2013년 3번에 걸쳐 법대 남가주동창회를 이끌어 오면서 동창회의 요체를 편안한 화합정신이 뿌리 내리도록 희생적인 노력을 해왔습니다. 정이란 자주 만나야 생기는 것입니다. 이 동문은 여러가지 새로운 행사를 통하여 법대동문들이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고 동문들은 즐거이 참여해왔습니다.

2014년도에는 남가주총동창회를 이 동문이 맡으면서 광복절 업적을 남겼습니다. 여러 업적 중에 저와 관련이 있는 것은 11월 말에

있었던 동창회 40주년 기념 및 이웃돕기 문화행사를 지금은 퇴역하여 Long Beach항구에 정착하고 있는 Queen Mary 호화여객선에서 시도한 것입니다. 기존의 행사는 이어받기 쉽지만 새로운 것은 어려운 법입니다. 이 동문은 다양한 새로운 idea를 잘 생각해냅니다. 이런 idea에 기초하여 새로운 조직을 만들고 실천에 옮기는 leader로서 갖추어야할 자질을 갖춘 훌륭한 재목입니다. 동문들이 미국에서 그간 해온 문화적 측면의 업적을 각자 나와서 알림과 더불어 자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림, 저서, 사진, 서예, 음악, 수석, 시 등 문화적인 요소를 동문들이 보고 즐기는 의도였습니다. 다행히 저의 경우는 그간 같고 닦은 서예 및 수석을 동문들에게 자랑스럽게 전시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기회가 계기가 되어 다음해 초에 개인전을 가지게 되어 뿌듯한 마음을 항상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이서희 동문은 자신을 앞세우지 않으면서 다른 분들의 의견을 잘 경청하고, 어떤 결론에 도달하면 지체없이 일을 수행하는 인격과 leadership이 골고루 갖추어진 훌륭한 동문입니다. 그의 과묵함은 남과의 관계에서 순수하게 절제된 행동으로부터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그의 생활신조가 어릴 때부터 형성되어 온 타인에 대한 겸손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서희 동문이 동창회일에 맡으면 동창회가 더욱 활기차게 발전할 것임을 확신하며 15대 미주동창회 회장으로 힘차게 추천합니다.

추천인 정인환 (법대 54, 남가주 법대동창회장)

바람직한 동창회 모습이란?

이서희(차차기 회장 후보)

동문관계는 서로 모르는 처음 만난 사람 사이에도 쉽게 동질감을 느끼게 하며 상대방의 성격이나 배경을 따지지 전에 오래 전부터 가깝게 지내온 사이로 만들어 준다. 물론 다른 모임들도 나름대로 특색을 가지고 있었지만 같은 학교를 다녔다는 사실 그 자체, 그것도 나아가 어린 시절의 순수한 경험에 기초를 둔 만남은 더욱 친밀감을 더해 준다.

이 좋은 모임이 유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동문간의 예절을 잘 지켜야 하고, 동창회를 서로 베풀는 장소로 이용하고, 또한 서로 평등한 마음으로 동문 모든 사람이 이질감을 느끼지 않고 모임 수 있는 리더로서의 동창회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동문간의 예절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된 동창회 모임은 나이, 직업, 경제력을 떠나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는 마음 속에서 지켜져야 할 예우관계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같은 동년배 간에도 너무 무례하지 않는 행동을 하도록 항상 조심하며, 후배의 입장에서는 선배들이 너무 세대차이가 나서 재미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모임이 있을 때에는 나이든 분의 경험담을 듣게 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또한 선배가 이루어 놓은 기반 위에 동창회가 유지 및 발전되어 왔다는 사실에 고마운 마음을 항상 가져야 할 것이고, 선배들은 후배들이 때때로 너무 버릇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세대의 다른 생각을 가진 후배들의 입장을 잘 이해하도록 하며 후배들 앞에서 너무 선배라는 것을 내세워 후배들의 행동에 섭섭해 하지 않도록 순간순간 자제해 보는 여유를 갖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와같은 동문간의 인간관계는 수직적 상하관계가 아니고 수평적 예우관계라고 이해할 때 가능하다.

동문간의 모임은 서로 베푸는 모임으로 생각해야 한다. 혼자만의 생각에 빠져 어떤 형태의 이득이 돌아올 것으로 가정하고 접근하면 심중팔구 헛되이 시간을 낭비한 꼴이 되고 동창회에 가보니 별볼일 없더라는 등 기대에 못 미치는 데 대한 서운함을 느낄 수도 있다. 꼭 어

떠한 목적을 두지 않더라도 모임에 참석하다 보면 서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기도 하고, 서로 마음이 통하는 사람끼리는 비즈니스에 도움을 주든지 또는 같이 비즈니스를 할 기회도 잡게 될 것이다.

동창회에서 서로 베풀다는 것은 조그마한 일에도 남이 알아서 하니 나는 가만히 있다가 끼어들면 된다는 생각, 또는 남과 비교하여 이 정도면 되겠다는 것에서 벗어나 조금이라도 더 모임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방향으로 생각 및 행동하는 사람은 모든 동문의 호응을 받고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사람으로 존경받게 된다. 열개를 베풀면 일반적으로 할 도리를 다 한다고 생각될 때 세계를 더 넓어 주면 받는 이들에게 더 많은 즐거움을 주게 되며 주는 즐거움도 만끽할 것이다.

동문간의 마음의 평등화는 모임을 더욱 활기 있게 만들 것이다. 경제력 등에서 남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으면서 존경만 바라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동문들에게서 소외된 기분을 느끼게 될 것이다. 성공적인 경제력 등은 부러움의 대상은 필지언정 존경의 대상은 아니기 때문이다.

동문들의 공동 놀이터인 동창회는 어느 누구의 독점물이 아니고 나누어 즐기는 모임이다. 앞에 나서지 않으나 숨어서 조용히 도와주는 고마운 분들이 많은 동창회는 뿌리가 깊어 내려 단단한 기반 위에서 더욱 활성화될 것이고,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면서 이것저것 옳다 그르다는 요구사항만 많고 떠들썩한 사람이 많으면 모임 자체에 균열이 생길 것이 자명하다. 그러나 모든 동문의 모임이 동창회는 누가 이익을 주고 누가 불이익을 주는가에 따라 참석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동문이 공동체로 모이는 곳이므로 서로가 이해와 설득으로 포용력있게 잘 이끌어져야 할 것이다. 동창회는 수평적 예우관계에 기반을 두고 서로 베풀고 평등화된 마음으로 접근할 때 공동의 놀이터로 유지, 발전할 것이다.



함께 높은 이상을 이루자!

신응남 후보 3대 공약

1. 동문 배가 운동 - 젊은 동문 영입
2. 천만불 모금 / 자산 5% 증여 운동
3. 서울대 CLUB 설립 / 운영

- 뉴욕동창회 상임 부회장 2000/2001
- 뉴욕동창회 평의원 2004 - 현재
- 미주동창회 회칙위원회 위원 2009-2015
- 뉴욕동창회 장학위원 2007-현재
- 뉴욕동창회 장학위원회 부위원장 2013-현재
- 뉴욕동창회 30대 동창회장 2008-2009
- 뉴욕동창회 이사 2000-현재
- ROTC 육군장교 1974-76

- 대한항공 입사 1976
- 뉴욕지역 대한항공 소속담당 1981-2000
- 신용남법률사무소 설립운영 2000-현재
- 뉴욕 그레잇넥 한인교회 시무장으로 2007-현재

- 학력:**
- 경동고등학교 졸업 1969
- 서울대 농대 1970-74

- 미국 Embry-Riddle Aeronautical University 졸업 1986
- 동 대학원 Master of Aviation Management 항공경영학 석사
- 뉴욕 Long Island University 졸업 1992
- 동 대학원 MA, of Public Management 행정학 석사
- Touro College Law School Juris Doctor 1996
- 뉴욕주 변호사 1997
- 뉴저지주 변호사 1998
- 미국 연방법원 변호사 1998

추천의 글

동문 선후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차기 서울대 미주총동창회장으로 신응남 변호사를 추천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제가 적극 추천하게 된 이유는:

척박한 이민의 땅에서 뿌리를 내려가며 자신의 큰 꿈을 이루기 위해 신응남 동문은 생업과 학업을 10년 동안 병행했습니다. Touro College Law School (LI, NY)에서 Juris Doctor를 받고 1997, 1998년에는 뉴욕 뉴저지, 미 연방법원 변호사가 되어, 한인 밀집 지역인 후러싱에서 지금까지 법률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가슴 속에 불의를 물리치고 정의가 실현되는 세상, 약자를 보호하고 강한 자에게 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비전을 깊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동창회에 관련하여 그동안 그는 뉴욕 농대동창회 회장, 뉴욕 동창회 상임 부회장, 30대 동창회장을 거쳐, 이사, 장학위원 그리고 장학 위원 부회장으로 지역 동창회에 지금까지 봉사하고 있습니다. 미주 총동창회에는 정관 관리 위원을 거쳐 평의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지난 30여년간 한 교회를 섬기며 시무장로로서 재단이사장, 선임 장로, 교회 관리, 교회 증축 등 전반적인 법률 및 행정 일을 맡아 봉사해 왔습니다.

20년동안 곁에서 지켜본 바로는 동창회에 관한 그의 관심

과 능력이 탁월하며, 그의 회장 임기 시 격월로 발행된 뉴욕동창회 회보(1,200부)를 통하여 보여 준 동문이며 기성 시인으로 활동 중인 부인의 내조와 협조는 총동창회 회보 발간에 많은 도움을 주실 것으로 생각하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거라 봅니다.

특히, 그의 선거 공약인 천만불 모금, 서울대 클럽 설립 그리고 지역 동문회와 IT를 통한 긴밀한 연락/소통망업 그레이드 & 유지 - 100% 전산화 지양을위하여 이미 많은 준비를 해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또 다른 추천의 이유는, 신 동문이 총 동창회를 위해 봉사하겠다는 의지가 매우 강하다는 것을 여러번에 걸쳐 보았습니다. 그는 총동창회 운영에 대한 사무실, 시간, 능력을 모두 갖추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1996년 이후로 현재까지 20여년 동안 개인적 혹은 공적으로 자주 만나고 있으며 특히 그분의 변호사로서 법정에서 손색없는 영어 구사력이나 사건에 대한 접근 및 해결 방식 등에 많은 장점을 보았으며, 새로운 동창회의 사업 내용과 포부를 보고 반드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분이라고 확신하며 적극 추천합니다. 우리 미주동문들 모두의 American 드림의 지평을 더 확장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추천인 최수용(상대 55, 뉴욕동창회 18대 회장)

현자의 정치, 군자의 정치

신응남(차차기 회장 후보)

이게 국가냐? 이게 나라냐? 우리는 지난해 10월 부터 우리가 두고는 조국으로 부터, 부끄러운 국민의 절규를 들어야했다. 국민들의 그 절규가 결국은 박 전 대통령의 탄핵 그리고 구속되는 불행한 역사를 다시 쓰고 말았다.

영국의 철학자 홉스는 사회계약설의 목적에 따라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전제군주제를 이상적인 국가의 형태로 보았으며, 백성은 신약(covenant)을 충실하게 이행하면 주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개인과 국가는 '사회계약설'에 의한 신약을 맺으므로 개인의 권력을 공동 권력, 즉 국가를 위해 양도한다는 이론을 펼쳤다. 절대 권력을 위임받은 공권력이 있으면 국민은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17세기의 홉스의 주장은, 현재 우리가 살고있는 21세기 문명국가에서는 그대로 적용할 수 없지만, 그의 주장을 전적으로 반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법을 통해, 국가의 권력을 합법화하는 것은 공권력 행사 자체의 기능이지, 그 공권력이 특정한 군주나 정부의 소유물은 아니다. 21세기 문명국가 국민들은 홉스의 국가론을 위한 전제국가론으로 간주하며, 국가의 이익보다는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앞세우는 자유주의 국가론을 선호하고 있다. 이제, 국가론을 계속 발전시키며 보완해 나가는 것이 우리 모두가 당면한 과제라 하겠다.

플라톤은, 철학자가 왕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만물에는 그 고유의 텔로스(Telos, 목적)가 있다고 생각했다. 즉, 국가의 텔로스는, 바로 '정의'이며 국가는 정의 실현을 위한 목적을 갖고 존재하는 공동체라고 했다. 그는, 국가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선과 정의가 무엇인가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롭고 학식있는 현자(賢者)가 지배하는 국가를 원했다. 지혜가 모자라면서도 통치술이 뛰어난 자가 공권력을 장악해서 파위를 휘둘러 생기는 참혹함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양의 맹자는, 덕(德)이 지배하는 국가를 지양했다. 즉, 덕을 갖춘 군자(君子)가 지배하는 국가를 꿈꾼 것이다. 맹자가 말하는 덕이란, 타인의 고통을 함께 하는 '측은지심 惻隱之心, 불의를

부끄러워하는 수오지심 羞惡之心, 겸손하여 타인에게 사양하는 사양지심 辭讓之心, 옳고 그름을 판단할 줄 아는 시비지심 是非之心'을 갖추고 있는 군자를 말했다. 맹자는 이런 네가지 마음을 갖춘 군자가 국가를 다스려야 백성의 마음을 사며,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해 줄 수 있다고 믿었다.

동서양의 철학자의 국가론이 다르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한가지 같은 점은, 국가는, 선, 정의, 덕을 실현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목적론에서는 일치해 보이고 있다. 그들은 이 목적을 추구하지 않는 국가는 안정되고 통합된 국가로 오래 존속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수의 서구 유럽과 선진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민주주의 체제는, 국가 내에서도 교묘한 위선과 포플리즘을 이용해 위선적인 인물이 권력을 독점할 수 있는 중우정치(衆愚政治)로 빠질 수 있는 맹점 때문에 플라톤은 민주주의를 선호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제도가 현존하는 인간이 생각했던 가장 부작용이 적은 제도라는 점이다. 탐욕적인 정치가가 권력을 잡아야도 권력의 주체는 국민이라는 점, 법치에 의해 다스려야 한다는 점, 부패한 권력자를 견제할 수 있는 점등을 살려 민주주의 제도를 계속 발전시키며 보완해 나가는 것이 우리 모두가 당면한 과제라 하겠다.

지난 3월 10일 박 전 대통령의 탄핵 판결에 참여한 현재 재판소 안창호 재판관은 판결 보충 의견에서 "오직 공법을 강물같이, 정의를 마르지 않는 물같이 흐르게 할지이다.(아모스 5:24)"의 성경 구절을 인용했다.

홉스의 사회 계약설과 같이, 서울 대학교에 적을 두었던 사람은 모두 서울대 동창회 회원이 되는 것처럼, 하나의 국민이 국가와의 계약과 같은 논리로 우리는 동창회 회원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국가는 국민들이 원하는 존립의 기본 목적인 선, 정의, 덕을 이룩해야 하는 것도, 동창회에 적용이 가능하다. 그러면, 우리 서울대 미주동창회가 추구해

14면에 계속...

백양희 동문, 디즈니 영화사 해외배급팀 디렉터 ‘두근거림’ 없는 삶을 경계하다

그녀는 엄친딸이다. 모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하버드 MBA를 거쳐 현재 디즈니 영화사 디지털 해외배급팀에서 근무하는 ‘고퀄리티 스펙’의 소유자, 백양희(37) 디렉터다. 세상 모든 엄친딸이 그러하듯 잘하는 게 어디 공부뿐이라. 노래 실력도 출중해 현재 대학동문 밴드에서 보컬로도 맹활약 중이다.

게다가 빼어난 미모에 쾌활하고 불임성 좋은 성격까지. 세상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절로 든다. 이 유쾌·상쾌한 팔방미인을 그녀가 근무하는 버뱅크 디즈니 본사 스튜디오에서 만나봤다.

#서울대에서 하버드까지

서울에서 나고 자란 그녀는 은행원이었던 부친이 뉴욕지사로 발령이 나 8학년 부터 3년간 뉴저지에서 살았다.

“한국에선 반장을 도맡아 하던 모범생이 말도 제대로 못하는 이방인이 되면서 충격과 상처가 꽤 컸죠. 그래도 다행히 낙천적인 성격 덕분에 금방 적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웃음)”

귀국 후엔 고교 2학년으로 편입, 98년 서울대 경영학과에 입학했다. IMF로 이후 극심한 취업난 속 저학년부터 취업준비에 매달리는 수재들 틈바구니에서 그녀는 공부보다는 하고 싶은 일에 더 열중했다고 한다

“제가 어려서부터 노래하고 춤추는 걸 좋아했어요. 유년시절엔 발레리나나 성악가가 꿈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고교시절엔 좋아하는 가수 콘서트를 열심히 쫓아 다녔고 대학시절엔 노래패, 댄스 동아리 활동도 하며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했죠.”

그렇게 놀고도(?) 최우등 졸업을 했다고 하니 지고는 못 사는 그녀의 성격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대학 졸업 후엔 유명 외국계 컨설팅사에서 입사했다. 자정 넘어 퇴근은 말할 것도 없고 주 하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빡센’ 사회 초년생 생활이 시작됐다. 그렇게 3년 넘게 그곳에서 일하며 많은 동종 업계 선배들처럼 그녀도 MBA 유학 준비를 시작했다.

“하버드 지원서에 장래 엔터테인먼트 관련



다 믿어서 그냥 제출했죠. 어려서부터 한국 대중문화에 관심이 많았기에 언젠가 이를 해외에 알리는 일을 하고 꼭 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녀의 진심은 통했다. 2006년 그녀는 합격 통지서를 받고 보스턴으로 날아갔다.

#컨설팅사에서 디즈니로

하버드에서의 생활은 예상보다도 고됐다. 하루 3~4개 정도의 수업을 듣는데 전 수업이 토론식으로 진행됐다고 하니 그 만만치 않음은 더 이상 설명 필요 없을 듯싶다.

“고3 때보다 더 힘들었죠.(웃음)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인 이들이 모인 곳인데다 영어가 모국어인 이들과 섞어 공부를 했으니 주눅이 엄청 들었어요. 게다가 토론식 수업에 참여하려면 전날부터 철저히 수업 준비를 해야 했으니까 하루 3~4시간도 못자면서 버텼죠. 덕분에 1학년 때는 너무 우울해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그러나 그녀는 금세 적응했고 하버드에서 잊지 못할 추억과 경험을 쌓았다.

“엘리트라 하면 자기밖에 모를 것 같잖아

요? 그런데 하버드에서 그 편견이 다 깨졌어요. 수업이나 시험 때마다 관련 분야 종사자들이 그렇지 못한 이들에게 개인교습을 하는 등 열과 성의를 다해 도와줬죠. 자기 공부하기도 바쁜, 시간이 금인 그곳에서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이



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주는 걸 보면서 저 역시 그들처럼 가진 걸 나누며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죠.”

그녀가 디즈니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2007년 여름방학 동안 디즈니그룹 본사 국제전략팀에서 인턴십을 하면서부터.

“졸업 후 꼭 디즈니에서 일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막상 알아보니 자리도 없었고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을 뽑을 계획은 더욱이 없어 지원이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하버드 졸업 후 2008년 그녀는 세계 최고의 컨설팅 업체로 손꼽히는 보스턴 컨설팅그룹 LA지사에 입사했다. 영주권 스폰서와 15만달러가 넘는 연봉 등 업계 최고 대우를 받았다.

그러다 2010년 그녀에게 디즈니에서 일할 기회가 찾아왔다. 디즈니 영화사 배급 전략팀에서 MBA 컨설팅 경력자를 찾고 있다는 소식을 입사지원을 한 것이다. 그리고 그해 여름 그녀는 드디어 디즈니에 입성했다. 이전 직장보다 연봉도 현저히 낮았지만 오래 전부터 꿈꿔왔던 일기에 그녀에게 돈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중앙일보〉글·사진=이주현 객원기자

#영양 있는 삶을 위해

입사 후 두 차례 부서 이동을 거쳐 현재 그녀는 디지털 해외배급팀에서 근무하고 있다. 지난 7년 간의 회사 생활은 도전의 연속이었다.

“당연히 쉽지 않았죠. 영어도 힘들었고 미국식 기업문화도 익숙하지 않았고…그런데 워낙 제가 지기 싫어하는 성격이어서 더 꼼꼼히, 더 실수 없이 하려 이 악물고 노력했죠.”

최근 그녀가 담당했던 업무 중 가장 잊을 수 없는 것은 스타워즈 디지털 론칭 프로젝트. 2015년 디즈니는 스타워즈 6편 전편을 디지털화시켜 130여 개국에 론칭했는데 그녀가 이 프로젝트를 진두지휘한 것이다.

“국가별 마케팅 문화를 이해해야만 성공적으로 론칭할 수 있었기 때문에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게다가 스타워즈 에피소드4 관객을 가지고 있는 폭스사와 계약사항을 따로 조율하는 것도 만만한 일이 아니었고요. 또 시차 때문에 새벽에 출근해 전화통화를 해야 해서 6개월 간 꽤 고생했죠.”

그렇다고 그녀가 일반 하는 워키홀릭은 결코 아니다. 2015년부터 서울대 동문들로 구성된 록밴드 ‘컬리프라이스’ 보컬로 활약하며 1년에 2~3차례씩 공연을 갖고 있다. 또 시간이 날 때마다 발레, 요가 클래스도 듣고 여행과 콘서트 관람도 빼놓지 않는 등 화려한 싱글라이프를 만끽 중이다.

“좋아하는 일이 직업인건 정말 행운이라 생각해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일터에서 영감을 얻고 누군가에게 그 영감을 되돌려주는 삶을 살고 싶어요. 열정이 이끄는 삶이 될진 모르겠지만 한국 콘텐츠를 세계시장에 알리는 일을 해보고 싶기도 하고요.”

어느새 미국 직장생활 10년 차다. 지칠 만도, 매너리즘에 빠질 법도 한데 그녀는 여전히 호기심 가득한 고양이 눈빛을 한 채 세상을 누비고 있었다. 열정이 이끄는 삶을 따라 꽤 근사하게 아주 부드러운 안단테 속도감으로.

〈중앙일보〉글·사진=이주현 객원기자

13면에 이어...

아 하는 목적 또한 선(善), 정의(正義), 덕(德)을 추구하는, 같은 맥락으로 유지해 가야 할 것이다. 그 중에서, 선은 우리 모두가 해택받은 남다른 양질의 좋은 교육에 대하여 국가에 대한, 모교에 대한 보답으로의 선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각 사회에 대한 적절한 환원의 의무를 감당해야 할 것이다. 또한, 그 동문회가 속해 있는 Society, 국가에 좋은 영향력을 위해 정진함으로써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어 가는데에 엘리트(ELITE)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안창호 현재 재판관의 인용구절처럼 우리 모두 공의와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미주동창회의 역사나, 그 구성 멤버들의 숫자와 능력 그리고 잠재력

을 고려해 볼 때, 이제는 참신한 개혁을 통해 동창회의 변화, 발전, 도약을 위해 역사적 Stepping Stone을 놓아야 할 때라 생각한다.

이제 우리가 서 있는 이 땅, 제 2의 조국인 미국에 서울대 클럽을 설립함으로써, 현재의 동문회일 뿐만아니라, 미래에 미주에 와서 정착할 후배 동문들에게, 모교를 사랑하고 후원하는 마음의 안식처를 조성하고, 제 2의 고향을 만들어 보고자하는 비전을 실현시켜야 한다. 그 사업을 위해 아직은 그다지 늦지 않았음을 감사해 하며, 담대하게 출사표를 던졌다.

정성소지 금석위계 (精誠所至 金石爲開)란, 중국 고사(후한서)에 나오는 고사인데, ‘정성이 지극하면 쇠와 돌도 열린다’라는 뜻이다. 〈중용〉 25장엔, 세상의 근

원, 천하의 이치와 같은 ‘성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정성이란 것은 만물의 처음이요 끝이니, 정성이 없으면 만물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군자는 정성을 소중히 여긴다. 스스로를 완성할 뿐만 아니라 세상 만물

편집위원회 만장일치의 결정으로 인선위원회에서 보내 온 세 후보의 지난 3 회기 (6년간) 회비, 후원금, 광고후원금 후원에 대한 심사자료를 소개합니다.			
	김창수 후보	이서희 후보	신응남 후보
11대 (2011.7-2013.6)	회비 \$75x2 업소광고 \$120	회비 \$75 후원회비 --	회비 -- 후원회비 --
12대 (2013.7-2015.6)	회비 \$75x2 업소광고 \$120x2	회비 -- 후원회비 --	회비 -- 후원회비 --
13대 (2015.7-2017.6)	회비 \$75x2 후원회비 \$500 광고후원 \$780	회비 \$75x2 후원회비 --	회비 \$75 후원회비 \$300 광고후원 \$1200

을 이루게 하기 때문이다.” 미주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는 동문들의 남다른 모교에 대한 열정과 쇠와 돌도 열리는 정성을 모으고 연합하여 도도한 물결로 흐르기를 바란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의 위대한 책임을 실현할 수 있기를 염원해 본다.



[필라델피아 산책 2]

토마스 이킨스는 19세기 미국 미술계의 대표적인 화가로 사실주의 화풍의 거장이다.

주로 누드 모델을 통해 해부학적인 사생활 묘사에 전념하면서 프랑스 유학을 마친 이 젊은 화가는 고향에 돌아와 모교인 필라델피아 미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는 교수로 승진했고 1882년에는 학장에 취임했다. 그의 교수법은 색달랐다. 목탄으로 조각을 사생하는데 별로 관심이 없었고 인체 구조나 운동을 이해하기 위해 사진을 이용하게 했다. 순간적인 변화를 포착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직접 모델을 그려서 인체의 해부 구조를 이해하도록 했다. 학생들은 인체나 동물의 해부 실험에도 참가하도록 격려했다.

누드 사생이나 해부학 교실에서는 남녀 학생들을 따로 가르쳤다. 여학생들 앞에 남성 모델은 하체에 늘 짧은 내의를 입고 나왔다. 한 여학생이 골반 근육의 운동에 대해 질문하자 이킨스는 말로만 설명할 수 없다며 모델이 입은 하의를 벗기고 남성의 하체를 여학생들에게 보여주었다. 이 사건은 크나큰 파장을 일으켰다. 학교 이사회는 여학생들은 정물이나 그림 것이지 벗은 인체에 대해 배우는 것이 옳지 않다고 여겼으며 젊은 교수진들의 일부는 이 화가의 사실주의적 화풍에 반감을 가진데다가 승진의 기회까지 노려 이킨스를 폄하했다. 결국 1886년 교수직에서 물러났는데 이 사건은 그에게 심한 타격을 주었다.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는 높아서 이 사건에 대한 항의로 38명의 학생들이 자퇴하여 새로운 미술학생연맹을 만들었다. 그는 뉴욕과 워싱턴에 있는 유명한 미술학교에 출강하여 학생 지도를 계속했다.

불운은 계속되었다. 화가였던 매부는 그가 몇 년 전에

토마스 이킨스의 ‘애그뉴 클리닉’ (The Agnew Clinic)

사망한 여동생을 누드 모델로 사용했으며 그녀와 간통을 했다고 무고했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지만 그는 낙심했다. 그의 초상화 모델을 자원했던 한 여학생이 화가에 대한 연모가 애정망상으로 발전해 그가 자기를 사랑해서 부인과 헤어진다는 소문을 퍼트렸다. 결국 그녀는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말았다. 반복되는 실망과 이에 따른 우울증으로 인해 한 신경과 의사의 조언에 따라 잠시 서부 다코타 지역에 가서 정양을 하며 그림그리기를 중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가로서의 그의 명성은 날로 높아갔다. 1889년 펜실베이니아 의과 대학의 졸업반 학생 25명은 은퇴하는 외과교수 데이비드 애그뉴 박사를



기뻐하기 위해 750불(현재로는 약 4만 불에 해당)을 주고 이킨스 화가에게 한 벽면을 짝 차는 대형 초상화를 그려달라고 요청했다. 이를 수락한 이킨스는 ‘애그뉴 클리닉’(The Agnew Clinic)이란 그림에 따라 요금을 받지 않고 학생 25명을 모두 유화 속에 그려 넣겠다고 약속했다. 그림이 너무 커서 캔버스를 땅 바닥에 내려놓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그렸다. 하루에 16시간씩 정력을 소비하면서 졸업식 날짜에 맞춰 완성시켰다. 화가에게 애그뉴 박사는 ‘가장 경험이 많은 외과외였고 가장 명확한 저술가면서 선생이었으며 가장 존경받고 숭배 받은 인물’이었다.

이 그림의 전면은 수술 장면이다. 강한 조명이 들어온 가운데 유방암 부분 절제술을 시행하다 말고 애그뉴 박사는 왼 쪽에 잠시 서서 수술에 대해 학생들에게 강의하고 있다. 그의 왼 손에는 피가 묻지 않은 깨끗한 수술 칼이 잡혀있다. 십여 년 전 ‘그로스 클리닉’을 그림 때에 비해 의학 상태가 많이 발달되었다. 의사들과 간호사는 모두 수술복을 입고 있어서 검은 프록코트를 입고 수술을 한 그로스 박사와는 크게 대조된다. 감염을 피하기 위해 수술실을 무균상태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화된 것이다. 마취제로 ‘그로스 클리닉’에서는 휘발성이 강한 에테르를 사용했었지만 ‘애그뉴 클리닉’에서 환자가 마취된 상태에서 집도의가 잠시 쉬는 모습을 보면 더 안정된 클로로포름을 사용한 듯 하다. 조명은 상당히 밝으며 수술 의 부위에는 환자에게 흰 천이 드리워있다. 조명에서 벗어난 배경에는 정장을 한 학생들이 계단식 강의실에 앉아있다. 환자를 보거나 애그뉴 박사를 보고 있지만 그 중에는 졸고 있는 학생도 있다.

‘그로스 클리닉’과 마찬가지로 당시 대중들은 수술실 풍경을 감상하지 않으려 했다. 3년간 방치되어 있다가 1914년에 4천 불에 판매되었다. 이킨스 생전에 가장 비싸게 팔린 작품이다. 현재는 필라델피아 의과대학 소장품으로 간직되어 있다.

사후에 그의 그림에 대한 평가는 더욱 높아졌다. 토마스 이킨스가 미국 미술사에서 최고의 초상화가라는 데 이견을 달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 나눔위원회 소식 〉〉

나눔위원회에 참가의사를 밝힌 동문을 중심으로 조직을 위한 모임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2017년 5월 중 조직을 마치고, 현 2016/2017 예산으로 가능한 몇가지 나눔위원회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이모든 사항은 다음 평의원 회의에 서면보고하고 인준을 받을 예정입니다.

공지-시카고 동창회 2017년 주소록 발간용 회원자로 요청

동문님들 안녕하십니까?

시카고 동창회(회장 한정진, 심대 59)는, 2008년에 창립 25주년을 기념하여 회원 주소록과 동창회 역사를 관하는 편람을 발간하여 수록된 전체 동문(550여명 추산)들에게 발송하였습니다.

우리 동창회는 타향에서 개척자의 삶을 사시는 동문 선후배들이 함께 기쁜 일과 어려운 일을 나눕니다. 전체 동문들이 참여하는 여름 야유회, 봄 가을에 있는 이사회와 골프대회, 송년 총회, 동아리모임을 통하여 선후배들이 함께 우정을 나눕니다.

동창회는 선후배들의 성심을 모아서 (연회비 \$30, 이사회비 \$200과 별도 출연

후원금) 동포사회의 발전을 위한 사업

(세종문화회와 시카고에 정착한 북한동포 교육 돕기 등)을 펴고, 동포사회 전체에 개방된 쏘나무 인재를 기르는 장학사업 (매년 10여명 장학생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생 지원자는 당해연도 회비를 내신 동문의 추천서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매달 첫 목요일에 모이는 골든 클럽(회장 정승규, 공대 60)과 관악세대들의 모임 (회장 정성일, 공대 84) 도 활발합니다.

서울대 미주 동창회보를 받으시나 시카고 동창회 명부에 오르지 않은 동문님과 새로 이사 오신 동문님들은 아래와 같이 회원 자료를 보내 주시면 충실한 주소록을 만들겠습니다.

1. 성함 (영어)
2. 한글 성함 (재학 당시)
3. 단과 대학 (학교)
4. 입학 연도 (and/or 졸업 연도)
5. 전화 번호
6. E-mail 주소(공개하기 싫으시면 E-mail 주소는 넣으시되 “(Amin only)” 라 명기 바람)
7. 주소 (Mailing address)
8. 사진 (optional)
9. 시카고 동창회 명부에 처음 등록하시는 경우, 기존 회원 중 친한 분 이름을 알려 주십시오 (서울대학 학적 사항이 포함된 졸업장, 학생증 등의 사본을 보내도 좋습니다)

자료 보낼 곳: -E-mail: SNUAACHIDIR@gmail.com
-SNUAA-CHICAGO 20720 N. Buckeye Rd. Barrington, IL 60010

지부 소개

뉴욕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Metropolitan Museum Museum of Modern Art Washington Square Time Square Ellis Island 이민박물관 Empire State Building Central Park Julliard University



서울대학교 뉴욕지역 동창회 2016 송년회

1. 동창회 설립과 연혁:

뉴욕지부의 공식명칭은 서울대학교 뉴욕지역 동창회이고, 영문 표기는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 Inc.'이다. 목적은 동창 상호간의 친목과 모교와의 협조를 도모하며,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사업으로 연말 친목회(송년회)와 운동아우회(골프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70년대 후반 서울대 전체 동창회도 설립 되었으나, 각 단과대학의 모임이 활성화 되어있다. 현재 김도명(농대 70) 회장의 임원진과 약 1400명 정도의 회보를 받아보는 동문과 13명의 평의원이 배정되어 있다. 뉴욕동창회 웹사이트는 www.snuany.org 이다

2. Cover 지역

뉴욕과 뉴저지 및 인근 지역을 관할구역으로, 필라델피아가 독립되기 전까지 필라델피아와 코네티컷주까지도 포함했었다. (코네티컷주는 이번 26차 평의원회의에 지부 설립을 신청 중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3. 동문 숫자와 연령분포도, 이메일 확보

현재 뉴욕지부는 미주 동창회보를 보내는 1400명 정도의 주소가 확인된 동문이 있다. 문화와 경제의 중심이 되는 많은 회사와 기관이 있는만큼, 서울대 동문의 유용인구가 파악될 수 없을 만큼 많고, 변화가 심하다. 다른 지부보다도 관악연대의 숫자도 많은 것 같지만, 아직 동창회 소속의 필요를 못 느끼고, 요즘처럼 SNS를 통한 소통 방법과 정보 공유 등이 예전과 달리 활발한 이유로 접점

년 미주이민사의 정치와 문화 발전에 관한 많은 연구자료를 직접한 '제외인사회연구소'에 관련된 민병갑(문리대 63), 김영덕(공대 53), 정해민(법대 55), 연봉원(문리대 61) 동문 등이 있다. 미 동부 한인민간협회와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고있는 동문들과, 학계와 교계, 생업에 관련된 자영업자들 등, 여러 동문들이 있다. 또한, 맨하탄의 문화적 특성으로 많은 음대와 미대 동문들이 창작 활동과 연주회를 통해 본인의 전공과 관련된 일을 하면서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활동하고 있다.

가장 최근 발행된 2011년 에드워드 강(사대 60)뉴욕지역 동창회 회원명부에 의하면 대부분의 동문이 60년대 학번으로 가장 많고, 75 학번 이후의 관악회의 회원이 500명 이상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많은 동문들은 은퇴후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관악회에 속한 많은 30대 이후 50대 미만인 동문들은 아직 한국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4. 동창회의 그동안의 활동 상황.

뉴욕 지부의 활동 상황은 두 분(오인석 법대, 이진구 농대)의 미주동창회장을 배출한 큰 지부로서 유엔본부와 뉴욕총영사관, 그리고 여러 유명한 미술, 박물관과 연주홀이 있는 지리학적 장점으로 한국과 직접 관련된 서울대 동문들의 활동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뉴욕동창회에는 이번 2세의 정치인으로 뉴욕주 연방하원의원인 그레이스맬은 계동휘(치대67) 동문의 자부이고, 2016년 캘리포니아 주상원의원으로 출마했던 제인 김과 2015년 뉴저지 주하원의원으로 출마했던 임원규 후보 등이 서울대 동문의 자녀이다. 그리고, 110

년 미주이민사의 정치와 문화 발전에 관한 많은 연구자료를 직접한 '제외인사회연구소'에 관련된 민병갑(문리대 63), 김영덕(공대 53), 정해민(법대 55), 연봉원(문리대 61) 동문 등이 있다. 미 동부 한인민간협회와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고있는 동문들과, 학계와 교계, 생업에 관련된 자영업자들 등, 여러 동문들이 있다. 또한, 맨하탄의 문화적 특성으로 많은 음대와 미대 동문들이 창작 활동과 연주회를 통해 본인의 전공과 관련된 일을 하면서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활동하고 있다.

5. 동창회가 해온 일 중 자랑스러운것은 뉴욕장학회와 시니어 모임인 골든클럽이 있다.

장학위원회: 매년 5월이면 뉴욕 지부에서 동창회 춘계 골프대회를 개최한다. 골프대회의 명칭은 "장학기금 모금골프대회"이다. 동창회에서 주최하고 장학위원회(회장: 김창수)에서 주관하는 본 골프대회에선 장학기금을 마련하여, 모교를 졸업한 후 미 동북부에 위치한 대학·대학원에 유학 중인 후배들에게 매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한 학생당 2500달러씩 지급하는 본 장학금의 수혜자는 지난 12년간 50여 명에 이른다. 그리고 장학금 신청에 응했으나 수혜자로 선정되지 않는 후배들께는 격려하는 차원에서 500달러씩 지급해오고 있다. 이들 장학금 수혜자와 신청자들은 매월 12월 초에 개최되는 연말 파티에 초청되어 뉴욕지역의 선배 동문들과 자리를 함께하여 즐거운 시간을 갖는 기회도 갖게 된다.

본 장학위원회는 2005년 제27대 회장인 성기로(약대 57) 동문 임기에 시작되었다. 당시 이사장인 이준행(공대 48) 동문과 24대 회장 김중률(사대 51) 동문, 그리고

성기로 회장 등이 주축이 되어 장학위원회를 결성하였다. 지난 10여 년간 성기로 초대 장학위원장을 비롯하여 모교에 참여한 여러 동문들과 장학위원 등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2016년에 제2대 김창수 장학위원장께 업무를 인계할 때는 그 기금이 12만 4000 달러에 이르렀다. 본 장학위원회에서는 춘계 골프대회 때뿐만 아니라 동창회에서 각종 행사를 치를 때마다 모금을 독려하며 연중무휴로 활동하고 있다. 본 장학 사업은 십여 년 간 노력을 하면 10만 달러의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뉴욕 지부의 경험을 토대로 타 지역의 동창회에서도 시도해 볼 만한 동창회의 자선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뉴욕지부의 **골든클럽**(회장 손경택 농대 57)은 1998년 윤정옥(약대 50) 동문의 제안으로 15명의 동문이 모여 시니어회원들의 친목단체를 결성하기로 하고 명칭을 'SNU 골든클럽'이라 정했다. 그 이후 뉴욕 동창회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면서, 2009년 회장을 맡은 이준행(공대 48) 동문은 현재 사운 중인 공식 로고를 제작하고, 골프모임 외에 산행과 낚시대회를 추가하여 회원간의 친목을 크게 도모하였다. 2013년에는 단체 크루즈 여행을 다녀왔고, 2015년 12월에는 겨울 골프 여행으로 Myrtle Beach Golf Trip 을 다녀왔고, 8월에는 2박 3일의 캠핑여행을 다녀왔다. 현재는 약 100명의 회원이 등록 되어 있으며, 매달 하이킹과 매주 뉴욕과 뉴저지 두 곳에서 열리는 컴퓨터 교실이 인기리에 진행되고 있다. 다음의 사이트에서 골든클럽의 활동 영상을 볼 수 있다:
https://youtu.be/hWFr_HiCqoY
<https://youtu.be/TozfKpZsH4o>

6. 뉴욕의 명소는 단연 유명한 맨하탄부터 시작해서 소요시간에 따라 권하는 것이 달라지는 특이한 곳이다. 책 한권을 권한다면, 'The Best Things to Do in New York 1001 ideas' by Caitlin Leffel and Jacob Lehman 을 읽어보기 바란다. 또 개인적으로 딱 한국대만 권한다면 엘리스 아일랜드 뮤지엄을 권하고 싶다. 자유의 여신상은 오가며 볼수있고, 시간이 허락하면 자유의 여신상이 있는 엘리스 아일랜드에도 들려볼 수 있겠지만, 'The Ellis Island Immigration Museum' 은 시간을 가지고 꼭 보면 좋을 장소로 권하고 싶다.

7. 동창회 운영에 어려운 점?

유동 인구가 많은 것과 관광으로 들리는 동문들이 많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어떤 경우는 각각 주류사회에 들어간 후애야 동문임을 알아내는 경우도 있다.

8. 장학위원회'와 '나눔위원회'에 대한 의견

미주 전역을 잘 연결해서 물질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또는 경험에서 오는 정보들을 동문들이 잘 나눌 수 있는 도구가 되었으면 한다. 지금까지 많은 정보들이 난무할 때, 동문 간의 정확한 정보교환은 다른 어떤 곳에서 얻는 정보보다 확실하고 유용도가 높도록, 검증되면



임원진: 2016.7.1-2017.6.30

제38대 회장:	김도명(농대70 917-207-5949)
이사장:	김광호(문리62 917-207-5949)
수석부회장:	이대영(문리64 917-207-5949)
감사:	김창수(약대64 917-647-0600)
감사:	한경수(문리57 516-859-2211)
사무총장:	김기택(수리81 201-543-1077)
총무:	조민형(음대83 201-674-1115)
IT 위원장:	김원영(미대81 917-854-8588)
관악연대 회장:	이명지(자연00 646-522-1180)

단과대학 동창회 회장

간호대	강교숙 (73)	(917)494-0700
공과대	김정필 (71)	(201)965-7759
농과대	김도명 (70)	(917)207-5949
문리대	손병우 (69)	(732)421-3595
미술대	권문용 (61)	(973)600-0834
법과대	김영휘 (80)	(201)556-8636
사범대	조달훈 (66)	(718)224-6284
상과대	이원재 (79)	(914)552-1355
생과대	최선자 (70)	(732)494-8321
수의대	정영기 (81)	(718)321-9123
약학대	손진태 (67)	(516)467-9938
음악대	조경애 (64)	(646)713-8865
외과대	함민우 (69)	(551)996-4990
치과대	조환형 (65)	(718)463-0253
대학원	송몽길 (69)	(516)496-7887

뉴욕지역 동창회 역대회장 및 이사장

제1대 회장	최상홍(경성제대)	제23대 회장	한창섭(문리)
제2대 회장	박승서(의대)	제24대 회장	이사항 추재욱(의대)
제3대 회장	이범선(상대)	제25대 회장	이사항 노홍연(의대)
제4대 회장	진형수(문리)	제26대 회장	이사항 양준우(법대)
제5대 회장	김병술(약대)	제27대 회장	이사항 김명민(상대)
제6대 회장	현종건(음대)	제28대 회장	이사항 이준행(공대)
제7대 회장	김정훈(공대)	제29대 회장	이사항 김세종(공대)
제8대 회장	이준행(사대)	제30대 회장	이사항 박성준(약대)
제9대 회장	김기용(치대)	제31대 회장	이사항 한경수(문리)
제10대 회장	김연식(음대)	제32대 회장	이사항 에드워드강(사대)
제11대 회장	노종연(의대)	제33대 회장	이사항 김명민(상대)
제12대 회장	진봉일(공대)	제34대 회장	이사항 김창수(공대)
제13대 회장	오민근(의대)	제35대 회장	이사항 박성준(약대)
제14대 회장	이진구(농대)	제36대 회장	이사항 최수용(의대)
제15대 회장	이문희(문리)	제37대 회장	이사항 민준희(공대)
제16대 회장	오인석(법대)	제38대 회장	이사항 김도명(문리)
제17대 회장	권태전(사대)		
제18대 회장	최수용(상대)		
제19대 회장	이문희(문리)		
제20대 회장	윤정옥(의대)		
제21대 회장	김영덕(공대)		
제22대 회장	최정훈(농대)		

서 높은 가치를 창출해 내는 위원회가 되었으면 한다.

9. 기타, 하고 싶은 말

미주동문들도 다른 미국의 대학동문들과 같이 모교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동창회를 통한 결속력을 보여주었으면 하고 평의원회의의 같이 미 전역의 동문들의 모임이 좀더 활성화되었으면 한다.
 글: 허유선(가정대 83) 편집위원



〈특집〉

아, 청춘!



장석정(법대 68)

공부하지 못한 청춘

1968년에 법대에 입학하여 “남들도 의례 그러듯이” 4년 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졸업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 보면 ‘명문대’를 다녔다는 사실이 무색하고 창피하고 부끄러울 정도로 많이 공부하지도 않았고 배워지도 못 했던 것 같다. 4년 내내 군사정권의 장기집권 회복을 반대하고 성토하는 학생시위로 동송동 캠퍼스 주변은 조용할 날이 거의 없었다. ‘공부하지 못한’ 청춘을 보낸 필경자다.

이유는 또 있다. 사정이 넉넉지 않아 학비와 용돈을 벌려고 4년 내내 초중고생들을 개인지도하는 가정교사 노릇을 했다는 것도 그 중의 하나다. 하지만 내가 공부하지 않은 청춘을 보냈던 가장 큰 이유는 대학시절 친구들끼리 밴드 그룹을 만들어 활동했기 때문이다.

같은 고교를 졸업하고 서울대에 입학한 친구들이 모여서 ‘오뤼어스(Orpheus, 오르페우스)’라는 이름으로 밴드를 조직했다. 당시 대학생들의 음악활동이 아주 활발하지는 않았지만 기타와 드럼으로 구성된 4-5인조의 보컬그룹들이 생기기 시작할 때였다. 그런데 우리 그룹은 기타, 드럼에 색서폰, 클라리넷, 트럼펫, 그리고 트럼펫 등으로 구성된 당시로서는 드문 모습이였다. 공대생 4, 문리대생 1, 의대생 1, 법대생 1명으로 된 우리 그룹은 따라서 노래보다는 연주 중심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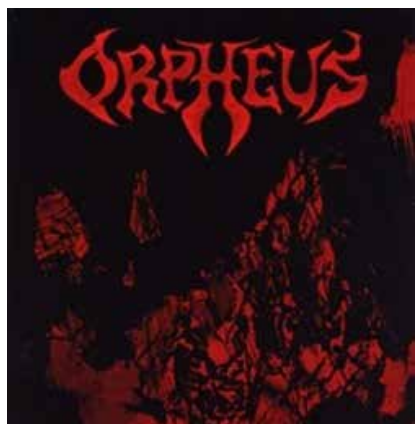
거의 반세기 전이다 보니 여러가지로 열악한 환경이었다. 모여서 연습할 마땅한 장소도 구하기 어려웠고 우리 그룹에 맞는 적당한 악보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몇가지 악기는 빌어다가 연습할 형편이었고, 그래도 젊음이라는 패기 하나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연습하고 이곳 저곳을 다니면서 신나게, 재밌게 밴드활동을 했다.

불암제, 학림제, 흥릉제, 낙산제 등, 서울대 단과대학의 축제는 물론이고 다른 대학들의 축제에도 가서 연주하고, 두둑하지는 않았지만 차비와 점심값을 받을 정도의 사례비를 받는 재미도 있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그 때 자주 연주했던 노래들, 가령 Besame Mucho, Taste of Honey, California, Dreamin', Magnificent Seven, Somewhere My Love, Raindrops Keep Falling on My Head 같은 노래들을 듣게

되면 그 때의 추억, 회상, 향수, 흐릿함에 사로잡힌다.

우리 그룹은 결국 그 당시 처음 열렸던 (대학가요제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생 음악경연대회에 나가게 되었다. 지금의 세종문화회관인 시민회관의 당시 국내 유일했던 회전무대에 서게 된 우리 오뤼어스 그룹은 그 대회에서 수상하는 자람을 얻게 되었다. 오뤼어스가 그의 음악으로 만물을 감동시켰다는 신화의 얘기처럼, 우리 오뤼어스 그룹이 그 날 모인 청춘들을 감동시켜 수상하게 했다는 얘기는 나에게 있는 범하지 않은 그러나 멋진 개인적인 신화로 남게 되었다.

그 후 우리들은 교수, 의사, 사업가 등이



되여 각자의 커리어를 갖게 되었으나 (한 사람은 이미 고인이 되었고), 지금도 만나기만 하면 그 때의 얘기로 꽃을 피운다. 돌아다니며 나팔만 불다가 ‘공부하지 않은’ 청춘을 보냈으니 남은 평생 계속 배우고 살라는 의미에서 나도 교수를 직업으로 갖게 되었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후회는 없다. 분명한 것은 당시 오뤼어스 그룹 활동이 나의 청춘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했다는 것이다.

그 때 공부 안 하고 나팔 번 덕분에 나는 지금도 이 곳 “마을밴드 (community band)”의 멤버로 활동하고 있다. 남녀노소, 직업에 관계없이 모인 아마추어 미국인 음악친구들과 함께 지난 30년 이상을 연주하고 있다. 그 옛날 소용돌이 속에서 ‘공부하지 않은 청춘’을 보냈던 것은 나에게 단지 하나의 흐릿한 추억거리나 신화같은 얘기라면 남은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큰 자산 중의 하나가 된 것이다.

(일리노이주립대 교수, 경영학)



김정현(공대 68)

1969년 7월 20일 인간이 달에 발을 디뎠다. 대학 2학년이던 우리는 교회 우이동 수양관에서 티비로 경중 경중 뛰듯이 걷는 Neil Armstrong을 숨죽이고 바라보다 벽차오르는 감동에 환호성을 질렀다. 그 여름 8월에는 뉴욕 Woodstock에 수십만의 청춘들이 모여 월남전 반대, 평화와 사랑을 노래했다. 그 수양회에서 만난 한 이대생과 산을 내려와 100일간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만나는 열병에 빠졌다. 공대와 이대는 서울의 동쪽끝과 서쪽끝인데.. 그리고 헤어지고 나는 후유증을 가슴으로 알았다. 사람이 그렇게 아픈 건지 몰랐으니까. 그해 가을 3선개헌을 반대하며 역사상 최초로 데모에 나선다는 공대대모대에 합세해 중앙교까지 걸어가곤 했다. 그리고 경찰군봉에 맞아 부서지고, 쫓기다 찢어지고.. 1년 전 암살당한 마틴루터킹 목사가 부르던 ‘We shall overcome’을 우리는 그 여름, 가을, 겨울, 소리높여 부르고 있었다. 그 겨울의 초입에 동네 구멍가게집 꼬보아들 순둥이가 월남전에서 한줌의 재로 돌아왔다.

그러면서 한편 우리는 ‘로얄리, Royal!’ 라는 이름의 singing group에서 노래를 불렀다. 멤버는 영락교회 대학생 성가대인 ‘호산나!’ 멤버들 10여명이었다. 통기타를 둘러메고 Woodstock 으로부터 들려오던 평화와 사랑의 노래들을 불렀다. 매주일 새벽 6시에 동대문에 있는 이대부속병원에서 6층부터 1층으로 내려오며 홀한 가운데 위치한 Nurse station 앞에서 고요한 아침을 알리는 찬송가를 두 곡씩 부르곤 했다. 환자들도, 간호사들도 함께 찬송하는 즐거운 아침 시간. 그리고 교회로 가서 9시 예배를 위한 찬양연습을 했다. 멤버들 중에 명동 ‘0B케빈’ 밤무대 솔로를 하는 형도 있었고, 후에 음대교수로, 또 지휘자로 이름을 날린 형도 있었고, 훗날 마흔다섯에 하늘나라로 간 내 절친 수의과 친구 정광명도 있었다. 동요, 가요, 유행가, 팝송, 포크송, 성가, 노래라던 다들 한가닥 하는 친구들이었다. 헨델의 메시아 합창곡들을 악보없이 4부로 합창할 수 있었으니까.. 77년에 시작한 대학가요제가 그 당시 있었다면 우리는 서슴치 않고 출전했을테고... 그 겨울 성탄절 이브에 우리는 명동으로 나가, 캐롤을 불렀다. 미도파백화점, 코스모스백화점, 국립극장, 명동성당 앞에서 부르는 캐롤이 거리에 쏟아져 나온 수많은 인파가 우리를 둘러싸고 함께 캐롤을 부르고 있었다.

크리스마스가 지나면서 우리는 영등포 구로동으로 발길을 옮겼다. 새마을운동,

한 뒤 ‘통과’라고 해야 다음 화장실로 간다. 그런데 매우 까탈스러웠다. 여기를 더 닦아라, 저 곳에는 아직도 때 낀 것이 있지 않느냐, 거미줄도 거뒀어야 하고, 어디에선가 악취가 난다...그러면서 잘 통과시키지 않았다. 목사 후보생인 나는 자존심이 무척 상했다. 백인이라 그 피부만큼이나 깨끗해야 통과시키는 거냐고 항변하고도 싶었다.

어쨌거나 여러 번 청소하는 동안 점차 속달이 되어갔다. 한 달이나 지났을까. 청

산업화의 역군, 공돌이 공순이로 불리던 그들의 삶은 처절했다.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 한평 남짓한 방에 대여섯명이 모여 사는 그들. 너댓명이 갑작(공간이 없어서 바로눕지 못하고 모로 누워 자는 잠)을 자야 하고, 한명은 방 앞의 50센치폭의 쪽마루에서 잠을 자야 하는 생활. 집 하나에 칸을 막아 만든 쪽방들. 쪽마루 아래 아궁이 들로부터 나오는 연탄냄새가 지독해 숨쉬기도 힘든 그런 방, 방, 방들. 그건 지방에서 갓 올라와 하룻밤 잠자리에 10원, 한끼에 10원을 내고 하루 두끼를 먹을 수 있는 근로자 숙소보다도 형편이 좋지 못했다. 연탄냄새 없는 그 근로자 숙소는 두달 밖에 머물지 못하니깐. 그들의 저나라한 삶의 모습을 취재하고 인터뷰했다.



겨울비 주룩주룩 내리는데, ‘쉬다가세요’ 자그마하게 들려오는 소리에 고개를 돌려보니 희미한 빛속으로 색바랜 분홍빛 우산속 그녀의 눈동자가 말을 하고 있었다. 수많은 말을 눈동자로. 공장에서 일하다, 좀 더 쉬운 일자리, 술집으로, 그리고 결국 거리의 여자로 밀려난 산업화의 역군 여전사들. 그들의 삶을 취재하고 인터뷰했다.

그리고 통계를 내고 그 결과를 돌아일보를 통해 세상에 알렸다. 한달 남짓 동안 삼시세끼를 라면으로 때웠다. 삼양라면, 통아나디나 들어와 보면 난로 위에서 퐁퐁 불어 찜기라궁기가 된 라면가라들을 국물도 없이 삼켰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게 뭔지, 사회정의가 뭔지를 말씀으로, 이론으로, 체험으로, 가슴으로 배웠다.

최근 미주동창회 편집위원으로 만난 동문 15년 후배가 바로 이 호산나 성가대 출신이고, ‘로얄리’ 노래팀을 알고 있다고 하니, 시간은 빨리도 흐르고 세상 참 좁구나. 아, 그리운 청춘의 친구들이!

소 전문가 수준이라는 칭찬을 받았다. 그러면서 한 마디 덧붙혔다. “학생은 앞으로 좋은 목회자 될 것 같아요. 목회는 영혼청소니까요.” 서당 개도 삼년이면 풍월을 한다는 격 같기도 했다.

그러나 ‘목회는 바로 화장실 청소’라는 그 노인집사의 한 마디 어둠은 지금까지 여느 교수에게서 배운 목회론보다 더 값이 높았다. 인간은 원래 온갖 종류의 오물통 아닌가. 인류문명의 이기적더러운 찌꺼기들도 깨끗하게 벗겨내야 하겠다.

〈특집〉

아, 청춘!



박취서(약대 60)

1962년 봄 대학 3학년 시절 UF 회라는 대학 club모임의 회장직을 맡아 클럽활동의 일환으로 문리대에 미국장로교 선교재단에서 교환학생으로 선발되어 온 한 여학생을 매주 초빙해서 新約聖經을 중심으로 Bible study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알게된 이 연상의 여인을 자연스럽게 만나 date하게 되었다. 거의 1년반 동안 대학 캠퍼스, 거울거리, 남산, 신촌 그리고 서울농대 캠퍼스가 있는 수원의 딸기밭등을 같이 다니면서 차츰 스스롭없이 가까이 가게 되었고 내가 1년 임기의 회장직을 그만두고 그녀가 한국을 떠나던 1963년 여름에 드디어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나의 심정을 고백하기에 이르렀는데, 그녀는 놀라움게도 지금 자기는 約婚한 사이고, 곧 결혼할 것이며 남편이 될 사람은 光化學을 전공해서 곧 박사학위를 끝내고 대학교수가 될 것이라면서 나를 애인으로서는 받아들 수 없으니 나의 누님이 되어 주겠다는 말을 하면서 婉曲하게 나의 求愛를 거절하는 것이었다. 닭 쫓던 개가 지붕위로 올라간 닭을 쳐다보면서 안타까워 하는 심정으로 나를 남동생으로만 받아주겠다는 그녀의 말에 나는 망연자실 망치며 두통수를 얻어맞는 듯한 비통한 심정으로 할 말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Goethe가 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 나오는 여주인공 롯데처럼 나는 그녀를 사랑할 수 없다는 절망감에 빠져들면서 어쩔수 없이 이 연상의 異國女人에 執着, 나 혼자만이 짝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되면서 괴로워하기 시작하였다. 불개에서 말하는 求不得苦의 괴로움이었다. 그녀가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누님과 동생으로써 秘苑에서 date를 하였는데, 그녀가 떠난 그해 가을부터 나는 극심한 精神의 脫盡狀態를 경험하면서 대학 졸업반

이런데, 앞에서 다온이 엄마가 편지를 줍니다.



하주홍(경영 77)

[미국에서 배운 교훈] 주차위반 딱지

어제 네브라스카 주의 수도 링컨에 다녀왔습니다. 링컨은 인구가 20만 명 정도 되는 전형적인 도시라고 할까요?

링컨의 네브라스카 주립대(UNL)에는 한국 유학생과 교환 교수가 꽤 많이 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링컨에서 한국 식품을 구할 수 있는 것도 이 분들 덕분이라고 할 수도 있지요. 이들이 없었다면 한국식품 시장도 생기기 않았을지 모르니까요.

토요일인 어제 오후 상완이의 합창 공연을 보러 링컨 주립대 캠퍼스 내의 공연장을 찾았습니다. 집에서 미리 주차 정보를 찾아 보니 방문객은 주차 미터기가 있는 곳에 차를 세우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공연장 부근의 도로변에 미터기가 설치된 주차 구역이 있길래 빈 곳을 찾아 차를 세웠습니다. 전에 일요일에는 주차비를 받지 않았던

의 나의 위치를 간신히 유지해가고 있었다. 1964년 2월 대학 졸업후 나는 미국留學을 목표로 서울대학교 대학원에 진학하였는데, 이는 학문을 해보겠다는 순수한 동기에서가 아니라, 내가 짝사랑하던 연상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남성이 박사학위를 끝낸 대학교수라는 사실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나의 내면에서의 한 남성으로써의 오기 때문이었는데, 나도 몇몇하게 미국으로 유학하여 藥劑學 분야에서 학위를 끝내고 대학교수가 되겠다는 일종의 짝사랑을 이루지 못한데 대한 분풀이와 보상심리에서였다.

이 純粹하지 못한 학문에 대한 비전과 고등학교 때부터 가지고 있던 농촌계몽을 해서 나라를 위해서 일해서 되겠다는 나의 理想이 충동하면서, 떠나간 짝사랑에 대한 그리움은 나의 모든 삶에 대한 희망을 비뚤어지게 되며, 떠나간 짝사랑에 대한 후회와 자괴감, 이러한 내 자신의 모습과 罪意識과 劣等感, 그녀를 더 이상 만나볼 수 없다는 失望감이 충동하면서 정신적인 恐慌과 脫盡狀態가 계속되었다.

1964년도 겨울 어느날 서울의대 근처 원서동 뒷골목에 있는 어느 술집에서 평소 애가 가까이 지내던 K라는 대학선배님과 술을 같이 하면서 나는 나의 짝사랑에 대한 獨白을 털어 놓았고, 그날밤 나에게 대한 그 선배님의 처방은 총각 딱지를 떼어버리라는 것이었으며, 醉中에 나는 그 선배님의 현실적인 충고를 받아들이기에 이르렀다. 그 선배님과 헤어진 후 나는 失戀한 사람처럼 서울거리를 헤매어 다니며 彷徨하다가 종로 3가의 어느 골목에 있는 私塾街에서 포주 아주머니의 말에 의하면 남원에서 갓 올라왔다는 아저 손님을 받지 않았다는 어느 젊은 창녀와 같이 하룻밤을 지새면서 짐승처럼 나의 육체적인 욕망을 충족하였다. 오랫동안 마음속에서 渴求해오던 지금은 누님이 되어 있는 그 여인을 갖고 싶었던 남성으로서의 libido를 육체적으로 풀어보려는

간간이었었는데, 그것은 하룻밤 육체적인 欲情의 분출이었을뿐 떠나가버린 그녀에 대한 그리움은 더해갈 갈 뿐이었다.

1965년 그녀가 없는 서울의 봄은 온통 회색빛이었다. 그 젊은 창녀와의 육체관계 이후 가슴으로 압박해오던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린듯한 상실감과 자괴감, 그리고 미국으로 떠나가 버린 그 연상의 여인을 더 이상 만나볼 수 없다는 현실적인 절망감이 나를 무기력하게 만들었고 무엇이 해보겠다는 삶의 희망을 잃어 버린 채 상사병에 시달리면서 하루하루 내 육신을 이끌어 가기가 너무나 힘들었다. 드디어 그해 봄학기에 휴학을 하고 부모님이 계시는 대전으로 귀향하였다.

이룰수 없는 짝사랑에 대한 열망과 고통, 23년 동안 고이 지켜온 나의 童貞을 한 창녀에게 내팽개쳐듯 잃어버린데 대한 후회와 자괴감, 이러한 내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역겨웁고 醜하게 개치듯 잃어버린데 대한 후회와 自愧感이 너무나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 이듬해 지금 남가주에 살고 계시는 同鄉友誼의 紹介로 형님의 妻孀을 만나서 연상의 여인을 향한 짝사랑의 紅痂를 4년만에 끝내고, 내 인생은 새로이 제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하였다.

짝사랑 때문에 나의 내면의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던 정신적 고통을 부모님께서는 感知하지 못한채 心身이 虛해져서 저러니 하고 걱정들만 하고 계셨다. 어느 날 새벽에는 환우를 입은 함석헌 선생의 모습이 幻視로 나타나면서 나를 꾸짖으시는등 나의 양심의 갈등은 계속되었고, 짝사랑 때문에 겪고 있는 激烈한 growing pains! 그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하소연 할 수 없는 오직 하느님만이 아시는

나 혼자만의 가슴앓이었다. 이를 수 없는 사랑, 그리고 強烈한 육체적인 욕망을 다스리지 못한데 대한 죄의식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짓눌리면서 드디어 나는 무소救世主나 된 것처럼 “Out of the World War II, A New World must be born.” 등의 誇大妄想的인 헛소리를 하기 시작하였다. 극심한 심리적 갈등에서 벗어나 보려는 내 나름대로의 몸부림이었다.

이렇게 1965년의 봄과 여름은 나에게 가장 건디기 어려웠던 어둡고 길다란 하나의 인생 tunnel 이었다. 1965년 가을 학기에 다시 등록하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Dr. Lee 라는 精神科 醫師를 만나 相談을 하고 의사가 처방한 우울증 약을 복용하면서 대학원을 다시 다니기 시작하였고 고향에서는 장남인 나를 빨리 결혼시켜 안정시킨 후 藥局을 개업하도록 되면서 自由黨 시절 상공부 장관을 지냈다는 어느분의 편지를 만나 보기도 했으나 전혀 關心이 없었고, 우선 나는 대학원을 졸업한 후 美國留學을 目標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 이듬해 지금 남가주에 살고 계시는 同鄉友誼의 紹介로 형님의 妻孀을 만나서 연상의 여인을 향한 짝사랑의 紅痂를 4년만에 끝내고, 내 인생은 새로이 제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하였다.



“그러게 내 말을 안 듣더니...” “자기가 뭐라 그랬는데?” “만 차는 주차비 면제된 차들인지도 모른다고 했잖아.” “그런 게 어딨어? 시에서 운영하는 건데, 그나마 벌금이 싸서 다행이다.” “1, 2 볼 아끼려다 벌금 10불 내게 생겼네.” “젠장, 아까 그 여자는 도대체 왜 주차비를 안 내고 간 거야?”

속으로 혼자 투덜투덜 해 보지만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미국에서 모범 시민으로 살려고 마음 먹었는데 주차 위반을 하다니, 후회 막심입니다.

집에 와서 딱지를 꺼내 다시 봅니다. 15일 내에 벌금을 내지 않으면 사천 톤고 없이 차를 압류한다는 무시무시한 경고가 적혀 있습니다.잊어 버리기 전에 빨리 내 버려야 하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은행에 가서 내면 되는데, 여기서 벌금을 어떻게 내나?’

봉투에 안내문이 적혀 있습니다. 이 봉투에 수표를 넣어 우표를 붙여 우편으로 부치면 됩니다. 안내문을 좀 더 읽어 내려가다 보니 반가운 구절이 눈에 띄니다.

“야호, 우하하.” 옆에서 다온이 엄마가 의아해 합니다.

“왜 그래? 갑자기.” “히히, 벌금 안 내도 된다.” “왜?” “다른 카운티에서 온 방문자한테는 1년에 두 번 주차 위반을 봐 준대. 이렇게 너 그러울 수가.”

딱지를 받아 기분이 나빠졌던 게 일시에 사라지고 갑자기 링컨이 좋아집니다. 벌금 10불에 마음이 이렇게 간사하게 바뀌는군요. 다음에 다시 실수하지 않기 위해 인터넷으로 확인해 보니 주차 미터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용합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혹시 다른 차들은 벌금 면제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게 아닐까요? (2002-07-28)



[인터뷰]

책《아들아, 잠시 쉬었다 가도 괜찮아》의 저자

한정민(모니카 리) 동문과의 만남

워싱턴 가정상담소 소장이며 본 회보 편집위원인 한정민(모니카 리, 농가정교 87) 동문이 그동안의 상담경험을 '아들아, 잠시 쉬었다 가도 괜찮아' 책 한 권에 담아 펴냈다. 한 동문은 책 판매 수익금을 상담소를 위해 사용할 계획이다.

한정민 (농대 87)

1. 《아들아, 잠시 쉬었다 가도 괜찮아》를 집필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요?

워싱턴 지역 한인 신문에 2주에 한 번씩 상담관련 칼럼을 쓴지 5년이 되었다. 내가 쓴 칼럼이 LA나 뉴욕, 시애틀 등 다른 미주지역 신문이나 미국과 한국의 동창회보 등에 실리면서 여러분들이 책으로 출판되면 좋겠다는 격려와 바람들을 보내오곤 하셨다. 그러나 소장과 상담사를 겸임하며 풀타임으로 일을 하다보니 책을 엮을 시간적 여유를 얻지 못했다. 그러던 중 비영리 기관인 《워싱턴 가정상담소》의 올해 연례기념잔치를 앞두고 후원금 마련의 목적으로 올 봄에 책으로 엮게 되었다.

2. 가장 애착이 가는 부분이 있나요?

아무래도 나의 고민과 삶을 나누었던 칼럼들에게 많은 애정이 느껴진다. 책 제목으로 고른 《아들아, 잠시 쉬어도 괜찮아》처럼 매일의 삶 가운데서 흔들리고 갈등하며 힘든 시간을 보낼 때, 그 문제에 눌리거나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에게 상담사의 역할을 부여하며 눈앞의 산들을 하나씩 넘고나서 쓴 글들이 이 책에 담겨있다. 한발자국 떨어져서 새로운 시각과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스스로를 격려하고 지지하며, 때로는 넘어지는 다시 일어나려고 애쓰며 배운 깨달음과 힐링이 녹아진 글들을 사랑한다.

3. 비슷한 장르의 책들과는 다르게 이 책만이 가진 차별화된 특징이 있다면?

<상처의 주범은 좌절된 기대>

'상처'가 만연한 사회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상처'란 단어가 진짜 '상처'보다 더 넘쳐나는 듯 하다. 칠순이 넘은 한 지인이 "요즘은 왜 그렇게 상처란 말을 많이 쓰는지 모르겠네. 언짢은 말을 들어도 '상처받았다'하고 가족과 좀 언쟁해도 '상처받았다' 하고... 우리 자랄 때는 몸이 진짜 생채기가 나면 그걸 상처로 알았는데... 요즘 세대는 왜 그리 상처를 잘 받는지..."라고 말하는데 꽤 공감이가 한다.

혹자는 '세상이 점점 더 각박해지고 험해졌잖아. 생존경쟁이 심해져서 상처를 더 잘 받는 게 아닐까'라고 한다. 물론 부모나 배우자의 신체적, 정신적 학대, 또는 성폭행이나 사회의 차별과 편견 등으로 마음에 씻기 힘든 '진짜 상처'를 안고 사는 이들이 있다. 특히 어린 시절 겪은 트라우마가 오랜 시간 깊은 상처로 남아 상담을 받으며 치유해 가는 이들도 있다.

상담대학원에 다닐 때 자신의 상처를 해결하기 위해 상담 공부 후 '상처입은 치유자 (wounded healer)'의 삶을 사는 동료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었다. 잘 치유된 상처는 오히려 다른 이들의 아픔을 더 깊이 공감할 수 있는 귀한 재산임을

칼럼을 쓰면서 심리학 이론이 활자화된 이론으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적 어려움이나 심리적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관점과 시각을 불수 있게 도와주는 실천적인 방법을 제시하려고 고민하고 애썼다. 늘 보던 방식으로 보는게 아니라 내가 보지 못했던 관점으로 새롭게 바라보는 방법과, 크고 작은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오 늘 내가 지금,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인식시키고 구체적으로 오늘 실천할 수 있는 작은 팁을 드러려 했다.

4. 저자님은 평소 어떤 책을 즐겨 읽나요? 독자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책이나 영화, 노래가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부끄럽게도 풀타임으로 일한 후 예전처럼 책 읽을 시간을 잘 얻지 못한다. 아무래도 상담관련 서적과 헨리 나우웬 신부님의 영성에 관한 책과 범룬스님의 <죽문죽설>이 나를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을 많이 갖게 도와주었다. 몇 년 전부터는 인간의 복잡미묘한 심리가 이야기 속에 여러층으로 섬세하게 녹아진 김영하 작가와 공지영 작가의 소설 읽기를 즐겨한다. 상담사로서 꼭 권하고 싶은 책은 클라우드 & 타우센드 박사가 쓴 <No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란 바운더리에 관해 쓴 책이다. 거절을 못하는 착한사람 콤플렉스에 빠져서 피해를 입거나 우울함에 시달려 상담소를 찾는 많은 내담자들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될수 있도록 도

5. 독자들과 동문들에게 전하는 말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십시오.

힘을 잃은 채 정신없이 달려가던 삶을 잠시 멈추어 서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내가 바꿀수 없는 것을 바꾸려는데 마음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마음의 생각과 느낌에 귀를 기울이며, 작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서 '지금, 여기 (Here & Now)'를 사는 삶, 내가 진정 원하는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사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기를 소망한다.

6.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저는 심리상담사이니 작은 방에서 내담자들을 만나는 일,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일을 계속할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공립학교를 방문하여 미국에 사는 한인들에게 다양한 주제의 부모교육 세미나와 정신건강에 관한 세미나를 계속하길 원한다. 또한 10-15명으로 구성된 <건강한 바운더리 세우기>는 소그룹 워크샵과, 미국에서 자녀들을 키우며 어려움과 고민이 있을 때 묻고 배울 수 있는 부모교육 나눔의 장도 정기적으로 갖고 싶다. 지금 버지니아 워싱턴대학에서 학부생들에게 상담강의를 하고 있는데, 라이선스를 가진 상담사로서 상담에 관심있는 학생들에게 수퍼비전을 제공하며 잘 훈련된 한인 상담사가 미 지역에 더 많아지도록 할 수 있는 노력을 하고 싶다.

좋은 노래는 삶이 어느곳에서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듯... 요즘 빠진 노래는 하현우의 <걱정말아요 그대>.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함께 노래 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꾸었다 말해요" 마음이 힘들 때 으면 큰 위로가 전해진다.

좋아하는 노래는 삶이 어느곳에서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듯... 요즘 빠진 노래는 하현우의 <걱정말아요 그대>.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함께 노래 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꾸었다 말해요" 마음이 힘들 때 으면 큰 위로가 전해진다.

와주는 책이다. 필자가 살고있는 버지니아의 정신과의사의 이야기를 다룬 <패치 아담스> <뷰티풀 마인드> <언브로큰>처럼 인간애와 감동이 넘치는 영화와 힐링과 해방의 메시지가 다뤄진 <쇼생크 탈출> <죽은 시인의 사회> 등의 영화를 좋아한다. 최근 인상 깊게 본 영화는 OS와 깊은 교감을 하는 <Her 그녀>과 작년 아카데미 최고의 영화로 뽑힌 <문라이트>를 흥미롭게 봤다.

좋아하는 노래는 삶이 어느곳에서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듯... 요즘 빠진 노래는 하현우의 <걱정말아요 그대>.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함께 노래 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꾸었다 말해요" 마음이 힘들 때 으면 큰 위로가 전해진다.

7. 독자들과 동문들에게 전하는 말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십시오.

힘을 잃은 채 정신없이 달려가던 삶을 잠시 멈추어 서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내가 바꿀수 없는 것을 바꾸려는데 마음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마음의 생각과 느낌에 귀를 기울이며, 작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서 '지금, 여기 (Here & Now)'를 사는 삶, 내가 진정 원하는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사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기를 소망한다.

8.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저는 심리상담사이니 작은 방에서 내담자들을 만나는 일,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일을 계속할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공립학교를 방문하여 미국에 사는 한인들에게 다양한 주제의 부모교육 세미나와 정신건강에 관한 세미나를 계속하길 원한다. 또한 10-15명으로 구성된 <건강한 바운더리 세우기>는 소그룹 워크샵과, 미국에서 자녀들을 키우며 어려움과 고민이 있을 때 묻고 배울 수 있는 부모교육 나눔의 장도 정기적으로 갖고 싶다. 지금 버지니아 워싱턴대학에서 학부생들에게 상담강의를 하고 있는데, 라이선스를 가진 상담사로서 상담에 관심있는 학생들에게 수퍼비전을 제공하며 잘 훈련된 한인 상담사가 미 지역에 더 많아지도록 할 수 있는 노력을 하고 싶다.

9.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좋은 노래는 삶이 어느곳에서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듯... 요즘 빠진 노래는 하현우의 <걱정말아요 그대>.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함께 노래 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꾸었다 말해요" 마음이 힘들 때 으면 큰 위로가 전해진다.

좋아하는 노래는 삶이 어느곳에서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듯... 요즘 빠진 노래는 하현우의 <걱정말아요 그대>.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함께 노래 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꾸었다 말해요" 마음이 힘들 때 으면 큰 위로가 전해진다.

4년전 오인환 회장님을 도와 총무국장으로서 일하며 처음 미주 동창회에 발을 들여놓았다. 대부분 50-70년대 학번의 하늘같은 선배님들이 주류인 동창회에서 까마득한 후배가 삶의 깨달음과 성장을 글로 쓰고 책까지 낸다는 것이 송구스럽다. 다만 심리상담사란 옷을 입고 그 렌즈를 통해 바라본 삶을 나눈 글이 누군가의 관점을 바꿔서 오늘 하루 행복해질 수 있으면 감사하겠다.

6.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저는 심리상담사이니 작은 방에서 내담자들을 만나는 일,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일을 계속할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공립학교를 방문하여 미국에 사는 한인들에게 다양한 주제의 부모교육 세미나와 정신건강에 관한 세미나를 계속하길 원한다. 또한 10-15명으로 구성된 <건강한 바운더리 세우기>는 소그룹 워크샵과, 미국에서 자녀들을 키우며 어려움과 고민이 있을 때 묻고 배울 수 있는 부모교육 나눔의 장도 정기적으로 갖고 싶다. 지금 버지니아 워싱턴대학에서 학부생들에게 상담강의를 하고 있는데, 라이선스를 가진 상담사로서 상담에 관심있는 학생들에게 수퍼비전을 제공하며 잘 훈련된 한인 상담사가 미 지역에 더 많아지도록 할 수 있는 노력을 하고 싶다.

좋은 노래는 삶이 어느곳에서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듯... 요즘 빠진 노래는 하현우의 <걱정말아요 그대>.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함께 노래 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꾸었다 말해요" 마음이 힘들 때 으면 큰 위로가 전해진다.

7. 독자들과 동문들에게 전하는 말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십시오.

힘을 잃은 채 정신없이 달려가던 삶을 잠시 멈추어 서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내가 바꿀수 없는 것을 바꾸려는데 마음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마음의 생각과 느낌에 귀를 기울이며, 작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서 '지금, 여기 (Here & Now)'를 사는 삶, 내가 진정 원하는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사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기를 소망한다.



삶은 나와 남을 계속 비교하게 만든다. 누가 생일에 무슨 선물을 받았는지, 휴가 중에 어느 곳으로 여행을 갔는지, 또는 아이가 어느 학교에 합격했는지 등이 내 안에 어느새 기대를 심는다.

또한 드라마와 영화의 주인공들 또한 우리가 비현실적인 기대를 세우는데 일조한다. 매너 좋고 돈도 잘 벌고 거기에 잘 생기기까지 한 남자 주인공, 살림 잘하고 자녀 교육에 천부적이며 경제적 능력이자 갖춘 미모의 여주인공. 놀면서도 공부 잘 하는 엄친아. 그들로 인해 내 안에 만들어진 '자녀와 배우자의 이상형'이 혹시 나의 가족들에게 투사된 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같은 이야기를 들어도 저는 남보다 더 쉽게 마음의 상처를 받아오'라고 느낀다면 오늘은 '나의 상처 리스트'를 한 번 작성해보자. 나의 상처의 주범이 혹시 좌절된 나의 기대 때문은 아닌지 점검해 보길 바란다.

한정민



이영선(공대 52)

동창회보가 찾아준 인연

미주동창회 사무실이 남편(서재진: 공대 47)과 내가(이영선: 공대 52) 사는 Philadelphia에 있어서 동창회일로 수고하시는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작년 7월 석양이 드리운 늦은 시간에 사무실에 들렀다. 손 회장님과 김정현 편집위원장 그리고 허유선 및 이성숙 편집위원은 신문 편집에 열중하고 계셨다.

우리를 반갑게 맞아 주시면서 다음회보에는 “보고싶다. 친구야” 라는 Theme으로 원고를 모집중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해방전(1940년경) 한직 건너 열집에 살면서 매일의 생활을 함께 한 친구 루시(Lucy)의 생각으로 마음이 설레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서 짧게 간추린 Lucy의 이야기가 2016년 8월 회보에 실렸다. 동창회보가 배부된지 얼마 되지않아 송성균(공대 50) 선배님의 편지를 받았다.

내가 쓴 친구와의 이야기에서 내가 다닌 미동국민학교를 선배님도 졸업하고 같은 공과 대학 4년을 다니는 동안 혹시라도 스쳐 지나간 옛이야기라도 나눌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글을 띄웠다고 하셨다.

옆에 있던 남편에게 내가 쓴 친구의 이야기를 읽으신 선배님의 편지라는 말이 떨어지자마자 “당신이 여자인 줄 알고 쓰셨다?” 해서 나도 궁금하다고 하며 함께 웃었다. 남편이 먼저 송선배님께 전화를 해서 나하고 이야기하게 하기로 했다.

송 선배님은 전화로 “송 후배님”하고 부를 때 바로 서 선배님인 줄 알았다고 하셨다. 본인에게 “후배라고 부를 분은 서 선배님 한 분이시니까요”라고 하셨다.

두서없이 전해진 친구의 배경은 한 개인의 운명이었지만, 나는 한일합병으로 나라가 겪는 비운의 영향을 많이

시작

받은 집안에서 자랐다.

Lucy는 MINING ENGINEER 로 동남아 지역의 광산에 출장 다니느라 마흔이 넘도록 노총각이었던 미국인 아버지와 나이 어린 예쁘장한 시골처녀일 때 그를 만나 결혼한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2남 3녀중 막내였다. Lucy 어머니는 간단한 한국어말로 남편과 대화를 나누었지만 남편의 극진한 사랑을 받았던 것 같다. Lucy네는 2차 대전이 한창일 때 일제 총독부 고관에게 살던 큰집을 빼앗기고 아현동으로 이사하여 거기서 아버지가 해방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다. Lucy와 어머니는 2차대전이 끝나고 6.25전 한국에 남아 있던 오빠와 언니 Alice와 함께 전쟁으로 먼저 미국에 와 있던 큰 언니 Edua (큰 오빠는 2차전때 미해군장교로 전사)의 초청으로 온 가족이 아버지의 나라, 미국에 정착하게 되었다.

한편, 나의 어머니는 만주를 거쳐 러시아에 있는 VLADIVOSTOK로 일제시대에 명망한 외가의 외팔딸인 VLADIVOSTOK(RUSSIA)에서 영국계 INTERNATIONAL SCHOOL에 다녔다. 한국어, 영어 러시아어, 일본어가 유창해 Lucy와 나에게 영어도 가르쳐 주셨다. 나의 아버지는 타고나신 교육자로 대학에서는 명강의로 이름난 교수였고, 교회에서는 장로로서 목사님의 주일설교를 대신해 설교도 잘 하셨다. 집에서는 어머니를 무척 아끼셨고, 우리와도 많은 대화를 나누셨다. 믿음은 물려주는 것이 아니니 너희 스스로가 구해야 하며 성경 바로 읽기에 힘쓰라고 가르치셨다.

1878년생인 나의 친할머니는 미국 북加里교회에서 한국에 전도사로 파견된 Miss Katie Cooper의 전도로 성령학교를 졸업하고 정동교회 전도사로 매일 전도하러 다니셨다. 나는 유아세례를 받은 정동교회에서 다섯살이 되어 신식 결혼식을 하는 교인들의 Flower Girl로 또 어린이 찬양대원으로 성장절에는 많은



가정 상담을 하는 한 후배의 글을 읽고

<한정민: 상처의 주범은 좌절된 기대>



박평일 (농대 69)

실과 있어야 할 것, 해야 할 것, 현재와 관념과 기대 간의 겹에서 비롯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같으면 나면 두려움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당장 물을 마시고나면 그 두려움은 자동적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두려움은 실제가 없는 허상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예수는 내일을 걱정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현실에 감사하라고 하셨고 불가에서는 삶을 소유하려고 하지 말고 풍성히 존재하라고 하지요.

더 쉬운 말로 하자면 길을 때 걷고 서 있을 때 서 있으면 모든 두려움이 스스로 사라지게 됩니다.

나도 아내 케를과 드라마를 보다가 가끔씩 다투곤 합니다. 드라마와 현실 간이 겹을 이해하지 못한 케를의 일시적 착각 때문입니다.

“다른 부부들은 저렇게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우리는 뭘 짓을 하고 있는가?” 하는 비교심리에서 비롯되지요.

내 개인적인 이해입니다만 신은 우주를 결코 평등하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존재마다 독특한 모습으로 공평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이 똑같은 존재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존재의 독특함’, 그게 바로 창조의 신비이고 위대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 대중화되고 나서 좋은 말들이 지나치게 범람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나도 지인들로부터 하루에도 수십통씩 ‘피

<p>네 안에는 언제나 새파랗기 시작만이 있다 언제나 새로워서 새롭게 되어서 블랜더 안에서처럼 아, 블랜더 안에서처럼</p> <p>세상의 마음 미움으로 마비되고 딱딱한 것들 한 몸이 되듯</p> <p>참! 너와 내가 한 몸으로 분해되듯 시퍼렇게 시퍼렇게 예상로운 생명이 되어 온갖 검은 재료들 하얀 거품을 세우고</p> <p>더욱 깊은 사막 끝으로 달려서 가드라도 검고 새하얀 것들이 온갖 색으로 변신하듯</p> <p>너와 내가 아니, 모든 사람들 다시 시작으로 즐겁게 돌아갔으면</p> <p>아니, 참! 돌아갈 수 없을까.</p> <p>광상희(문리대 52)</p>
--

Program에 참가했다.

송선배님은 내가 다닌 미동국민학교를 나왔고, 서울 공대도 비슷한 시기에 4년이나 같이 다녔으며, 정동교회에서 7년간 찬양대원이셨다니 우리의 만남이 신기하게만 생각되었다. 남편과 나는 순탄하고 행복한 60년을 눈깜짝하는 사이 같이 보였고, 이제는 장수한 노인에 속하게 되었다는 생각이 이르니 감사할 뿐이다.

많은 분들의 노고로 동창회보는 건실하게 자랐고, 동창 한 분, 한 분의 글 나눔에 앞장을 서서 몹시 기다리지는 회보가 되었다. 순회장님 그리고 편집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9.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좋은 '말' 들을 이빨을 통해서 받아보고 있습니다. 나는 그런 현상을 긍정적으로만 보질 않습니다. 행복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행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남으로부터 빌려온 지식들의 양이 머릿속에 더 많이 축적되어 살수록 현실과 관념간의 겹은 더 깊어지게 됩니다. 그에 따라 불행의 양도 그만큼 더 늘어나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오래전 한때 한국에서 유명했던 행복전도사 부부가 자살한 사건이 그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사랑, 행복까지교육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서구인들의 이리 스토텔레스식 이분법적 논리적 사고입니다. 세상은 흑백적 논리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총천연색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상징인 무지개만 해도 일곱가지 색 조화 때문에 그렇게 아름답습니다.

벗이여! 아무런 선입견이나 생각이 없는 무념의 상태로 존재들을 있는 그대로 깊게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문제를 알아차리게 되고, 알아차리게 되면 문제들은 스스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메일을 보내고 있는 가까운 친구들에게 그런 부질없는 머리 공부는 이제 그만하고 가슴이 풍하는대로 그냥 살라고 권하곤 합니다.

내가 정작 듣고 싶은 것은 컴퓨터의 무감각한 목소리가 아니라 체험과 가슴에서



오늘의 나를 있게 한 한마디 말 ‘그 사람의 몫까지’

나는 영화를 무척 좋아해 일찍이 중학교 때부터 미학을 전공해 영화평론가가 되리라고 마음먹었다. 고3 때 입시시험을 치른 후 미학을 하겠다고 하는 내게 담임선생님은 ‘너는 법이나 경제, 경영을 해이지 인문학은 안된다’고 극구반대하셨다. 고집을 꺾지 않고 미학과를 택했지만, 막상 대학에 와 적성에 안맞아 패션 디자인에서 법, 경제학 등 이것저것 해 보다가 경제, 특히 국제금융과 금융 공학에 관심이 있는 나 자신을 알게 되었다.

회계사가 되리라는 생각은 없이, 단기간에 금융공부를 하기 위한 과정으로 회계사 시험을 보았다. 대학원에서 국제금융 한 학기를 마칠 무렵 회계사 시험 합격통지를 받았다. 시험에 합격한 후 회계학과 이장우 교수님께 인사하러 갔을 때, 교수님께선 내게 ‘어느 회계법인에서 연수를 받을 것이냐’고 물으셨다. 대학원에서 국제금융을 마친 후 미국으로 유학 가 공부를 더 하고 월가에서 일하리라고 생각하고 있던 나는 연수를 받지 않겠다고 하였다. 그러자 교수님은 일장 훈계와 회의를 시작하셨다. “내가 시험에 붙음으로 수년간 준비한 어

느 한 청년이 떨어졌을 것이다. 그 사람의 몫까지 내가 열심히 배우고 일해 이 사회에 공헌해야지! ... 회계나 세무 하면 지루하다고 생각하지만, 회계는 전 세계 공용언어고 기업이 망해도 마지막까지 일할 수 있는 자리가 회계란다. 너는 능력 있는 여성이니 분명히 능력 있는 남자를 만나 결혼하게 될 거고, 그러면 요즘 세상엔 세계 어느 곳에 가서 살게 될지 모르는데 회계만큼 더 좋은 분야가 없단다.”

그리고는 바로 그 자리에서 교수님의 친구분인 삼일회계법인의 한 파트너에게 전화를 거셨다. ‘내 제자를 내게 보낼 테니 혹독하게 일하게 해주세요. 당부를 남기셨다. 1994년 가을, 그렇게 나는 회계사의 길로 들어섰다. 그 이듬해 여름 한 남자를 만났다. 군복무 대신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사roi이 해외 여행을 할 수 없어 신혼여행도 국내로 가야 하는 사람이었다. 교수님이 선견지명이 있으셨는지, 그는 결혼한 지 삼 년 후 군 의무기

간을 마치고 바로 미국으로 일하러 나오게 되었고, 그 몇 년간 회계사로 일해오던 나는 미국으로 나오는 해 미국 회계사 시험을 치르게 되었다.

하지만, 미국 회계사 자격증이 있어도 남편의 배우자 비자 (H-4)로는 미국에서 일할 수 없게 되어 있었다. 천만다행으로 남편의 회사가 합병되어, 1년 만에 텍사스에서 이곳 DC 근처 북버지니아로 옮겨오게 되었고, 얼마 후 UN 산하 국제기구인 세계은행에서 공고한 구인 광고를 보게 되었다. 국제금융에 지식이 있고 회계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찾고 있었다. 국제기구인이라 외교관에 준하는 특별비자를 내주어, 2001년 5월부터 나는 일을 시작하였다.

23년 전 나의 인생의 길을 바꾸었던 교수님은 당시 지금의 내 나이 정도이었던 걸로 기억한다. 교수님은 내가 '99년 미국으로 떠나올 때도 지혜의 말씀을 나눠주셨고, 이후 한국을 방문해 찾아볼 때마다 따스하게 맞아주셨다. 하지만, 한 번도 제대로 교수님이 내게 주신 말씀에 대한 인사를 드리지 못했다. '나의 삶이 단지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몫까지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깨우쳐주신 교수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이렇게나마 전합니다.



등 굽은 어머니

낙타등처럼 휘인 엄마의 등에
공주가 되었다

엄마의 등에 앉으면
신호등이 켜졌다

나의 무게로
힘이 빠져 갔지만
내가 얹히는 날엔 엄마는
날개를 달고 훨훨 날았다

나는 두 발로 회초리처럼 등을 차며
더 높이 날으라고 어리광을 부렸다

어머니는 말없이 세상을 떠나셨다
신기하게도 굽은 허리가 쭉 펴졌다
그제야 두다리 뻗고 편히 주무신다.

김수영 (사대 57)



풍요(豊饒)한 여백(餘白)

내가 존경하는 수필가의 ‘여백, 그 자유로운 생명력’이라는 글을 읽었다. 여백이 없는 책은 읽기가 부담스럽다. 여백을 남겨 읽는 사람의 몫으로 열어둔다. 인생에도 삶의 여백이 있어야 한다. 그런 내용의 글이다. 이 글은 내가 읽어온 모든 책의 여백을 상기하며 내 삶의 여백이 무엇인가 자문하는 계기가 됐다.

60여년이 지난 내 유학생시절 영어교과서 여백에는 일어와 한글로 영어단어의 해설이 꼼꼼하게 채워져 있다. 1950대 그 당시에는 한글 사전도 없었기 때문에 일제 강점기 초등학교를 받고 자라난 우리 세대는 일어사전에 의지할 수밖에 도리가 없었다. 훗날에 내가 번역가가 되어 영문으로 번역하는 한국문학 작품 여백에는 영어 노트가 어지럽게 메워지고 있다.

내가 학생시절에 내 목숨을 걸다시피 하면서 결투했던 모직한 Shakespeare 전집이 있다. 그 교과서는 우리 자녀들이 대학생이 되면서 그들의 교과서로 번갈아 재활용이 됐다. 큰아들, 둘째아들, 셋째딸까지 돌아가면서 애용하던 책이다. 그 책에는 거의 여백이 남지 않게 각자의 의견이나 낚두리를 저마다의 개성을 지닌 필체로 자기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암호의 글로 점철해 겹쳐져 있다. 세월이 시달려 희미하게 지워져가는 엄마의 어정쩡한 글씨에 교차하는 그들의 노트는 자신있고 힘에 차 있어 보인다.

우리 삶의 여백이란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생활의 변두리가 아닌가. 나는 지금

이 여백을 걷고 있다. 우리는 거의 반세기를 살던 Connecticut주를 떠나 아들과 딸이 사는 Seattle 교외의 Mill Creek라고 하는 조그만 도시에 이사 온 지도 10년이 되어간다. 이 소도시는 골프장과 country club을 중심삼아 도시계획을 한 공원이 많고 산책로가 여러 군데 있는 수려한 도시기도하다. 나는 매일 아침마다 4 마일을 걷는다. Seattle은 비가 많이 오는 것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우물쭈물 겁이 없다고 우리 나이에 어쩌자고 그런 곳으로 이사 가느냐고 주위사람들이 염려해 왔다. 그러나 와보니 이런 살기 만족스러운 고장이 또 우리 세대는 일어사전에 의지할 수 밖에 도리가 없었다. 훗날에 내가 번역가가 되어 영문으로 번역하는 한국문학 작품 여백에는 영어 노트가 어지럽게 메워지고 있다.

60여년이 지난 내 유학생시절 영어교과서 여백에는 일어와 한글로 영어단어의 해설이 꼼꼼하게 채워져 있다. 1950대 그 당시에는 한글 사전도 없었기 때문에 일제 강점기 초등학교를 받고 자라난 우리 세대는 일어사전에 의지할 수밖에 도리가 없었다. 훗날에 내가 번역가가 되어 영문으로 번역하는 한국문학 작품 여백에는 영어 노트가 어지럽게 메워지고 있다.

내가 학생시절에 내 목숨을 걸다시피 하면서 결투했던 모직한 Shakespeare 전집이 있다. 그 교과서는 우리 자녀들이 대학생이 되면서 그들의 교과서로 번갈아 재활용이 됐다. 큰아들, 둘째아들, 셋째딸까지 돌아가면서 애용하던 책이다. 그 책에는 거의 여백이 남지 않게 각자의 의견이나 낚두리를 저마다의 개성을 지닌 필체로 자기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암호의 글로 점철해 겹쳐져 있다. 세월이 시달려 희미하게 지워져가는 엄마의 어정쩡한 글씨에 교차하는 그들의 노트는 자신있고 힘에 차 있어 보인다.

내가 걷는 길은 늘 변하지 않는다. 잘 손질되어있는 공원을 뚫고 가는 길이나 하이킹 코스는 피한다. 그곳에는 여백이 없다. 그래서 나는 차가 지나가는 변두

리 보도를 걷는다. 차들이 바쁘게 지나가는 차도가 우리 세상살이의 현실이라면 여백은 바로 내가 걷고 있는 이 인도가 아니겠는가. 이 도시 보도는 걷는 사람들을 위해 넓적하고 평탄하게 잘 디자인 되어있고 중간에는 하늘을 향해 드높이 솟은 향나무가 천장을 가리는 굴속 같은 숲길에 들어서기도 한다. 비옥한 흙냄새와 함께 이끼가 낀 바위 주변에 수분을 담백 흡수한 살진 양치류 식물이 무성한 오솔길을 걷는다. 고사리, 이릅도 모르는 것은 여러 종류의 버섯, 이런 것들이 눈에 뜨인다. 고사리가 이렇게 생겼다는 것도 생전 처음으로 누가 일러줘 알게 됐다. 옆에서는 빈번치 않게 차들이 속도제한 25마일을 지켜가면서 조용하게 지나간다. 때때로 응급차나 소방차들이 사이렌 소리로 귀를 마비시키면서 요란스럽게 불을 뽀뽀거리면서 지나가더라도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고 조용하다. 이 길은 완전한 나만의 공간이기 때문이다. 나만의 여백 무대에서 내 독백이 메아리쳐 온다. 훌쩍 울기도하고 깔깔 웃기도 하고 노래도 불러본다. 고등학생시절에 배운 시조도 이 나이가 되어서야 비로소 그 깊은 뜻을 깨닫게 된듯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감동에 넘쳐 읊어본다. 미쳤나하고 뒤돌아보는 사람도 없다. 나는 지금 세상살이에 매듭짓고 이 자유를 누릴 수 있을 만큼 내 몫대로 살았다고 나이 값의 오만도 부러본다.

나는 여백을 산책하면서 세계문명과 서양의 의식 관계를 생각해본다. 동양과 서양의 의식 구조는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예로 미술에 있어 동양화는 여백의 미가 중요한 요소로 감상의 자유를 제공한다. 색을 입히지 않는 동양 묵화에 는 보는 사람들이 제각기 상상을 태어나게 하는 풍요(豊饒)한 공백(空白)이 있다. 반면에 서양화는 빈틈없이 모두 색으로 채워졌고 선, 면, 공간, 시간, 마음, 모두 색으로 표현하며 화가의 의도를 강요한다. 내 삶의 여백은 내가 살아온 긴 역사를 돌이켜 보게 해준다. 이 두 문명의 음(陰)과 양(陽)의 만남과 융화는 두 언어를 연결하는 번역으로 그 가능성이 있다는 깨달음을 밝혀주었다. 해지는 무렵의 빛은 가장 찬란하다는 말은 옳은 말이다.

영어로로는 여백을 margin 이라고 한다. Margin 이라면 또 다른 뜻도 될 수 있다. 주변, 가장자리라고 어느 정도 부정적인 뜻도 포함된다. 우리 젊은 시절 친한 학자가 한번 계셨다. 미 법대를 졸업

했으나 취직이 뜻대로 안되어 고생하였다. 1950년대 유학 온 한국인의 수는 적었다. 특히 우리가 살던 동부지역 유명 대학에 있는 대학원 학생이나 교수의 수가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는 한 가족처럼 친하게 살았다. 우리 젊은 가족들은 돌아가면서 각자 집에 모여 자주 파티를 열었다. 술이 한두 잔씩 거나해지면 대장부 학자도 푸념을 한다. “A marginal man. I am a marginal man!” 자포자기 울음 섞인 목소리였다. Marginal man, 이것은 어느 문화 쪽에도 섞이지 못하고 주류 사회 변두리에서 제 구실을 못하고 미미하게 존재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그렇게 살면서도 우리는 2세대를 결사적으로 길렀다. 그 2세들은 지금 미 주류사회 각 분야에서 이름 내고 활약하고 있다. 그들은 자신을 marginal person 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 당당한 미국시민으로 탄생하고, 일류대학 학위로 무장하고 치열한 경쟁을 극복하고 유명 직장에서 업무를 이루고, 미디어에 오르고, 장내가 유망한 의젓한 시민들이다. 이전 부모세대의 이민자들은 아니다. 주류라는 말도 안 쓴다.

나는 여백을 산책하면서 세계문명과 서양의 의식 관계를 생각해본다. 동양과 서양의 의식 구조는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예로 미술에 있어 동양화는 여백의 미가 중요한 요소로 감상의 자유를 제공한다. 색을 입히지 않는 동양 묵화에는 보는 사람들이 제각기 상상을 태어나게 하는 풍요(豊饒)한 공백(空白)이 있다. 반면에 서양화는 빈틈없이 모두 색으로 채워졌고 선, 면, 공간, 시간, 마음, 모두 색으로 표현하며 화가의 의도를 강요한다. 내 삶의 여백은 내가 살아온 긴 역사를 돌이켜 보게 해준다. 이 두 문명의 음(陰)과 양(陽)의 만남과 융화는 두 언어를 연결하는 번역으로 그 가능성이 있다는 깨달음을 밝혀주었다. 해지는 무렵의 빛은 가장 찬란하다는 말은 옳은 말이다.

‘인간 vs 기계 번역 대결’의 승자는?

2017년 2월 21일 세종대학교에서 인간과 인공지능(AI)이 번역 대결을 펼쳤다. 그 결과는 인간이 AI보다 월등히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AI 번역기로는 구글, 네이버, 시스트란이 참여했으며 인간 번역사와 한국어-영어, 영어-한국어 번역 대결을 펼쳤다. 그 결과 인간이 60점 만점에 49점을 받았으며 구글이 28점, 네이버 파과고가 17점, 시스트란이 15점을 기록했다.

AI 번역기 중에는 구글의 점수가 가장 높았다. 행사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구글은 알고고를 만든 회사라 그런지 번역 수준이 상당히 놀라웠다”고 말했다.

대결은 현장에서 즉석으로 50분 동

안 번역 대결을 펼쳐 정확도에 따라 승패를 가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문과 문학 4개가 무작위로 주어져 영자지 지문 2개는 한글로, 한글지 2개는 영문으로 번역했다. 출제진은 “번역력을 위해 어려운 지문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번역 지문은 문학과 비문학으로 설정했고, 구체적으로 비문학은 기술영역과 비즈니스영역, 시사영역으로 평가했다. 지문 길이는 영한번역의 경우 220자인, 한영번역의 경우 150자로 했다.

결과는 인간의 승리. 인간 번역사 4명 모두 25점 내외로 높은 점수를 받았고, 인공지능 번역기는 10점 이하의 낮은 점수를 받았다. 전문가들은 “출제 문제의 난이도가 높아 인공지능이 번역하기에 까다로

(영화)

그럼에도, 우리, 다니엘 블레이크(2016)



▲수치심에 괴로워하는 케이트를 다니엘이 달래고 있다. ©Imdb

다니엘은 심장병으로 평생 성실히 해오던 목수 일을 그만 뒀다. 처음 겪는 ‘무직’의 상황에서 아직은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 질병수당을 신청했지만 정부가 고요한 ‘의료 전문가’는 매뉴얼만 읽어 나간다. 형식적인 질문과 무의미한 대답이 오가고, 결국 다니엘은 수령 자격 불충분 판정을 받는다.

항의하고자 문의전화를 걸어도(심지어 유료) 2시간은 기다려야 하고, 겨우 직원과 연결됐지만 이제 또 구직수당을 신청하라는 답이 돌아온다. ‘잇선’들의 질병수당 재심사가 언제 끝날지 모르니 일단은 구직수당을 신청해 당장의 살 길을 찾으라는 얘기다. 모든 행정처리에는 알고리즘이 있어 찰나의 망설임도 없이 계속 다음의 차선, 아니 최악을 권한다. 소통이 부재한 언어의 형편.

다니엘의 곁에는 이곳에서도, 저곳에서도 증발돼버린 사람들이 있다. 다니엘의 이웃 청년 ‘차이나’는 중국 현지 노동자에서 나이키 운동화를 밀수해 길거리에서 판매한다. 그는 이 운동화로 3파운드 79펜스의 일당을 받는 현재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복지과에서 우연히 만난 케이트는 두 아이와 함께 이사해온 싱글맘이다. 노숙자 쉼터를 전전하다 생면부지의 뉴캐슬까지 오게됐지만 여전히 생활은 어렵다. 아들 달린은 정서적 스트레스로 인해 주의력결핍을 보이고 집에는 전기도 끊긴 상태. 모두들 거친 풍랑을 맞으며 항해하고 있지만 그들이 기다리는 ‘한 줄기 바람’은 요원하기만 하다.

행정처리의 알고리즘은 실상 총출하지 못한 그물망과 같이 다니엘과 케이트, 차이나는 무력하게 걸려지고 만다. 영화 중간 블록 나온 대사처럼 “벌어먹을 민영화”가 문제일지도 모른다. 역설적이게도 복지는 시장에서

의 가치를 그대로 수용할 듯 보인다. 개인의 ‘경제적 효율’만큼 복지를 받는 것이 온당한 사회에서 3파운드 79펜스의 일당을 받는 사람, 정소 노동으로 생계를 잇는 사람, 질병수당을 수령하고자 하는 사람이 생존권과 존엄을 외치는 것은 종종 나태함과 무임승차로 해석된다.

‘무임승차자’의 몫으로 남겨진 복지제도란 결국 허울 뿐인 알고리즘이다. 현실과 유리된 질문을 던지고 형식적인 답변을 수집해 내리는 과정에는, 당연히게도 소통은 증발하고 없다. 복지 혜택을 받을만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구분하려는 언어는, 결과적으로 무능하다.

다니엘은 끊임없이 자신은 나태하지 않다고, 혹은 ‘무임승차자’로서 최소한의 ‘양심’은 갖고 있다고 증명해야 한다. 구직수당을 수령하려면 구직활동을 하는 척 연기해야 하기 때문에 다니엘은 실제로는 병세 때문에 일하지도 못할 작업장에 찾아가 빈자리를 묻고 이력서를 낸다. 이것으로 부족하고, 구직활동 중인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증빙 자료로 제출도 해야 한다.

돌아오는 것은 다니엘의 말대로 수치심뿐이다. 다니엘과 함께 찾이간 식료품지원소에서 케이트는 이성을 잃고 허겁지겁 손으로 음식을 집어먹는다. 일순간 부끄러움을 느끼고 흐느끼는 케이트 주위로 감당하기 힘든 외로움이 서늘하게 둘러싼다.

여기까지 이르자 케이트는 성노동을 시작한다. 이를 알게 된 다니엘은 손님이 친 케이트의 ‘직장’을 찾아가 뿌리치려는 케이트를 붙잡고 눈물을 흘린다. 순전히 선의에서 비롯된 일이지만, 결론적으로 다니엘은 케이트의 자존심을 다시 한 번 짓밟았다. 자신과 사랑하는 이 모두를 상처 입히는 책임은 왜 이들에게 오롯이 전가됐을까.

영화 말미에 다니엘은 복지과 벽에 ‘나, 다니엘 블레이크’를 스프레이로 휘갈긴다. ‘나 다니엘 블레이크는 개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시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잃어버린 자존심을 찾기 위헤선, 밀려오는 수치심을 털어내기 위헤선 ‘내가 다니엘 블레이크’라는 당연한 사실을 새삼 다시 선언해야만 한다.

영화가 끝나고 무력해지기 쉽지만, 그럼에도 켄 로치 감독은 “다른 세상이 가능하다고 말해야 한다”라고 제작 소감을 밝혔다. 그가 꿈꾸는 ‘다른 세상’은 분명 멀리 있지만 영화가 상영되는 내내 또렷이 드러난다. 영화는 다니엘이 케이트의 사정을 안타깝게 여겨 돕는 것에서 시작된다. 전기요금으로 쓰라는 짝맞은 메모와 함께 30파운드를 두고 가는 모습, 딸 데이지의 방 안에 나무 모빌을 달아주는 모습은 소박하지만 벅차다.



웠을 것이다.”고 평가했다. 다만, 인공지능은 속도면에서 앞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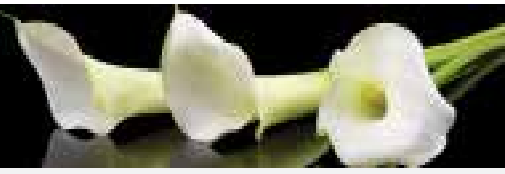
한편 이번 결과에 대해 AI 번역기 업체들은 평가 과정이 공정하지 못했다는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주최 측이 번역기의 AI 기능을 차단했다는 항의와 문제 선

정, 채점 방식이 인간에게 유리했다는 주장들이 나온 것이다.

이번 대결의 결과만 보자면 번역 분야에서 인간이 AI를 앞선 것으로 나타났으나, AI 번역기의 성능이 점차 향상되고 있다는 사실도 분명히 나타났다.



부고 산악인 김석두 동문 (농대 58)



마운트 볼디를 800차례 이상 등반한 산악인 김석두(농대 58) 동문이 4월 7일 다시 볼디 등반에 나섰다 실종된 후 나올만에 시신으로 발견돼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가족들은 김씨가 등산용 아이젠과 세빙도끼, 여벌의 옷 등 평소애 등산 준비를 철저히 했다는 점을 기억하며 희망을 잃지 않고 수색작업에 희망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으나, 실종 나올만에 시신이 발견되어 지인들과 남가주 동창회 등 한인 커뮤니티가 큰 충격

을 받았다.

모교 농대를 졸업하고 금융계에서 일하다 1981년 서울은행 주재원으로 LA에 파견돼 가족들과 남가주로 이민 온 김 동문은 산악인으로 이름을 알렸으며, 부인 김선애씨와 함께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 한국

또 지난해 8월 한반도 통일을 염원

의 백두대간을 종주한 기록을 담은 저서 '백두대간 여명의 별'을 2014년 출간하기도 했다.

또 지난해 8월 한반도 통일을 염원

하는 마음으로 아들과 손자까지 3대가 미 본토 최고봉인 휘트니산 정상 등반에 성공하면서, “앞으로 10년간 더 산행에 나서 마운트 볼디를 1,000번 오르는 것을 목표로 꾸준히 산에 오를 것”이라고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남가주 동문들은 “고인은 산악인으로서 자긍심과 포부가 컸고, 가족과 손자들을 항상 산행에 동행하면서 통일 염원을 나타내는 등 주변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훌륭한 인물”이었다며 “이렇게 사고 소식을 들으니 충

격을 금할 길 없다”고 안타까워 했다.

고인의 장례미사는 많은 남가주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4월 22일 (토) 오전 10시 LA 성 그레고리 성당에서 거행되었다. 유가족 연락처: 310-902-0694

(아래는 김석두 동문이 본회보에 보내온 마지막 원고입니다. 작년 12월 호에도 '88세 회혼식까지..'라는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고인과 가족에게 삼가 조의를 드립니다.)

지난 8월20일 토요일 이른 아침 5시5분경에 10세, 12세 두 손자와 48세 큰 아들을 데리고 79세 산악인 나는 할아버지와 아버지로서 미주최고봉 14508피트 정상에 3시경에 오르고 여유롭게 밤에 내려 왔던 1일 산행기록을 세웠다.

그 원동력은 바로 광복71주년을 맞이하여 태극기와 한반도 통일깃발(AOK)과 미국성조기를 나의 등산백에 담고 산정상에 올라가 우리조국 삼천리 금수강산의 평화통일기원 만세를 외치며 내려 오리라는 초지일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또한 9년 전 우리동갑내기부부 철순기념산행으로 휘트니산을 오르고 내년 8순기념으로 다시 오를 계획이다. 오늘 오를 마운틴 볼디산(산 안토니오 10,064피트)은 800여 등정 중 나올때만 8월20일 현재 130회(휘트니산 등정 포함)로 아내의 양보 희생과 큰아들의 효심에 작은아들의 성능 좋은 차량지원 효심으로 성공한다면 1000번 산행을 이루리라는 꿈을 안고 있다.

지난해에 큰 아들이 두 아들을 데리고 3대가 아닌 가족산행을 시도하려다 실패하고 큰 아들만 데리고 오던 때가 떠 올라 둘째 손자의 꿈을 할아버지가 이룩하리라는 꿈을 안고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러나 참산행으로 하느님의 품안에 안길 수 있는 호연자의 숨을 쉬며 올라가니 신바람이 절로 나 어깨춤을 덩실덩실 추며 한참을 오르다 첫 아영장에서 마운틴 볼디산에서 만났던 부부로부터 샘(Sam, 내이름)이라고 부르는 아침인사를 받아서 두 손자와 큰 아들이 너무나 놀라워하며 얘기를 나누었다. 그 부부는 신혼기념 산행을 이곳으로 즐기고 싶어 2박 3일로 왔다고 하였다.

광복 71주년이 돼도 완전한 광복을 이루지 못하고 반코리아를 개탄하며 홀로 '통일기원산행운동'을 하였던 나의 열정을 두 손자와 큰 아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보람을 안고 오르고 또 올랐다.

새벽에 밤중 12시~1시에 출발하였던 사람과 2시에 올라 가 앞장서서 내려온 아시안 여성 한 사람을 만나 나는 한국사람이라고 하였던 바 자기도 한국사람이라고 하면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왔다고 하며 31살인데 임양자로 자라나 산행을 즐기느라 홀로 산행이라고 하길래 너무 반가워 사진을 같이 찍자고 하였다. 직업은 치료보조원이라고 하면서 예절바르게 인사를 받는 순간 '세상은 악마 악령의 숨을 쉬고 살기 쉬운 곳이니 높고 높은 산 속으로 오르고 올라가야만 성령(호연지기)의 숨을 쉬며 속알 (정신, 열 , 덕)을 기를수 있다'고 하신 다석 류영모 선생님 (YMCA 35년'연경반')의 가르침이 떠 올랐다.

바로 그 선생님의 가르침인 “이 세상은 돈과 명예만 팔아먹고 산다.. 학교나 각 종교단체나 올바르게 가르치는 곳 찾기 힘들고 가정보다 마친가자다.” 불교나 기독교에서 하느님 부처님 이름만으로 “천상천하 무념무로, 예수님, 하느님, 십자가를 수천번 수만번 외쳐도 그에 다다를 수 없다. 오로지 오르고 올라가야 올바른 길을 찾아 이를 수 있다”고 하신 말씀을 큰 손자와 작은 손자 큰 아들을 함께 가르치며 할아버지인 내가 신바람나게 금방 트레일 크레스트(13600피트) 정상에 도착하였다. 너무나 감

동적인 때가 떠올라 기념 사진을 찍자고 하였다. 철순 기념 부부산행기를 3장의 사진과 같이 올렸던 중앙일보(2008.7.18)가 생각난다고 하면서 내년에 팔순기념으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다시 오리라고 다짐하였다.

그곳이 바로 '존뮤어 트레일'로 요세미티 출발점에서 18일간 걸려 성공하면 목표점인 마운틴 휘트니 정상으로 올라가는 곳이라고 하면서 이곳에서 한 두시간 내로 정상에 오른다고 하면서 힘차게 앞장서서 올라갔다 .

바로 그 주위에 오르고 내려 오는 산행인들 가운데 1, 2



마운틴 볼디 산에서 부부와 다른 등산객들이 함께 통일깃발을 들고 사진을 찍었다.

박 산행인들로서 최연소자가 18세와 12세에 이룰뿐 우리 둘째 손자 10세 짜리가 최연소자임을 알고 깜짝 놀랐으며 최고령자로서는 68세 70세임을 알고 9년 전 철순 기념 산행시에 75세 고령자를 만났을 때에 경의와 찬사를 드렸던 때가 떠올랐다.

그 순간 올 한해 1월부터 8월 중순까지 아내는 수차례 동행하였을 뿐 나올로 히말라야 산행 순고도 8400미터를 마운틴 볼디산 7일 연속산행 (순고도4000피트 7차례 28000피트) 훈련으로 최고기록 29일간 연속 종주를 했지만 아니라 3년전 아이언마운틴 8개월만에 100번 이상 훈련시에 만났던 5명의 미국인 홀로 산행인들의 격찬을 받았으니 다음주부터는 1회씩 아내와 동행하기로 다짐하게 되었다.

그리고 둘째 아들도 올해 안에 결혼하기로 약속하였음에 그 손주들도 훈련을 시켜야 할 사명감을 갖게 되었다. 한참을 나올로 정상 9부 능선에 앞장서 오르다 보니 두 손자와 큰 아들이 보이질 않아 2, 30분을 기다리다 보니 점심을 먹고 쉬면서 대소변을 보았다면서 죄송하다고 하였다. 바로 그 순간 이 할아버지는 항상 산 정상에 올라가 점심을 먹고 한두시간 쉬고 내려 온다고 하면서 너희들이 앞장서 오르는 기쁨을 안아 주겠다고 하면서 서서히 뒤따라 올라가겠다고 하였다.

정상에 오르자마자 산행인들이 있어서 우리 3세대 기념사진을 부탁하게 되는 영광을 안게 되었다. 바로 그 순간 2년전 백두산에서 지리산까지 77세 동갑내기 우리 부부의 '백두대간 여명의 별' 책자 발간기념식 자리에서 격려사를 해주셨던 한국의 대문학인 88세 홍승주 선생님과 아울러 750만 재외동포신문 심홍근 기자의 출판기념회 유튜브동영상이 떠 오르면서 AOK로부터 통

일가족상 수상자로서 결심했던대로 태극기와 통일깃발(AOK)과 미국성조기를 안고 광복절 71주년기념 우리 3대가족 평화통일기원산행으로 마운틴 휘트니 14,508피트 정상에 오른 미주한인최초의 1일 산행기록을 세웠노라고 79세 김석두 할아버지가 외치면서 두 손자와 큰 아들로부터 소감을 들어보았다.

작은 손자 동건(Jonathan Kim 10세)이는 “너무나 행복(Happy)하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할아버지와 형 동준이와 아버지와 네사람이 다같이 오르니 지난주 코틀라도 록키산을 오를 때 보다 더 좋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큰 손자 동준(Brandon Kim 12세)이는 “너무나 반갑다고 환영을 받았다고 하였다.(Well come Back) 지난해 최연소 11세로 정상기록을 세우고 또다시 올라와 주니.. 해마다 오너라는 반겨주시는 느낌을 받았다고 하면서 할아버님이 앞장서 이끌어 주신 것에 감사하고 아버지한테도 모든 등산장비와 스के줄을 잡아주어서 고맙다”고 하였다.

큰 아들 동영(Davik kim 48세)은 “우리 동건이가 10세로 미주한인이민자로서 최초기록 보유자가 되어 대학입시원서에 자랑스럽게 삼켰다고 하였다. 지난해 아버지와 같이 산행을 하지 못했던 죄스러움을 느낀다”고 하였다.

바로 그순간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독립투사 구천 김형돈 조부님과 천하효자 송재 김기철 아버지 영전에 오를 우리집 3대 가족산행을 바치면서 14,508 피트 최고 정상 수치가 새롭게 빛나며 내 두눈에 비추어 보였다. 1은 하나되는 한국통일로 비취보이고 45는 1945년으로 0은 광복은 되었으나 완전 독립이 되질않고 8은 8월15일로 떠오르면서 백범 김구 선생님의 1947년도에 남겨 주신'우리소원'의 글을 AOK 역사 공부에서 받고 읽었던 때가 떠올라 큰 아들에게 애국충정의 정신을 굳게 지키며 하느님이 "네 소원이 무엇이냐?" 한번 두번 세번을 물으시면 끝까지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독립이요" 라고 김구선생님이 대답하셨다는 가르침을 잊지말자고 하였다.

다시 한번 200여개국 미주이민국의 초등학교 졸업반이 되면 고국의 전통인 뿌리교육을 숙제로 발표한 기억을 떠 올리면서 올바르게 가르치자고 다짐하고 내려 오면서 오늘의 마운틴 휘트니 최고봉은 자랑스러운 삼천리 금수강산이 백두산천지로부터 지리산까지 있는 백두대간이 최고 명산인데 일제 식민지로 산줄기가 파손되어 존뮤어 국립공원 아버지의 가르침으로 복구되어 있다고 한 미국산악신문(The Sheet)에 등재한 탐뉴스 제목인 'From Korea To Mammoth'에 두 손자들에게 할 아버지를 대신하여 댓글에 답하라고 부탁하면서 덩실덩실 신바람 나게 1일 산행으로 내려올 수 있었던 미주한인 역사상 최초 기록(?)의 우리 3대가족(79세 조부 2회, 최년소 손자 10세 1회, 둘째 손자 12세 2회, 큰 아들 48세 3회)의 1일 산행날이었다. 앞으로 큰 아들과 두 손자는 자체 훈련에 맡기기로 하고 나는 아내와 함께 매주 1회 등산 훈련에 매진해 내년에 팔순 기념 휘트니 부부 등정을 꿈꾸고 있다. 88세에는 마운틴 볼디 1000회 등정의 꿈을 안고 살겠다.

〈산악인 김석두〉

이달의 사진

'밀밭(Wheat Field), Palouse, WA' 박은숙(미대 62)

EXIF: Canon EOS 70D, 1/6sec Aperture - 0.33 EV F11 ISO400 200mm



편집 후기	
D-1. 5월호를 끝내고 나니 필라델피아에서 동창회보를 만드는게 이제 딱 한호 (6월호) 남았다. 하고 싶은 말들이 주마등같이 생각의 꼬리를 물고 지나간다.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가? 미주 이민생활에서 7천여 동문들이 각 분야에서 쌓아 놓은 업적이나, 자원이 측량할 수도 없이 광대한데, 어떻게 motivate 하고 어떻게 utilize 하고 나눌 수 있을까?
미주동창회라는 집단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동창회를 설립목적에 맞게 발전시키는 일이고 무엇을 해야 가능한 한 많은 동문들로 하여금 참여의 기쁨을 누리게 할 수 있을까? 차차기 회장에 출마하는 분들에게 “당신은 왜 동창회장을 하려고 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 보았다. 대답은? ... 2년이라는 시간은 뭇가를 하기엔 참으로 짧은 시간이라는 걸 절감한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왜 이 편집장 김정현

✂ ----- ✂

〈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회비 및 후원금 〉

성명 :	단과대학 및 대학원 :	입학연도 :	지부 :																								
주소 :	전 주소 :																										
업소이름 :	업소 주소 :																										
전화 :	Email :																										
<table border="1"> <thead> <tr> <th>동창회후원금</th> <th>동창회비(구독료)</th> <th>업소특 광고비</th> <th>일반광고</th> <th>특별후원금</th> </tr> </thead> <tbody> <tr> <td><input type="checkbox"/> 연 \$200</td> <td><input type="checkbox"/> \$75 (1년: 2016.7~2017.6)</td> <td><input type="checkbox"/> \$240 (2016.7~2017.6)</td> <td rowspan="3">*문의: 사무국 484-344-5500 Ext 302 Email: general@snuua.org</td> <td><input type="checkbox"/> Education (장학금)</td> </tr> <tr> <td><input type="checkbox"/> 연 \$500</td> <td><input type="checkbox"/> \$75 (1년: 2017.7~2018.6)</td> <td><input type="checkbox"/> \$240 (2017.7~2018.6)</td> <td><input type="checkbox"/> Charity (나눔)</td> </tr> <tr> <td><input type="checkbox"/> 연 \$1,000</td> <td>1년: \$75 / 2년: \$150</td> <td>1년: \$240 / 2년: \$480</td> <td><input type="checkbox"/> Brain Network 후원금</td> </tr> <tr> <td><input type="checkbox"/> \$ _____</td> <td><input type="checkbox"/> 종신이사회비 (\$3,000이상)</td> <td></td> <td></td> <td><input type="checkbox"/> 모교발전기금</td> </tr> </tbody> </table>	동창회후원금	동창회비(구독료)	업소특 광고비	일반광고	특별후원금	<input type="checkbox"/> 연 \$200	<input type="checkbox"/> \$75 (1년: 2016.7~2017.6)	<input type="checkbox"/> \$240 (2016.7~2017.6)	*문의: 사무국 484-344-5500 Ext 302 Email: general@snuua.org	<input type="checkbox"/> Education (장학금)	<input type="checkbox"/> 연 \$500	<input type="checkbox"/> \$75 (1년: 2017.7~2018.6)	<input type="checkbox"/> \$240 (2017.7~2018.6)	<input type="checkbox"/> Charity (나눔)	<input type="checkbox"/> 연 \$1,000	1년: \$75 / 2년: \$150	1년: \$240 / 2년: \$480	<input type="checkbox"/> Brain Network 후원금	<input type="checkbox"/> \$ _____	<input type="checkbox"/> 종신이사회비 (\$3,000이상)			<input type="checkbox"/> 모교발전기금	보낼 곳 : SNUAA-USA, 550 Township Line Rd, Suite 100, Blue Bell, PA 19422 USA Tel: 484-344-5500 Ext 304 Fax: 484-342-0222 Email: general@snuua.org			
동창회후원금	동창회비(구독료)	업소특 광고비	일반광고	특별후원금																							
<input type="checkbox"/> 연 \$200	<input type="checkbox"/> \$75 (1년: 2016.7~2017.6)	<input type="checkbox"/> \$240 (2016.7~2017.6)	*문의: 사무국 484-344-5500 Ext 302 Email: general@snuua.org	<input type="checkbox"/> Education (장학금)																							
<input type="checkbox"/> 연 \$500	<input type="checkbox"/> \$75 (1년: 2017.7~2018.6)	<input type="checkbox"/> \$240 (2017.7~2018.6)		<input type="checkbox"/> Charity (나눔)																							
<input type="checkbox"/> 연 \$1,000	1년: \$75 / 2년: \$150	1년: \$240 / 2년: \$480		<input type="checkbox"/> Brain Network 후원금																							
<input type="checkbox"/> \$ _____	<input type="checkbox"/> 종신이사회비 (\$3,000이상)			<input type="checkbox"/> 모교발전기금																							
지불 방법 : Card 또는 Check / Pay to the order of 'SNUAA-USA'																											
Visa () Master () American Express () 기타 () 전화 484-344-5500 Ext 302 or Check No.:																											
Card No.:	Security Code :	Expire Date:																									
Cardholder's Name :	Date :																										
Address No. Only	Zip	Pay to order of 'SNUAA-USA'																									

2차년도 회기: 동창회비 (2016. 7 ~ 2017. 6)

4월 말까지 회비납부 879명 / 총회원 6431명

Tax Exempt - Federal TIN: 13-3859506

동창회비:	박은숙(미대 62)	이재룡(공대 71)	강정수(문리 61)	김영철(의대 55)	윤신원(의대 50)	김정환(공대 52)	김용주(공대 69)	오례곤	윤경의(공대 57)
남가주 S.CA/NV	박인수(농대 64)	이재선(농대 58)	공순화(사범 56)	김영희(간호 53)	윤영섭(의대 57)	박영철(농대 64)	김우신()	OR/ID	이근형(수의 54)
강동순(법대 59)	박자경(생활 60)	권오형(사대 60)	김예룡(의대 55)	김용연(의대 53)	윤인숙(간호 67)	박종진(의대 56)	김일훈(의대 51)	김상만(음대 46)	이광원(사대 58)
강정훈(미대 56)	박제민(약대 60)	이정화(공대 52)	김명환(문리 67)	김완주(의대 54)	윤정욱(약대 50)	박종승(의대 56)	김재석(의대 61)	김상순(상대 67)	이문환(공대 46)
강중경(공대 48)	박종수(수의 58)	이정희(음대 55)	김병호(상대 57)	김용술(상대 56)	윤종숙(약대 66)	윤상태(수의 62)	김정수(문리 69)	김영자(간호 56)	이선구(문리 65)
강홍재(상대 53)	박종식(의대 46)	이중도(공대 66)	김상운(약대 59)	김용연(의대 63)	윤 철(문리 54)	이강원(공대 66)	김정주(문리 60)	김희진(농대 78)	이영복(공대 59)
강희창(공대 57)	박찬호(농대 63)	이종도(간호 69)	김영춘(수의 64)	김우영(상대 60)	이강욱(공대 70)	이금하(문리 69)	김정화(음대 56)	성성모(사범 67)	이유세(사대 72)
고석규(치대 65)	박창규(약대 59)	이준호(상대 65)	김윤범(의대 54)	김유순(간호 64)	이국진(사대 51)	이의인(공대 68)	김현배(의대 66)	신 J D (인문 58)	이윤주(상대 63)
고영순(음대 59)	박취서(약대 60)	이정호(보건 74)	김상준(의대 61)	김유선(상대 50)	이영진(공대 69)	김현주(문리 61)	김정현(문리 61)	이은실(문리 53)	이재승(의대 55)
고영규(의대 69)	박태호(치대 66)	이창무(공대 54)	김정희(음대 56)	김윤희(상대 59)	이능석(의대 57)	장용복(공대 58)	김희주(의대 62)	정병택(상대 65)	이종두(의대 57)
고재천(공대 57)	박혜옥(간호 69)	이재진(문리 55)	김현왕(공대 64)	김은섭(의대 53)	이대영(문리 64)	정선주(간호 68)	노영일(의대 62)	최동근(문리 50)	이종삼(인문 54)
공대웅(공대 65)	박희자(음대 68)	이 청(농대 61)	김승재(의대 66)	김은진(의대 58)	이병무(상대 57)	문병훈(치대 47)	노병훈(의대 47)	최동근(공대 57)	이종삼(인문 54)
곽용길(문리 59)	방명진(공대 73)	이효경(치대 63)	박경룡(약대 63)	김정희(간호 69)	노문희(사대 59)	정태영(문리 71)	민영기(공대 65)	한영준(사대 60)	이호균(법대 60)
권기상(경영 72)	배병욱(음대 58)	이희종(공대 68)	박노면(사대 50)	김창화(미대 65)	노상규(공대 59)	김종현(법대 57)	박용순(의대 53)	오하이오	OHIO
권영달(문리 50)	배윤수(미대 65)	이정진(보건 74)	민병곤(공대 65)	김창희(의대 27)	이영준(의대 52)	김종현(의대 56)	박준환(의대 55)	OHIO	장우희(사대 54)
권영재(의대)	백소진(문리 55)	이효경(치대 63)	박경룡(약대 63)	김창수(약대 64)	이운순(의대 52)	이윤순(의대 52)	박창욱(공대 56)	OHIO	정계훈(문리 54)
권재균(공대 51)	백옥자(음대 71)	이희종(공대 68)	박노면(사대 50)	김창화(미대 65)	이유성(사대 57)	이재원(의대 60)	박서현(경영 87)	OHIO	김동광(공대 62)
김건진(문리 62)	백해란(미대 70)	이정호(보건 74)	민병곤(공대 65)	김창희(의대 27)	김정현(의대 56)	김정현(의대 56)	서상현(경영 87)	OHIO	김용현(경영 87)
김경수(치대 58)	변영근(수의 52)	이창무(공대 54)	안병협(공대 58)	라준국(공대 47)	이정은(의대 58)	김현희(간호 59)	소진문(치대 58)	OHIO	명인재(인문 75)
김경숙(간호 68)	서동영(사대 60)	이화식(치대 59)	안호삼(문리 58)	맹광호(문리 71)	이중환(공대 56)	김 훈(의대 65)	송순영(문리 52)	OHIO	성훈환(수의 75)
김광은(음대 56)	서영석(문리 61)	성낙호(의대 63)	장지찬(공대 56)	이태안(의대 52)	이희민(농대 67)	김준식(약대 60)	송재현(의대 46)	OHIO	유석훈(상대 48)
김교복(농대 63)	서치원(공대 69)	장수현(미대 65)	장정호(의대 64)	민경혁(법대 53)	이충호(의대 63)	유 호(농대 56)	신동화(문리 55)	OHIO	유석훈(음대 66)
김규현(법대 53)	선우원근(공 66)	장정호(의대 64)	장정호(의대 64)	민발식(의대 60)	이태상(문리 55)	신석균(문리 54)	이계석(의대 67)	OHIO	유재환(상대 67)
김기태(의대 52)	성낙호(의대 63)	장 준(인문 85)	장준(간호 77)	이태안(의대 52)	이희민(농대 67)	이민준(공대 59)	이영진(공대 61)	OHIO	유재환(상대 67)
김기형(상대 75)	성주경(상대 68)	장준(간호 77)	장정호(의대 64)	민경혁(법대 53)	이충호(의대 63)	이수자(공대 62)	이우자(공대 52)	OHIO	유재환(상대 67)
김동산(법대 59)	손기용(의대 55)	장정호(의대 64)	장정호(의대 64)	민발식(의대 60)	이태상(문리 55)	이영웅(의대 56)	이영웅(의대 56)	OHIO	유재환(상대 67)
김동성(음대 64)	손선현(간호 69)	장정호(의대 64)	장정호(의대 64)	민발식(의대 60)	이태상(문리 55)	유동환(수의 68)	이우자(공대 52)	OHIO	유재환(상대 67)
김동환(문리 61)	손영아(음대 85)	장정호(의대 64)	장정호(의대 64)	민발식(의대 60)	이태상(문리 55)	이택수(문리 58)	이민우(의대 61)	OHIO	유재환(상대 67)
김병연(공대 68)	손학식(공대 61)	장정호(의대 64)	장정호(의대 64)	민발식(의대 60)	이태상(문리 55)	이택수(문리 58)	이민우(의대 61)	OHIO	유재환(상대 67)
김병완(공대 58)	신동수(수의 76)	장정호(의대 64)	장정호(의대 64)	민발식(의대 60)	이태상(문리 55)	이택수(문리 58)	이민우(의대 61)	OHIO	유재환(상대 67)
김석두(농대 58)	신상화(공대 58)	장정호(의대 64)	장정호(의대 64)	민발식(의대 60)	이태상(문리 55)	이택수(문리 58)	이민우(의대 61)	OHIO	유재환(상대 67)
김석훈(법대 59)	신영환(의대 63)	장정호(의대 64)	장정호(의대 64)	민발식(의대 60)	이태상(문리 55)	이택수(문리 58)	이민우(의대 61)	OHIO	유재환(상대 67)
김신기(법대 59)	신정식(상대 64)	장정호(의대 64)	장정호(의대 64)	민발식(의대 60)	이태상(문리 55)	이택수(문리 58)	이민우(의대 61)	OHIO	유재환(상대 67)
김성복(공대 59)	신정연(미대 61)	장정호(의대 64)	장정호(의대 64)	민발식(의대 60)	이태상(문리 55)	이택수(문리 58)	이민우(의대 61)	OHIO	유재환(상대 67)
김성욱(간호 81)	심상은(상대 54)	장정호(의대 64)	장정호(의대 64)	민발식(의대 60)	이태상(문리 55)	이택수(문리 58)	이민우(의대 61)	OHIO	유재환(상대 67)
김성환(의대 65)	안병협(공대 58)	장정호(의대 64)	장정호(의대 64)	민발식(의대 60)	이태상(문리 55)	이택수(문리 58)	이민우(의대 61)	OHIO	유재환(상대 67)
김수영(사범 57)	양승문(공대 65)	장정호(의대 64)	장정호(의대 64)	민발식(의대 60)	이태상(문리 55)	이택수(문리 58)	이민우(의대 61)	OHIO	유재환(상대 67)
김순길(법대 54)	양은택(의대 58)	장정호(의대 64)	장정호(의대 64)	민발식(의대 60)	이태상(문리 55)	이택수(문리 58)	이민우(의대 61)	OHIO	유재환(상대 67)
김순태(간호 61)	양창효(상대 54)	장정호(의대 64)	장정호(의대 64)	민발식(의대 60)	이태상(문리 55)	이택수(문리 58)	이민우(의대 61)	OHIO	유재환(상대 67)
김순자(치대 57)	양태준(상대 56)	장정호(의대 64)	장정호(의대 64)	민발식(의대 60)	이태상(문리 55)	이택수(문리 58)	이민우(의대 61)	OHIO	유재환(상대 67)
김 영(수의 63)	영동해(농대 74)	장정호(의대 64)	장정호(의대 64)	민발식(의대 60)	이태상(문리 55)	이택수(문리 58)	이민우(의대 61)	OHIO	유재환(상대 67)
김영태(법대 58)	오선연(상대 58)	장정호(의대 64)	장정호(의대 64)	민발식(의대 60)	이태상(문리 55)	이택수(문리 58)	이민우(의대 61)	OHIO	유재환(상대 67)
김영희(사범 56)	오송자(사대 59)	장정호(의대 64)	장정호(의대 64)	민발식(의대 60)	이태상(문리 55)	이택수(문리 58)	이민우(의대 61)	OHIO	유재환(상대 67)
김영재(의대 60)	오양숙(간호 60)	장정호(의대 64)	장정호(의대 64)	민발식(의대 60)	이태상(문리 55)	이택수(문리 58)	이민우(의대 61)	OHIO	유재환(상대 67)
김원경(약대 65)	우춘식(상대 61)	장정호(의대 64)	장정호(의대 64)	민발식(의대 60)	이태상(문리 55)	이택수(문리 58)	이민우(의대 61)	OHIO	유재환(상대 67)
김인중(농대 74)	위종민(공대 64)	장정호(의대 64)	장정호(의대 64)	민발식(의대 60)	이태상(문리 55)	이택수(문리 58)	이민우(의대 61)	OHIO	유재환(상대 67)
김일영(의대 65)	유덕훈(상대 48)	장정호(의대 64)	장정호(의대 64)	민발식(의대 60)	이태상(문리 55)	이택수(문리 58)	이민우(의대 61)	OHIO	유재환(상대 67)
김재홍(치대 62)	유석훈(상대 61)	장정호(의대 64)	장정호(의대 64)	민발식(의대 60)	이태상(문리 55)	이택수(문리 58)	이민우(의대 61)	OHIO	유재환(상대 67)
김재형(음대 64)	유의영(문리 56)	장정호(의대 64)	장정호(의대 64)	민발식(의대 60)	이태상(문리 55)	이택수(문리 58)	이민우(의대 61)	OHIO	유재환(상대 67)
김재영(간호 69)	유재환(상대 67)	장정호(의대 64)	장정호(의대 64)	민발식(의대 60)	이태상(문리 55)	이택수(문리 58)	이민우(의대 61)	OHIO	유재환(상대 67)
김조숙(미대 60)	유진형(상대)	장정호(의대 64)	장정호(의대 64)	민발식(의대 60)	이태상(문리 55)	이택수(문리 58)	이민우(의대 61)	OHIO	유재환(상대 67)
김종태(상대 58)	육태식(의대 61)	장정호(의대 64)	장정호(의대 64)	민발식(의대 60)	이태상(문리 55)	이택수(문리 58)	이민우(의대 61)	OHIO	유재환(상대 67)
김종표(법대 58)	윤경민(법대 55)	장정호(의대 64)	장정호(의대 64)	민발식(의대 60)	이태상(문리 55)	이택수(문리 58)	이민우(의대 61)	OHIO	유재환(상대 67)
김준일(공대 62)	윤석철(상대 60)	장정호(의대 64)	장정호(의대 64)	민발식(의대 60)	이태상(문리 55)	이택수(문리 58)	이민우(의대 61)	OHIO	유재환(상대 67)
김정무(음대 53)	윤용길(공대 55)	장정호(의대 64)	장정호(의대 64)	민발식(의대 60)	이태상(문리 55)	이택수(문리 58)	이민우(의대 61)	OHIO	유재환(상대 67)
김태윤(법대 53)	윤태자(미대 62)	장정호(의대 64)	장정호(의대 64)	민발식(의대 60)	이태상(문리 55)	이택수(문리 58)	이민우(의대 61)	OHIO	유재환(상대 67)
김택수(의대 57)	이건설(치대 54)	장정호(의대 64)	장정호(의대 64)	민발식(의대 60)	이태상(문리 55)	이택수(문리 58)	이민우(의대 61)	OHIO	유재환(상대 67)
김홍복(문리 66)	이건일(의대 62)	장정호(의대 64)	장정호(의대 64)	민발식(의대 60)	이태상(문리 55)	이택수(문리 58)	이민우(의대 61)	OHIO	유재환(상대 67)
김희자(간호 64)	이 관(공대 55)	장정호(의대 64)	장정호(의대 64)	민발식(의대 60)	이태상(문리 55)	이택수(문리 58)	이민우(의대 61)	OHIO	유재환(상대 67)
김희재(사대 63)	이광재(공대 59)	장정호(의대 64)	장정호(의대 64)	민발식(의대 60)	이태상(문리 55)	이택수(문리 58)	이민우(의대 61)	OHIO	유재환(상대 67)
김희정(공대 63)	이규달(의대 62)	장정호(의대 64)	장정호(의대 64)	민발식(의대 60)	이태상(문리 55)	이택수(문리 58)	이민우(의대 61)	OHIO	유재환(상대 67)
나두섭(의대 66)	이근웅(의대 61)	장정호(의대 64)	장정호(의대 64)	민발식(의대 60)	이태상(문리 55)	이택수(문리 58)	이민우(의대 61)	OHIO	유재환(상대 67)
나민주(음대 65)	이기재(사대 52)	장정호(의대 64)	장정호(의대 64)	민발식(의대 60)	이태상(문리 55)	이택수(문리 58)	이민우(의대 61)	OHIO	유재환(상대 67)
나승욱(문리 59)	이명선(의대 58)	장정호(의대 64)	장정호(의대 64)	민발식(의대 60)	이태상(문리 55)	이택수(문리 58)	이민우(의대 61)	OHIO	유재환(상대 67)
나정자(간호 70)	이미정(의대 78)	장정호(의대 64)	장정호(의대 64)	민발식(의대 60)	이태상(문리 55)	이택수(문리 58)	이민우(의대 61)	OHIO	유재환(상대 67)
노병호(공대 61)	이방기(농대 59)	장정호(의대 64)	장정호(의대 64)	민발식(의대 60)	이태상(문리 55)	이택수(문리 58)	이민우(의대 61)	OHIO	유재환(상대 67)
노병두(공대 73)	이범식(공대 61)	장정호(의대 64)	장정호(의대 64)	민발식(의대 60)	이태상(문리 55)	이택수(문리 58)	이민우(의대 61)	OHIO	유재환(상대 67)
문병길(문리 61)	이병준(상대 55)	장정호(의대 64)	장정호(의대 64)	민발식(의대 60)	이태상(문리 55)	이택수(문리 58)	이민우(의대 61)	OHIO	유재환(상대 67)
문인일(공대 51)	이서희(법대 70)	장정호(의대 64)	장정호(의대 64)	민발식(의대 60)	이태상(문리 55)	이택수(문리 58)	이민우(의대 61)	OHIO	유재환(상대 67)
민병문(문리 58)	이석숙(공대 56)	장정호(의대 64)	장정호(의대 64)	민발식(의대 60)	이태상(문리 55)	이택수(문리 58)	이민우(의대 61)	OHIO	유재환(상대 67)
민수봉(상대 55)	이소희(의대 61)	장정호(의대 64)	장정호(의대 64)	민발식(의대 60)	이태상(문리 55)	이택수(문리 58)	이민우(의대 61)	OHIO	유재환(상대 67)
박대균(수의 57)	이영일(문리 53)	장정호(의대 64)	장정호(의대 64)	민발식(의대 60)	이태상(문리 55)	이택수(문리 58)	이민우(의대 61)	OHIO	유재환(상대 67)
박부강(사대 64)	이원익(문리 73)	장정호(의대 64)	장정호(의대 64)	민발식(의대 60)	이태상(문리 55)	이택수(문리 58)	이민우(의대 61)	OHIO	유재환(상대 67)
박성욱(상대 58)	이원택(의대 65)	장정호(의대 64)	장정호(의대 64)	민발식(의대 60)	이태상(문리 55)	이택수(문리 58)	이민우(의대 61)	OHIO	유재환(상대 67)
박영희(음대 66)	이익삼(사대 58)	장정호(의대 64)	장정호(의대 64)	민발식(의대 60)	이태상(문리 55)	이택수(문리 58)	이민우(의대 61)	OHIO	유재환(상대 67)
박우성(상대 77)	이장길(치대 63)	장정호(의대 64)	장정호(의대 64)	민발식(의대 60)	이태상(문리 55)	이택수(문리 58)	이민우(의대 61)	OHIO	유재환(상대 67)
박원준(공대 53)	이재권(법대 56)	장정호(의대 64)	장정호(의대 64)	민발식(의대 60)	이태상(문리 55)	이택수(문리 58)	이민우(의대 61)	OHIO	유재환(상대 67)

광고 및 업소록비 · 기타 후원 동문 (2015. 7 ~ 2017. 6)

제 13대 2년동안의 후원금 & 광고비

중부텍사스 MID-TEXAS	김재술(약대 58)	송영두(의대 56)	이지영(문리 67)	최종무(상대 63)	전영자(미대 58)	한광수(의대 57)	최경윤(사범 51)	배명순(가정 69)	박진섭(의대 67)
김은영(가정 77)	김정								

미주 동문 업소록

CA 남가주 공인회계사

CPA 김재영 공인회계사 김재영 (농대 62) Tel. (213) 385-1985 2960 Wilshire Blvd. #300, LA, CA 90010

Kyung Moo Kim CPA & Accounting Coporation 김경무 공인회계사 (공대 69) Tel. (213) 616-1390 3435 Wilshire Blvd. #1150 LA, CA 90010

AAMKO Consulting Co. (강신용 공인회계사) 강신용 (사대 73) Tel. (213) 380-3801 3850 Wilshire Blvd. #201 LA, CA 90010

이강원 공인회계사 이강원 (인문대 76) Tel. (213) 387-1234 3530 Wilshire Blvd #1414 LA, CA 90010

GSK LLP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 Business Consultants 강호석(상대81), 김낙구(상대67), 강동순(법대59) Tel. (213) 380-5060(LA), (714) 530-3630(Garden Grove, CA)

STANLEY Cha, CPA 차기민 (공대 85) Tel. (213) 739-5700, (714) 525-1821 schacpa@gmail.com 3440 Wilshire Blvd. #807 LA, CA 90010 229 N. Euclid St. Fullerton, CA 92832

Jun Chang CPA & Associates, AC 장 준 (인문대 85) Tel. (818) 772-2811, (213) 272-2460 jun@junchangcpa.com 19520 Nordhoff St. Suite 16, Northridge, CA 91324 3580 Wilshire Blvd. Suite 900 Los Angeles, CA 90010

AXA Advisor Paramount Planning Group 조임현 (간호대 72) Tel. (213) 487-3253 3435 Wilshire Blvd. Ste.2500 LA, CA 90010 im.cho@axa-advisors.com

오홍조(치대 56) Oh, Heung Jo 2860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Tel: (213)382-8205

운송 / 유통 / 원자재

SeAH Steel America, Inc. (유통/강관도매) 이병준 (상대 55) Tel. (949) 655-8000 2100 Main Street #100 Irvine, CA 92614

OR 오레곤

Flonomix Inc. 박희진 (농대 78) Tel. (503) 648-0775 5897 NE Alder St., Hillsboro, OR 97124

식품 / 음식점

자연나라 Jayone Foods, Inc. 이승훈 (상대 74) Tel. (562) 633-7400 7212 Alondra Blvd., Paramount, CA 90723

엔지니어링 컨설팅 / 건축

Lee & Ro, Inc. 노명호 (공대 61) Tel. (626) 912-3391 1199 S Fullerton Rd City of Industry, CA 91748

ACCU Construction, Inc. 염동해 (농대 74) Tel. (714) 641-4730 1526 Brookhollow Dr. Santa Ana, CA 92705

의료 / 약국

실로암 병원 (Siloam Medical Clinic) 신경정신과 정균희 (의대 64) Christopher K.Chung MD. Tel. (213) 386-5002 2528 W.Olympic Blvd.,#103 LA CA 90006 drchung@yahoo.com

Beverly Cardiology Group Il Young Kim MD (의대 65) Diana Kim MD Tel. (323) 662-1175 3919 Beverly Blvd.,#100 LA CA 90004 www.beverlycardiology.com

정수만 안내과.혈액내과 정수만 (의대 66) Tel. (714) 539-6414 12555 Garden Grove Blvd. #309 Garden Grove, CA 92843

Gilbert Pharmacy 최무식 (약대 66) Tel. (714) 638-8230 9240 Garden Grove Blvd. #20 Garden Grove, CA 92844

Seoul Medical Group ★

차민영 (의대 76) Tel: 213-480-7770 (877) 764-1405 520 S. Virgil Ave.#103 LA, CA 90006

나성약국 ★

임낙균 (약대 64) Tel: (213) 387-3030 3030 W. Olympic Bl. #118 L.A. CA 90006

치과

황준오 DDS 황준오 (치대 73) Tel. (408) 732-0493 877 W.Fremont Ave.#H3 Sunnyvale, CA 94087

Seonho Ha Prosthodontics 하선호 (치대 81) Tel. (213) 365-1008 3240 Wilshire Blvd.# 510 LA. CA 90010 ddsstp@yahoo.com

우주개발 / 기술

Tayco Engineering, INC 정재훈 (공대 64) Tel. (714) 952-2240 10874 Hope St. PO Box 6034 Cyroress, CA 90630 jchung@taycoeng.com www.taycoeng.com

Link TV Media

김원탁(공대 65) 17607 Sherman Way #204 Van Nuys, CA 91406 Tel. (818) 768-5494 Fax. (818)768-5040 linkboxusa@gmail.com www.linkboxusa.com

동물병원

Animal Medical Clinic 신동국 (수의대 76) Tel. (714) 990-1411 3257 Associated Rd, Fullerton, CA 92835

Francis Animal Hospital

최재현 (수의대 66) Tel. (909) 627-0951 5284 Francis Ave, Chino Hills, CA 91710

Richmond Veterinary Hospital

한상봉 (수의대 67) Tel. (510) 232-3465 4704 MacDonald Ave. Richmond, CA 94805

변호사

신혜원 변호사 신혜원 (사대 81) Tel. (213) 385-3773 3435 Wilshire Blvd. #2230 Los Angeles, CA 90010

부동산

Team Spirit Realty Jennie Lee 이종묘 (간호대 69) Realtor Tel. (714) 396-0624 30 Corporate Park, Ste.207 Irvine, CA 92606 jenniecee@gmail.com

마켓

Han Nam Chain Market 하기환 (공대 66) Tel. 213-381-3610 2740 W. Olympic Bl. Los Angeles, CA 9006

기타

Turbo Air, Inc. ★ 서치원 (공대 69) Tel: 310-719-5422 3421 Oakridge Terrace, Calabasas CA 91302

라 캐나다 한인교회

독고원 (공대 65) Tel. (818) 790-7320 1700 Foothill Blvd La Canada, CA 91011

클리닉

San Bernardo Foot Clinic INC. 이상대 (농대 80) Tel. (909) 882-3800(B), (714) 323-8612(C) 2095 N. Waterman Ave. San Bernadino, CA 92404

자동차 / 서비스

A.P.W. 자동차 부품 서동영 (사대 60) Tel. (310) 753-9636 1073 E. Artesia Blvd. Carson, CA 90746

CA 북가주

두리 하나 결혼정보 정지선(상대 58) '높은 성공율과 많은 초혼, 재혼자 데이트 중. 서울대 동문과 동문자녀 특별할인' Tel. (510) 224-0760 13766 Aurora Dr. San Leandro, CA 94577 www.2makes1.com / 1durihana@gmail.com

비영리법인 해양 극지에너지

ISOPE The International Society of Offshore and Polar Engineers P.O. Box 189, Cupertino, California 95015-0189 Jin S Chung 정진수 (공대 56) Ocean, Arctic, Energy www.isopec.org, jschung@isopec.org

GA 조지아

Auto Plaza Group, INC. 이영진 (공대 76) Tel. (404) 579-8282 4132 Bedford Hwy. Duluth, GA 30096

Wesley & Associates, CPA

윤태우 Tel. (770) 451-1850 3700 Crestwood Pkwy, Suite 380, Duluth, GA 30096

PA 필라델피아

이즈미 일식당 최준문 (공대 61) Tel. (267) 408-7342 1222 Welsh Rd. North Wales, PA 19454 (ASSI Plaza)

동물병원 / 치과

Cottman Animal Hospital 주기목 (수의대 68) Tel. (215) 745-9030 1012 Cottman Ave. Philadelphia, PA 19111

Blue Bell Family Dentistry

김순주 (치대 95) Tel. (610) 278-1110 1732 Dekalb Pike, Blue Bell, PA 19422

건축

Timothy Haahs & Assoc. 손재욱 (생활과대 77) Tel. (484) 342-0200 550 Township Line Rd. Ste.100 Blue Bell, PA 19422

NV 네바다 Best Care Dental 김영중 (치대 66) Tel. (702) 384-2828, (702) 480-7115 5205S Durango Dr. #103 Las Vegas, NV 89113

NY / NJ (뉴욕 / 뉴저지)

Changsoo Kim, CPA P.C. 김창수 (약대 64) Tel. (212) 760-1768, (917) 647-0606 38 W 32St Suite #900 New York NY 10001 changsookimcpa@hotmail.com

KL CPA & Associates LLC 이경림 (상대 64) Tel. (212) 768-9144 1430 Broadway Suite 306 New York, NY 10018

부동산

Evergreen Realty 이재원 (법대 60) Tel. (201) 944-5353 242 Broad Ave.Palisades Park, NJ 07650

COSMO Realty 이재덕 (법대 60) Tel. (201) 944-4949 258 Broad Ave.Palisades Park, NJ 07650 www.cosmorealty.com

Promise Realty 김도명 (농대 70) 조민형 (음대 84) Tel. (201) 585-7766 240 Grand Ave Suite 2 Leonia NJ 07605 Email: Promise@DonaldRealty.com

리테일러

New York Golf Center 이진구 (농대 60) Tel. (212) 564-2255 131 W. 35th St. New York, NY 10001

American Int'l Line, Inc.

윤병하 (농대 80) Tel. (718) 995-7060 147-38 182nd St.Jamaica, NY 11413

후원회비 27면에 이어... Charity Fund (나눔) 손재욱(가정 77) 3,000 윤경숙(문리 59) 3,000 이원섭(농대 77) 100 임원섭(농대 77) 100 하주홍(상대 77) 25 미주동창회 5,000 Brain Network 후원금: 김은중(상대59) 200 손재욱(가정 77) 3,000 오인환(문리 63) 200 윤상래(수의 62) 200 한재은(의대 59) 1,000 박석규(간호 59) 5,000 박종승(의대 56) 100 성홍환(수의 75) 200 이원섭(농대 77) 100 임영자(간호 61) 500 임천빈(문리 61) 100 정명숙(간호 61) 500 정일화(상대 55) 50 정창동(간호 45) 100 차기민(공대 85) 200 기타: 김영실 () 100

중신이사비 김중권(의대 63) 3,000 남세현(공대 67) 3,000 *오인석(법대 58) 3,000 한귀희(미대 68) 3,000 (* 한번 이상 내신분)

Golf 후원금: 남유현(경영대 24) 240 민재홍(의대 88) 240 박종호(의대 79) 240

치과 김성래 치과 (Closter Dental) 김성래 (치대 76) Tel. (201) 666-2828 570 Piermont Rd., Closter Commons # C1, Closter, NJ 07624 계동휘종합치과(잇몸수술 전문의) Wayne Kye D.D.S, M.S 계동휘 (치대 67) Tel. (718) 898-9049 49-04 43rd Ave. Woodside, NY 11377

내과 백승원 위장내과 ANDREW S. BAIK M.D. 백승원 (의대 73) Tel. (201) 302-9774, (732) 744-9090 1608 Lemoine Ave. #200 Fort Lee NJ 07024 1921 Oak Tree Rd. Edison NJ 08820

석창호 위장내과 Chang Ho Suk, M.D. 석창호 (의대 66) Tel. (718) 461-6212 41-61 Kissena Blvd # 27, Flushing, NY 11355

심인보 심장내과 IN-BO SHIM, M.D. 심인보 (의대 77) Tel. (201) 569-1800, (718) 836-0009 700 Palisade Ave 1St Fl.Englewood Cliffs, NJ 07632 237 82nd St, Brooklyn, NY 11209

이창석 내과 Chang Suk Lee, M.D. 이창석 (의대 72) Tel. (718) 762-4400 40-5 Bowne St, Flushing, NY 11354

재활의학 김치갑 카이로프랙 COMPREHENSIVE PAIN THERAPY CENTER 김치갑 (의대 73) Tel. (201) 541-1111 475 Grand Ave. Englewood NJ 07631

김승관통증 및 재활의학병원 Seung K. Kim, M.D. 김승관 (의대 70) Tel. (718) 321-2870 35-20 147th St #1D, Flushing, NY 11354

박희진(농대 78) 720 박승원(의대 73) 240 서동영(사대 60) 240 석창호(의대 66) 480 손재욱(가정 77) 480 신동국(수의 76) 340 엄달용(공대 69) 240 이경림(상대 64) 240 이병준(상대 55) 480 이상대(농대 80) 120 이수호(보건 69) 240 이영일(문리 53) 400 이재덕(법대 60) 240 이재원(법대 60) 200 이종호(간호 69) 480 이준영(치대 74) 200 이창석(의대 72) 240 장 준(문리 85) 240 정세근(자연 82) 240 정재훈(공대 64) 480 정지선(상대 58) 240

정진수(공대 56) 240 주기목(수의 68) 480 최무식(약대 66) 240 최종문(공대 61) 240 하선호(치대 81) 240 한상봉(수의 67) 240 한태호(인문 75) 480 디자인 광고: 국제진료센터 120 김광호(문리 62) 12,000 김기택(수의 81) 200 김도명(농대 70) 400 김영민(농대 72) 1,000 김인중(농대 74) 1,000 김창수(약대 64) 300 김혜정(문리 82) 8,800 남가주합창단 1,000 노명호(공대 61) 2,000 뉴밀레니엄뱅크 1,500 미주대단 700

분당서울대병원 400 K-Shopping 500 서치원(공대 69) 1,000 신규현(상대 73) 400 신용남(농대 70) 1,200 유재환(상대 67) 1,000 윤상래(수의 62) 400 이병준(상대 55) 1,500 이승훈(상대 74) 1,800 이천구(농대 60) 4,500 임낙균(약대 64) 2,500 차민영(의대 76) 1,000 최정웅(공대 64) 500 한스여행사 300 Website 광고: 김혜정(문리 82) 500 듀오 500 손재욱(가정 77) 500 International,Inc. (이월로) 500 JG Business Link 500

비뇨기과 윤세웅 비뇨기과 Richard Sei-Oung Yoon, M.D. Ph.D. D.D. 윤세웅 Tel. (718) 335-3333 75-21 Broadway #1, Elmhurst, NY 11373 100-25 Queens Blvd. #16C, Forest Hills, NY 11375

알러지

이혁엽 알러지 전문의 Hyok Yup Lee, MD. F.A. 이혁엽 (의대 73) Tel. (201) 568-3800, (718) 321-7366 385 Sylvan Ave. E.C., NJ 07632 144-24 37th Ave. Room#LD Flushing, NY 11354

소아과

박범열 소아과 Beum Yul Park, M.D. 박범열 (의대 75) Tel. (718) 229-1188, (718) 899-4600 211-50 45th Dr. Bayside, NY 11361 40-10 70th St. Woodside, NY 11377

박종호 소아과 C. Thomas Park, M.D. 박종호 (의대 79) Tel. (201) 242-1002 44 Sylvan Ave, Englewood Cliffs, NJ 07632

한의원

이수호 한의원 이수호 (보건대 69) Tel. (718) 353-6207 36-32 Union St. #3F Flushing, NY 11354

동물병원

RIDGEFIELD PARK ANIMAL HOSPITAL 김기택 (수의 81) Tel 201-814-0095 199 Main st, Ridgefield Park NJ 07660

이 자리에 광고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USATOUR

이 자리에 광고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MD · VA · 워싱턴 DC 치과 이준영 치과 이준영 (치대 74) Tel. (301) 220-2828, (301) 926-9692 6201 Greenbelt Rd. SieU-10. College Park, MD 20740 8931 Shady Grove Ct. Gaithersburg, MD 20877

엔지니어링 컨설팅

Drivetech, Inc 엄달용 (공대 69) Tel. (301) 489-2474 25492 Carrington Drive, South Riding, VA 20152 www.drivetechinc.com

재정 / 보험 / 컨설턴트

C & N 종합보험 / 뉴욕 라이프 정세근 (자연대 82) Tel. (703) 663-8400(O), (703) 785-8467(C) 7023 Little River Tpke, #403, Annandale, VA 22003

Fairway Asset Corporation

남욱현 (경영대 84) Tel. (301) 279-6969 414 Hungerford Dr. #104 Rockville, MD 20850 www.facioan.com

부동산

BPS Appraisal Company 박평일 (농대 69) Tel. (703) 750-1707 7518 Evans Ford Rd. Clifton, VA 20124

내가 번 돈 내가 쓰자! 다리 떨리기 전에 세계일주! 당신이 꿈꾸는 모든 여행이 가능합니다!

5대항 6대주에 걸친 폭넓은 네트워크 전세계 파트너십으로 어느곳이든 이주와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본사직원과 현지가이드의 입체시스템, 믿음직한 동행과 함께하세요. 33년 이상 전문성과 노하우 어느곳이든 5스타급 서비스와 가이드 usajutour.com 213-388-4000

광고문의: (484)344-5500

Purpose(목적) : Charity(나눔) · Education(배움) · Friendship(사귌)

서울대 미주동창회

역대회장

박윤수(문) · 강수상(의) · 이병준(상) · 오인석(법) · 오인석(법) · 이용락(공)
오홍조(치) · 이영목(공) · 이진규(농) · 송순영(문) · 김은종(상) · 오인환(문)

명예회장 : 오인환(문)

제13대 회장: 손재욱(가정)

수석 부회장(차기 회장) | 윤상래(수의)
후원회 부회장 | 제영해(가정)
Brain Network 담당 부회장 | 하용출(문)
사회봉사 담당 부회장 | 황신희(공)
고문 | 전방남(상) · 고병은(문)

집행부 : 사무총장 차임경(가정)

총무국장 | 심희진(음) 사업국장 | 한중희(공)
조직국장 | 백옥재(음) 섭외국장 | 박형준(공)
재무국장 | 이상숙(가정) 특별사업국장 | 허유선(가정)
IT개발위원장 | 김원영(미) 사무장 | 서경희
(Webmaster)

회보 : 발행인 손재욱(가정)

편집위원장 | 김정현(공) 주필 | 정홍택(상)
편집위원 | 김진우(공) · 심희진(음) · 이상봉(문) · 이상숙(가정)
정덕준(상) · 정태광(공) · 이재원(사) · 한정민(농)
황신희(공) · 허유선(가정) · 현명역(공) · 홍선례(음)

편집/디자인 | 김태연

논설위원장 : 이항열(법)

논설위원 | 고병철(법) · 김일훈(의) · 김용현(경) · 김창수(약)
민경훈(법) · 유재풍(법) · 윤상래(수의) · 이석구(문)
이원영(정) · 이채진(문) · 장석정(법) · 정홍택(상)
조동준(의) · 차민영(의) · 최용원(공) · 하용출(사)

회칙 위원회 : 위원장 한재은(의)

위원 | 김병연(공) · 김용현(상) · 서중민(공)
이강원(공) · 이민연(법) · 함은선(음)

인선 위원회 : 위원장 오인환(직전 회장)

오인환(직전회장) · 손재욱(현 회장) · 윤상래(차기회장)
정승규(공) · 김병연(공) · 민준기(공) · 이상강(의)

장학 위원회 : 위원장 손재욱(현 회장)

오인환(직전회장) · 윤상래(차기회장) · 이상강(의)
이원섭(농) · 강창석(의)

포상 위원회 : 위원장 손재욱(현 회장)

각 지역 지부장

모교 발전기금 위원회 : 위원장 손재욱(현 회장)

오인환(직전회장) · 윤상래(차기회장) · 이상강(의)
이원섭(농) · 강창석(의)

감사

주기목(수의) · 박영철(농)

각 지역 동창회 회장단

지역	이름	연락처	Email	회계연도	
남가주 S.CA/NV	회장	성주경(상대 68)	213,500,7977	jksung@skcinsurance.com	Feb-Jan
	차기회장	강신용(상대 73)	213,380,3801	gamkocpa@hotmail.com	
북가주 SAN FRANCISCO	회장	임희태(간호 73)	831,818,2959	acuheerei@hotmail.com	Jan-Dec
	차기회장				
뉴욕 NY/NJ/CT	회장	김도명(농대 70)	917,207,5949	dmkim516@gmail.com	July-Jun
	차기회장	이대영(문리 64)	516,770,0070	dyldy88@hotmail.com	
뉴잉글랜드 MA/RI/NH/ME/VT	회장	정태영(문리 71)	978,908,0196	chungty1@snu.ac.kr	Jul-Jun
	차기회장	박영철(농대 64)	781,674,2498	youngpark6@yahoo.com	
달라스 LA/DALLAS	회장	이석호(농대 78)	214,244,3630	iseoko@gmail.com	Jan-Dec
	차기회장				
룩카마운틴스 MT/CO/WY/NM	회장	최용운(공대 77)	480,207,9992	ymcgreencorp@gmail.com	Jan-Dec
	차기회장				
미네소타 MINNESOTA	회장	황효숙(상대 65)	651,308,0796	sook@nano-dyne.com	Jan-Dec
	차기회장				
샌디에고 SAN DIEGO	회장	이정석 (공대 87)	858,243,3254	jslee029@gmail.com	Nov-Oct
	차기회장				
시카고 IL/IN/WI/MI	회장	한경진(상대 59)	847,858,7556	jimkhahn@gmail.com	Jan-Dec
	차기회장				
애리조나 ARIZONA	회장	오윤환(공대 56)	520,271,2601	youn_oh@gmail.com	
	차기회장				
앨라스카 ALASKA	회장	윤재중(농대 55)	907,223,0887	jaeyoon@hotmail.com	
	차기회장				
오레곤 OR/ID	회장	김기린(상대 75)	360,213,5476	blueberryfield@gmail.com	Jan-Dec
	차기회장				
오하이오 OHIO	회장	이성우(상대 72)	614,370,5761	rimshake@ameritech.net	
	차기회장				
워싱턴 DC DC/MD/VA/WV	회장	안선미(농대 65)	347,776,0304	sunmi_ahn@yahoo.com	Jul-Jun
	차기회장	정세근(자연 82)	703,785,8467	saekewrn@gmail.com	
워싱턴주 WASHINGTON	회장	하주홍(경영 77)	402,631,3567	jh_ha@live.com	Jan-Dec
	차기회장	임민인(공대 84)	425,444,3899	mmsft@hotmail.com	
유타 UTAH	회장	김한섭(공대 93)	734,904,9672	hanseup@ece.utah.edu	Jan-Dec
	차기회장				
조지아 GA/AL/MS	회장	주지영(문리 66)	706,338,4520	jane_chu_ga@gmail.com	Jan-Dec
	차기회장	공영식(상대 79)	770,880,5816	youngskong@yahoo.com	
중부텍사스 MID-TEXAS	회장	김성근(법대 78)	512,750,4680	hi5chris@gmail.com	
	차기회장				
필라델피아 PA/DE/S.NJ	회장	최정웅(공대 64)	484-467-7609	jungwoongchoi@gmail.com	Jul-Jun
	차기회장	박혜린(음대 84)	215-499-0320	helen4music@hotmail.com	
플로리다 FLORIDA	회장	조동건(공대 69)	561,213,8228	dcho0806@bellsouth.net	Jul-Jun
	차기회장	정치영(법대)			
캐롤라이나 SC/NC/KY	회장	지원식()	919-913-5570	wschee@gmail.com	
	차기회장				
테네시 TENNESSEE	회장	김상호(공대 86)	856-386-1094	kimsh@oral.gov	Jan-Dec
	부회장				
하와이 HAWAII	회장	성낙길(문리 77)	808,956,2611	nsung@hawaii.edu	Jul-Jun
	총무	전수진(식공 89)	808,956,8283	soojin@hawaii.edu	
하틀랜드 IA/MO/KS/NE/AR/OK	회장	김제권(상대 68)	918,810,6393	jaykwonkim@hotmail.com	Sept-Aug
	차기회장				
휴스턴 HOUSTON	회장	구자동(상대 70)	713,206,1942	kykey2003@yahoo.com	Jan-Dec
	부회장				
캐나다 밴쿠버	회장	이명규(농대 69)	778,378,7339	nycmikelee@gmail.com	Jan-Dec
	부회장	김중욱(공대 70)	604,524,0101		
캐나다 앨버타	회장	정중기(공대 70)	403,617,7585	movics@shaw.ca	Mar-Feb
	부회장				

54명 종신이사 현재 (\$3000이상)

Thank you

- | | | |
|--------------------------|---|---|
| 남상용(공대 52)
오재인(치대 33) | 이광연(공대 60)
이교락(의대 53)
이기영(농대 70)
이병준(상대 55)
이세열(상대 57)
이용락(공대 48)
이재덕(법대 60)
이전구(농대 60)
이종도(공대 66)
이준행(공대 47)
이청광(상대 61)
이흥표(의대 58)
임낙균(약대 64)
임용오(의대 57)
전희택(의대 60)
정 태(의대 57)
심상은(상대 54)
*오인석(법대 58)
오홍조(치대 56)
윤상래(수의 62)
윤선홍(치대 64)
윤정욱(약대 50) | 오인환(문리 63)
이상강(의대 70)
고일석(보건대69)
김병자(문리 69)
김재영(농대 62)
손재욱(가정 69)
조시호(문리 69)
권기현(상대 53)
오세경(약대 61)
김종권(의대 63)
한귀희(미대 68)
남세현(공대 67)

종신이사 (고인)

(* 한변이상 내신분) |
|--------------------------|---|---|

Kleencook
냄새잡는 프라이팬/냄비

주방의 미션은? 연기, 냄새 걱정없이 요리하자!



냄새 잡는 프라이팬, 냄비
연기 색-
냄새 잡는 냄비

냄새 잡는 냄비, 냄비에서 생선구이를 해도, 김치찌거나 청국장을 끓여도 아무도 모른다!

가격 : \$120
주문 : info@kleencook.com www.kleencook.com

이영희 (자연대 화학과 82)

Law offices of E. Peter Shin, ESQ.

신응남 변호사

합동법률사무소

무료상담 환영
24시간 연락
무료 주차장



여러분의 골치아픈 법률문제는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겸비한 변호사들만이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20년간 한국 대기업의 뉴욕지사에서 각종 소송사건을 담당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구비한 실력있는 변호사 (뉴욕, 뉴저지 & 미연방법원자격소지)

파산(개인,회사)전문/ 모기지,부채조정/ 각종 민사 소송/방어/사업체 및 부동산 매매

718-463-3131 (201)941-7969 Fax: (718)463-6789
Email: petershinesq@gmail.com
뉴욕(플러싱): 158-14 Northern Blvd, 2nd FL, Suite UL-2, Flushing, N.Y. 11358
뉴저지: 12 Brinkerhoff Terrace Palisades Park, NJ 07650 신응남(농대 70)



일도 좋아하고 여행도 좋아하고
아이도 좋아하는 싱글맘,
이제 좋은 짝만 있으면 되겠죠?

경험해 듀오

DUO USA (LA) 3000 W. 6th Suite #317 LA, CA 90020 (NY) 2050 Center Ave. Suite 540 Fort Lee, NJ 07024

LA 213-383-2525
NY 212-947-2525



TimHaahs

PLANNING **PARKING** | CREATING **PLACES** | HELPING **PEOPLE**

www.timhaahs.com

손재욱 (가정대 77)

www.p31business.com

- Planning
- Parking
- Engineering
- Architecture
- Asset Management



Atlanta | Miami | New Brunswick | Philadelphia